자연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
강화 전등사 수목장
대한불교 조계종 전등사 032. 937. 0125

현대불교

신상품 LED인등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붓다뉴스 동영상 제공 기사 ☎구독신청 02)2004-8211~2 buddhanews.com 불기 2550년 (서기 2006년) 10월 25일(음력 9월 4일) 수요일 (주간) 제 600 호

조계종 '한글통일법요집' 발간 두달

한글화 의지 실종?

홍보 · 인식 부족 속 종단 공식행사서도 외면

시범사찰 지정 · 행자교육 교재 채택 등 시급

지난 9월 27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 조계종 환경위원회 주관으로 '불교환경의제21 선포식'이 열렸다. 3년여 준비기간을 거쳐 종교계 최초로 선포되는 환경의제였기 때문에 이치범 환경부장관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윤준하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등 주요 외부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종단 공식 행사'였다. 행사가 열리자 삼귀의를 거쳐 예의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 관자재보살…"로 시작되는 한문 '반야심경'이 봉독됐다.

"천수천안 관음보살 광대하고 원만하신 걸림없는 대비심의 신묘법문 열으소서…."

서울 봉은사 일요법회. 남녀노소 불자들이 한목소리로 한글 '천수경'을 읊는다. 불자들 앞에는 <한글통일법요집>이 펼쳐져 있다. 봉은사가 '천수경'을 한글화한 것은 3년 전.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하면 할수록 호응도가 높아져 갔다. 뜻도 잘 모르는 한문보다 한글로 의미를 되새기니까 의식 참여도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조계종이 의식의 한글화 대중화를 위해 3년 2개월간의 노력으로 <한글통일법요집>을 완간한 지 2개월. 하지만 이를 활용하고 있는 곳을 찾아보기 힘들다. 왜 그럴까?

포교원측은 우선 홍보 부족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의식(儀式)이 변하기 위해선 의식을 집전하는 스님들의 의식(意識)부터 바뀌어야 하는데 일정기간의 과도기가 필요하다. 이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홍보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원인으로 번역 문제를 거론하기도 한다. 법요집을 한글화할 때 국문학과 교수 등의 감수를 받았다. 하지만 원래의 뜻을 제대로 살릴 뿐 아니라 운율에 맞게 하기 위해선 여전히 손볼 곳이 많다는 지적이다.

포교단체의 한 관계자는 "종단의지 부족"을 꼬집기도 한다. "종단 공식행사에서조차 외면하는 현실에서 개 사찰이나 포교당에 <한글통일법요집> 사용을 권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얘기다.

<한글통일법요집>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어느 정도 강제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총무원이나 교구본사 공식 행사 때 <한글통일법요집> 사용을 의무화하면 자연스레 파급 효과가 생긴다는 논리다.

특히 행자교육원에서부터 <한글통일법요집>을 교재로 의식을 집전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 조계사 · 도선사 · 봉은사 등 도심 주요사찰을 시범사찰로 지정해 운영한 뒤 전체 사찰로 확대시키는 방안도 필요하다.

비디오 테이프나 DVD 등 영상자료를 제작해 사찰이나 불교단체에 보급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특히 불교방송이나 불교TV, 불교계신문사 등 불교언론 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종단 차원에서 한글의식집전대회 등을 개최하는 것도 <한글통일법요집>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장 진명 스님은 "포교단체나 계층에 맞게 소책자로 만드는 등 <한글통일법요집> 활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빛고을불교아카데미중계 4면 | 10월 25일 오후 7시 지선 스님 '사문유관상'

도난 성보 무더기 회수

서울 광역수사대, 대흥사 탱화 등 공개



조계종 호법부 상임감찰 정현 스님이 10월 18일 압수된 도난불교문화재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전국의 사찰과 서원 등지에서 도난된 문화재를 취득 · 은닉해 온 사설 박물관장과 탱화전문가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월 18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보물급 도난 불교문화재 6점을 포함한 중요도난문화재 516점을 취득해 박물관에 전시 보관해 온 박물관장과 탱화전문가, 서예가 등 6명을 적발하고 이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압수된 불교문화재는 1980년 해남 대흥사에서 도난된 영산회상도(1741년 作)와 신중도(1819년 作), 1980년 역시 대흥사에서 도난 된 사천왕도(1775년 作), 1989년 예천 한천사에서 도난 된 지장시왕도(18세기 제작), 1976년 순천 선암사에서 도난된 향로, 1992년 도난 된 전남 불회사 범종, 고려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옥개석 등 총 15점이다.

수사를 지휘한 광역수사대 강일구 경감은 "피의자들이 선의의 취득과 소유권을 포기하기만 하면 압수된 불교문화재는 모두 제자리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브리핑에 참관한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 상임감찰 정현 스님은 "광역수사대와 검찰의 공정한 수사로 압수된 도난 불교문화재가 제자리를 찾기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에 압수된 문화재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영산회상도와 사천왕도를 포함해 6점의 도난 불교문화재를 취득 · 은닉하고 있었던 H불교박물관이 정당한 소유권과 선의취득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H불교박물관의 한 관계자는 "압수된 불교문화재는 2000년도 초에 박물관에서 정당하게 구입한 것으로 전시실에 매일 전시해 놓은 불화가 어떻게 은닉 · 취득한 장물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적법한 법률절차를 밟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불두 등 도난 불교문화재를 소유하고 있던 M박물관은 광역수사대의 압수수사 직후 문화재청을 통해 관련 문화재를 원소유자에게 돌려 준 상태다.

노병철 기자 sasiman@buddhapia.com

"선거제 폐지 대중공사로…"

선원수좌회, 중앙종회의원 추천철회 성명

조계종 선원수좌회가 제14대 중앙종회의원 간선직 선원 후보로 추천했던 영진(선원대표자회의 의장) 스님과 법웅(수좌회 섭외분과위원장) 스님의 입후보를 철회하면서 승가공동체의 근본정신에 맞는 선거제도 개혁을 종단 집행부와 중앙종회에 강력히 요구했다.

전국선원수좌회는 20일 대구 마하야나선원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전국선원수좌회 추천 간선종회의원 입후보를 철회하며'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선원수좌회는 성명을 통해 "현 종회의원 선거풍토에 너무나 실망하여 종회의원 입후보를 철회한다"며, △기존 선거제도 폐지 △전통적 방식의 제도로 선거제도 개혁 △간선의원 공정하게 선출 △중앙종회의원후보들은 승가화합 · 불교발전 등을 위해 나서야 한다 등을 주장했다. 관련기사 2면

조용수 기자

진각종 새 총인 도흔 정사 추대

대한불교진각종 제 10대 총인에 도흔 정사(경주 각성심인당 주교)가 추대됐다.

진각종(통리원장 회정)은 10월 19일 총인원내 종의회 회의실에서 제349회 정기종의회를 열고 종의회 의원 만장일치로 도흔 정사를 제 10대 총인으로 선출했다.

도흔 정사는 1933년생으로 1964년 초대 종의회 의원, 1974년 제 11대 통리원장, 1989년 종의회 의장을 지냈으며, 2001년 대종사에 품수됐다. 현재는 경주 각성심인당 주교를 맡고 있다. 도흔 정사는 12월 초 인의회(진각종 원로들의 모임) 추대를 거쳐 5년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총인 인터뷰 2면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해외유출문화재 환수인력 1명"

강혜숙의원 국감서 지적

문화재청에서 해외유출 문화재 환수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단 1명 뿐이어서 관련업무가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조배숙, 이하 문광위)는 10월 17일 문광위 회의실서 열린 문화재청(청장 유홍준)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강혜숙 의원은 "문화재청 해외문화재 환수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은 단 1명에 불과하다"며 "해외유출 문화재 실태조사를 완료하는 데만 30년 이상이 걸릴 상황이므로 문화재 환수를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관련 예산도 확충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노웅래 의원도 "지금껏 정부차원의 문화재 반환협상이 실패한 것은 외교통상부가 마땅히 반환받아야 할 문화재를 주고받기 식의 협상논리로 접근했기 때문이며 앞으로는 문화재 담당부서인 문화재청이 협상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홍준 청장은 "불교문화재 연구조사와 문화재 도난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는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노병철 기자

한 · 일 · 대만 3국 전문가 통도사 영산전 벽화 복원 5면
해인사 사간판인경본 보급 6면
사찰순례 잘 하려면 19면
추사가 띄우는 편지 23면
봉선사 강설대법회 응각 스님 '아함경' 24~25면



시방세계 9면
도선사 108사찰순례 첫날



도반의 향기 17면
홍성 용봉초 김주석 선생님

'경전수행을 통한 깨달음' 10대 강백 초청
봉선사 강설대법회
각성 스님
해심밀경/10월 28일
봉선사 설법전, 031)527-1951~3

<PR>
불경금책 소장용으로 인기리에 보급중 !!!
金剛般若波羅蜜經
실물크기(3.5×5.0cm) / 금강경 24매
금강불교예술원에서 금강경, 반야심경, 천수경 등의 불경을 금책으로 제작보급하여 화제다. 99.9% 금으로 제작한 불경금책은 크기가 3.5cm×5.0, 5×7cm으로 휴대가 용이하며,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맞춤식 주문제작도 가능하다고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722-1850
(용도 : 복장의식, 상량식, 영가천도, 불사)

보이차 紅茶園
진년보이차 · 진품자사호 직수입
02-744-3311
www.hongdawon.com

성 명 서

- 전국선원수좌회 추천 간선종회의원 입후보를 철회하며 -

존경하는 사부대중 여러분 그리고 종도 여러분!

우리 조계 종단은 부처님의 혜명을 이어받아 자각각타 각행원만한 근본 교리를 봉체하고 견성성불 전법도생의 길을 걸어 왔습니다. 그러나 부처님 말씀과 불교 역사에서 결코 찾아볼 수 없었던 지금의 선거제도로 인하여 승가가 급속히 세속화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중앙종회의원 선거에 금품과 선물이 오가고 스승과 제자, 사형과 사제가 등을 돌리게 하는 선거풍토는 그 어느 곳보다도 맑고 청정해야 하는 승가를 혼탁케 만들고 있다는 뼈아픈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전국선원수좌회는 청정수행으로 일관해 오신 두 분의 수좌스님을 종회의원 후보로 추천하여 종단 발전에 기여하고 수좌회의 의지가 반영되기를 기대했으나, 현하 종회의원 선거풍토에 너무나 실망하여 종회의원 입후보를 철회하며, **총무원장스님과 집행부 그리고 중앙종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승가를 혼탁하게 하고 세속화 시키는 기존의 선거제도를 폐지하고, 승가공동체의 근본정신인 대중공사를 통해 화합과 합의로 추대하던 전통적 방식의 제도로 환원되도록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둘째, 부득이 선출해야 한다면 종회 간선 선출위원회에서는 종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각 직능대표에 대한 계파 간 나눠 먹기식 형태를 즉각 중단하고 여론을 취합해 입법토록 한 원래의 취지를 살펴서 간선 종회의원을 공정하게 선출하여야 한다.

셋째, 종회의원 후보자들은 자신의 작금 행위가 승가의 위상과 청렴성에 직결되고 있음을 직시하여 자신의 이익보다는 승가의 화합과 불교의 발전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존경하는 종도 여러분!

세월이 흐른 뒤 역사는 우리가 살았던 모습을 진실 그대로 평가할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와 대처승 시절에도 정화와 개혁정신으로 청렴하게 살아오신 선배스님들이 신명을 바쳐가며 지키고자하였던 대의가 무엇이었는지 다시한번 엄숙히 되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이러한 간곡하고 엄중한 경책을 무시하고 또다시 예전에 보인 바와 같은 혼탁한 선거양상을 재현하게 된다면 종도들과 신도들은 우리 불교교단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해 등을 돌릴 것이고, 전국선원수좌회도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현 집행부와 중앙종회를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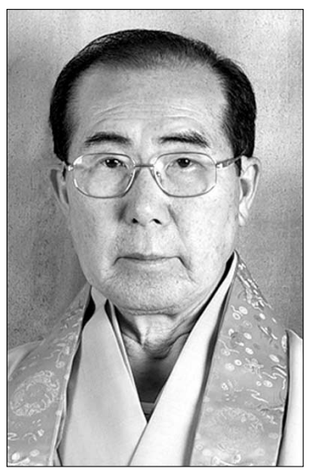
끝으로 현 선거제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전국선원수좌대회 개최도 불사할 것입니다.

불기 2550(2006)년 10월 20일

대한불교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

“인재양성에 최선 다할 것”

진각종 제10대 총인 도흔 정사



“종조의 사상을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 총인의 책무이기 때문에 법통을 승수하며 종단화합과 발전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진각종 제 10대 총인에 추대된 도흔 정사(사진)는 종조의 충실한 법통을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 총인의 책무이자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총인 추대 소식을 접하고 한동안 어리둥절했다는 도흔 총인가 인의회의 추대를 거쳐 총인의 임기를 시작하면 종단 사업중 가장 힘쓰고 싶은 것이 인재양성이다. 도흔 총인은 “어느종단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종도들을 이끌어 갈 인재를 키우는 일만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현재 통리원 산하 교육원에서 이를 담당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실무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효율적인 인재양성 제도가 이뤄지도록 독려할 생각입니다. 특히 종단 산하 교육기관인 위덕대와 진각대측과 많은 대화를 나눠 설립취지에 맞는 차별화된 인재양성 교육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꼼꼼하고 치밀한 성격이라는 평을 받고 있는 도흔 총인은 통리원장, 종의회 의장, 중앙교육원장 등 종단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쳐 왔기 때문에 행정 실무 경험 또한 풍부하다. 이런 이력을 십분활용해 적극적으로 종단의 주요 정책에 조언을 많이 할 생각이다.

도흔 총인은 “교세확장과 종도 포교를 위해 진각종 주요경전인 <진각교전>의 참의미와 정신을 종도들에게 정확히 알려 항상 공부하고 불공하며 이를 바탕으로 실생활에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도흔 총인는 내년부터 추진될 한국불교진각문화전승원 건립불사와 창종 60주년 기념사업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이 주요 사업불사들이 여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김주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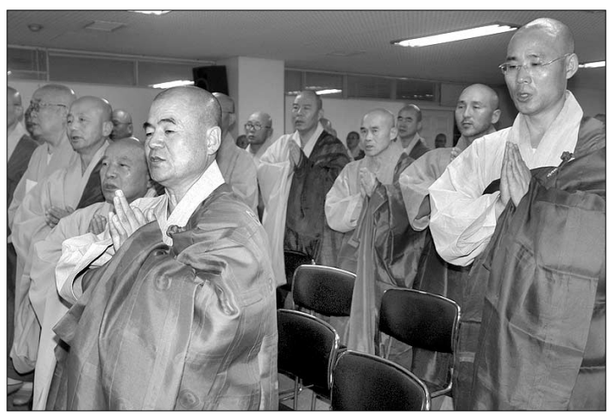
위촉

본지 5기 논설위원

종호 스님(동국대 선학과 교수) **월호 스님**(쌍계사 승가대학 교수)
박찬(영상물등급위원회 부위원장) **최순열**(동국대 국어교육학과 교수)
김용현(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권경희**(불교상담개발원 사무총장)

이상 6명 10월 15일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노진환
110-0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9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조계종 선원청규편찬위원들이 10월 20일 편찬위 발족식을 봉행하고 있다.

‘조계종 선원청규편찬위’ 발족

조계종 교육원과 전국선원수좌회는 공동으로 ‘조계종 선원청규편찬위원회’ 발족식을 10월 20일 불교대구회관에서 봉행했다.

수좌회 공동대표 현산 스님은 고불문에서 “조계종 불조의 이심전심으로 이어져내려오는 수행가풍을 본받아 선불장의 기본이 되는 선원청규를 편찬하려한다”고 밝혔다.

발족식에는 원로의원 원명스님과, 전국선원수좌회 상임대표 혜국스님을 비롯해 편찬위원장 의정 스님, 현산, 영진, 의정, 철산, 신룡 스님 등 수좌회 임원, 교육원장 청화, 교육부장 법장, 불학연구소장 현종스님이 참석했으며, 해인총림 율주 종진 스님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글 · 사진=배지선 기자

공원 안 사찰도 납골당 운영 가능

광주 문빈정사 소송 승소

사찰 납골당 허가와 관련한 관할 관청의 무차별적 규제나 간섭을 막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자연공원 내 사찰들도 이제는 자연공원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납골당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

광주 문빈정사(주지 석장)는 도심 사찰로 2001년 법당을 신축하면서 법당내 납골당을 설치하려 했고 ‘장사등에관한법’의 제한규정(한강수계, 문화재보고구역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 관청에 납골당설치 허가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주지 석장 스님은 이에 2002년 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해 4년여의 소송기간을 거쳐 10월 13일 ‘자연공원법을 근거로 문빈정사 납골당을 제한할 규정이 없으며, 건축허가과정에서 관청이 부당한 조건을 부가하는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에 대해 석장 스님은 “공단이 아무런 의미도 없는 자신들의 ‘내규’를 근거로 부당한 규제를 일삼아 왔음이 명백히 밝혀진 것”이라며 “앞으로 불교전통의 장례법인 납골당을 여법하게 운영해 나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조용수 기자**

검찰 마곡사 압수수색 조계종 “불교 경시한 것”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10월 11일 오후 7시경 조계종 제6교구본사 마곡사 종무소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번 사태는 마곡사 주지 진각 스님에 대해 검찰이 배임수재와 개인비리 혐의로 내사를 벌여오던 가운데 이뤄진 것이다. 그러나 조계종은 이번 공권력의 압수수색이 불교계를 모욕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 진상조사를 위해 호법부 등 종단 실무자를 현지에 파견했다. 또 교구본사 주지회의를 통해 종단차원의 항의 서한을 검찰에 보내기로 했다.

혐의 내용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진각 스님은 불교계 신문에 참회사과문을 게재하는 한편, “총무원과 협의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 등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청정교단 실현을 위한 시국토론회’를 23일 개최했다. **조용수 기자**

자격시비 · 접수방해에 폭행까지 …

조계종 14대 중앙종회의원 선거 총 110명 등록 … 26일 투표

제14대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선거에 모두 110명의 스님이 10월 18일 입후보 등록을 마쳤다.

최종 등록결과, 20명을 선출하는 직능직 대표에는 28명이 출마했다. 비구니대표는 도문 스님 등 10명이 13일 열린 전국비구니회 운영위의 추천대로 모두 등록을 마쳤다. 직선으로 선출하는 24개 교구에도 총 72명이 출마했다.

직능직과 비구니대표는 23일 직능대표 선출위원회의에서, 직선직대표는 26일 각 교구별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그러나 선거 초반부터 후보등록 접수방해로 논란과 후보폭행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어 종도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비록 일부 사례이기는 하지만 달라진 제14대 중앙종회의 모습을 바라는 종도들의 바람을 꺾지 않기 위해 중앙선관위(위원장 도공)의 엄격한 선거관리와 감시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후보등록 거부논란을 빚었던 불국사 교구선관위는 포항 죽림사 주지 종문 스님의 입후보 사실이 새롭게 밝혀져 논란 끝에 후보자격을 인정받았다.

또 관음사 교구선관위(위원장 현호)는 지난 9월 주지 선거과정에서 갈등을 빚은 현 주지 반대파 법정 혜민 스님의 후보 등록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나 갈등을 빚고 있다.

제10교구 은해사에서 출마한 환성사 주지 도오 스님 폭행사건도 충격을 주고 있다. 도오 스님은 후보등록을 마친뒤 은해사 종무소에서 ㅎ스님, ㄷ스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출마자들의 입후보자 자격을 최종 확정하는 20일 162회 중앙선관위회의에서 관련자들의 소명과 이의제기 결과에 따라 이들 교구선거의 향방이 갈릴 전망이다.

한편 직선직 출마에 나선 스님들 가운데 각급선거관리위원을 겸임할 수 없는 선거관리위원회시행규칙 부칙 3조를 위반한 사례도 논란이 되고 있다. 직능직 간선선출위원인 종상 스님이 11교구 불국사 종회의원으로 출마한 것은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영배 스님도 비록 겸직금지 규정이 없다고 해서 종립대학 이사장이 종회의원을 겸하는 것은 격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성실한 종회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출마하지 말아야 한다는 여론이다.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원장 김희욱)가 각종 비리와 부정에 연루돼 출마 부적격 스님으로 지목한 관음사 중원, 법주사 현법 스님을 비롯해, 불교박물관비리 당시 재무국장이었던 각원 스님이 법주사에 출마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종회의원의 엄격한 도덕성과 청렴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문제가 있는 스님이 출마를 강행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는 지적이다. **조용수 기자**

직선 입후보자 명단(기호순, 스님호칭 생략) (10월 20일 현재)

구 분	입후보자	비고
직 할	옥천암 정범, 약사사 태연, 청량사 지현, 적조사 자제, 삼천사 동출	
2교구 용주사	염불사 성직, 용주사 환적, 용덕사 성효	
3교구 신흥사	육지장사 지원, 심원사 도후, 호압사 정휴	
4교구 월정사	법흥사 도완 정암사 정광	무투표
5교구 법주사	개태사 현법, 각화사 노현, 법주사 각원	
6교구 마곡사	관촉사 태진, 성불사 원경, 갑사 장곡	
7교구 수덕사	선본사 정묵, 부석사 주경	무투표
8교구 직지사	학도사 법보, 직지사 장명	무투표
9교구 동화사	도덕암 법광 선문, 용천사 정관	
10교구 은해사	은혜사 선광, 불광사 돈관, 봉림사 선조, 환성사 도오	
11교구 불국사	불국사 종상, 불국사 정문, 죽림사 종문	
12교구 해인사	해인사 도영, 흥국사 대오, 연화사 혜일	무투표
13교구 쌍계사	석왕사 영담, 묘덕사 종호	무투표
14교구 범어사	정암사 상운, 선암사 원범, 동명불원 도관	
15교구 통도사	통도사 도문, 옥천암 보화, 월봉사 오심, 우룡사 범해, 불광사 지준	
16교구 고운사	부석사 자현, 봉정사 성묵, 흑석사 기현, 희방사 설송, 용담사 철우	
17교구 금산사	은적사 성우, 중앙종회 법진, 남고사 원혜	
18교구 백양사	미황사 현공, 백양사 의연	무투표
19교구 화엄사	상운사 진만, 용화사 덕문	무투표
21교구 송광사	법련사 보경, 길상사 무자, 증심사 진화	
22교구 대흥사	대흥사 보선, 도갑사 월우	무투표
23교구 관음사	백용사 진명, 관음사 중원	무투표
24교구 선운사	선운사 보원, 개암사 혜오, 광교산 좋은절 법경, 문수사 선법	
25교구 봉선사	불암사 일관, 현등사 초격, 용문사 보인	

직능 입후보자 명단

구분	입후보자	비 고
직능	[선원]해인사 선각 [강원]법주사 철운, 통도사우진 [교육]홍제사 혜림, 불교신문사 향적 [포교]노적사 종후, 포교원 재현, 금강정사 지홍, 백련암 원택 [사회]신륵사 세영, 수원포교당 성관, 대승사 학담, 내소사 진원, 통도사 정안 [복지]보광사 일문, 도선사 동광 [문화]안흥사 장적, 보광사 종훈, 조계사 원담, 삼화사 효림, 흥덕사 영배 [법제]망해암 광조, 오어사 장주, 법주사 지명, 동화사 홍관 [행정]은정불교문화진흥원 자승, 보문사 성월, 전등사 장윤	[율원]은 입후보자 없음

비구니 입후보자 명단

구분	입후보자
비구니	석남사 도문, 불영사 일운, 동학사 일초, 혜광사 혜원, 동학사 미타암 운달, 석불사 경륜, 안흥사 수현, 보륜사 성정, 전국비구니회관 일법, 진관사 계호

韓國 禪文化學會 2006년 定期 秋季學術大會

靑潭 大宗師의 思想과 韓國佛敎의 나아갈 길

- 일 시 : 2006년 11월 3일(금요일) 오전 10시~오후 6시
- 장 소 : 조계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실
- 주 최 : 한국선문화학회
- 후 원 : 대한불교 조계종 도선사, 청담 문도회, 청담 장학문화재단

모시는 글

三寶에 歸依하오며, 부처님의 가피력이 늘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국선문화학회가 “靑潭 大宗師의 思想과 韓國佛敎의 나아갈 길”을 주제로 2006년 定期 秋季學術大會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는 그동안 학계가 진행해 온 靑潭 大宗師의 思想에 대한 연구 성과를 점검하고, 더 나아가서 靑潭 大宗師 思想의 21세기 한국불교에서의 좌표를 탐구하는 자리가 될 것 입니다. 진리를 사랑하시는 관계 분야의 모든 분들이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10월
한국선문화학회 회장 이평래 합장

일 정

■ 제 1부
개회식 (10시 00분-10시 50분)
사회 - 이덕진교수(창원전문대)
- 삼귀의 및 반야심경 봉독
- 개회사 : 이평래교수(한국선문화학회회장, 충남대)
- 법 어 : 지관스님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 축 사 : 현성스님(청담문도 대표)

■ 제 2부
학술논문 발표
- 오전 발표(10시 50분-12시 30분) 좌장 : 혜원스님(동국대)
- 기조 발제 : 청담스님의 정화사상과 대한불교조계종/ 혜자스님(도선사 주지)
- 제1주제 발표 : 청담스님의 한국불교사에서의 위치/ 김선근교수(동국대)
  토론 : 고영섭교수(동국대)
- 제2주제 발표 : 청담스님의 견성사상/김용환교수(부산대)
  토론 : 서재영박사(동국대)

■ 점심공양(12시 30분~13시 30분)

- 오후 발표(13:30-16:00) 좌장 : 임병권교수(상명대)
- 제3주제 발표 : 청담스님의 수행관에 대한 일고찰/ 김방룡박사(북경대)
  토론: 차차석교수(한신대)
- 제4주제 발표 : 청담스님의 한국불교 정화운동에 대한 고찰/ 목정배명예교수(동국대)
  토론: 김광식교수(부천대)
- 제5주제 발표 : 청담스님의 선사상과 21세기 한국불교의 나아갈 길/김경집박사(동국대)
  토론: 김치온박사(동국대)

■ 휴식(16:00~16:20)

■ 제 3부
종합 토론(16:20~17:20)
좌장 : 종호스님(동국대 교수)
- 토론자 : 김선근교수(동국대), 고영섭교수(동국대), 서재영박사(동국대), 김용환교수(부산대), 김방룡박사(북경대), 차차석교수(한신대), 목정배명예교수(동국대), 김광식교수(부천대), 김경집박사(동국대), 김치온박사(동국대)

한국선문화학회 Korean Society For Seon Culture Studies
우)305-764 대전광역시 유성구 궁동 220번지 충남대학교 인문대학 철학과 교수 이평래(한국선문화학회 회장) · 연락처: 이덕진(한국선문화학회 총무이사) ☎(055)279-5917, 017-243-5838

복지종사자 모여라!

불교사회복지대회, 11월 3일 범종단 차원서 열려
기관 실태조사 첫 발표 · 불교자원봉사연대 발족

매년 연말마다 조계종이 주최하던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가 올해는 더욱 확대돼 불교계 전체 사회복지종사자들을 위한 축제의 장으로 거듭난다.

특히 올해에는 조계종 뿐 아니라 진각종과 천태종 사회복지재단까지 참여해, 범불교적인 화합의 한 마당이 될 예정이다. 더불어 불교계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들까지 초청해 축제의 분위기를 더욱 돋운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지관)은 '나눔으로 하나 되는 대축제-불기2550년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를 11월 3일부터 이틀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및 조계사 일대에서 개최한다.

1부가 펼쳐지는 11월 3일에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대강당에서 기념법회를 열고 불교사회복지유공자 시상식과 함께 '불교계 사회복지기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그간 불교계 사회복지기관들의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산하 불교사회복지연구소가 지난 4월부터 불교계 사회복지관련 법인 및 단체 전수조사에 착수해 이번 결과를 내놓게 됐다. 이번 조사는 불교계에서 실시됐던 복지관련 실태조사 중 가장 자세한 것으로, 불교계 복지시설의 운영현황 전반이 상세히 공개될 예정이다.

앞서 오전 10시 30분 조계사 권역에서는 불교계 산하 유아 및 보육시설을 다니는 어린이 500여명을 초청해 어린이들을 위한 '아동미술큰잔치'를 연다. 불교계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다니는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사찰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된 행사다.

11월 4일에는 조계사 일대에서 각종 불교계 복지단체가 참여하는 불교사회복지박람회 및 연예인 애장품전, 인기가수 초청공연, 각종 차 및 사찰음식 무료시식, 바자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

이번 행사마당에는 △승가원, 연꽃마을, 불교사회복지회, 불국토, 진각복지재단, 천태종복지재단 등 불교계 대형복지법인과 △(사)생명나눔실천본부, 지구촌공생회, 정토회, 우리는 선우, 맑고향기롭게 등의 NGO 단체 △조계종직할자원봉사단, 천수천안, 정토마을, 중앙신도회 '반갑다 연우야', 불교환경연대 등 봉사단체 △조계사, 봉은사, 화계사, 도선사, 진관사, 불광사 등의 사찰 및 25곳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이용자 등 약 60여곳에 이르는 다양한 단체와 이용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우수한 부스를 추첨해 시상도 할 계획이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를 계기로 불교자원봉사연대(가칭)를 발족하고, 다양한 복지단체간의 정보를 교류하는 범종단적 네트워크를 차츰 실현해나갈 예정이다.

이은비 기자 renvy@buddhapia.com



조계종 원로의원 휴암당 정천 대종사 영결식과 다비식이 10월 19일 고성 문수암에서 엄수됐다. 사진=천미희 기자

올곧은 수행자의 표상

휴암당 정천 대종사 15일 원적

조계종 원로의원인 휴암당 정천(正天) 대종사가 10월 15일 오전 5시 35분 경남 고성 보현암 약사전에서 원적에 들었다. 세수 77세, 법랍 60세.

청담 문도의 제일 큰 어른이면서 올곧은 수행자의 표상으로 존경 받았던 정천 스님은 "뚜렷이 홀로 밝아 모양이 없는 자여 본래 생사가 없이 가장 당당하도다. 환화의 삼계에 임의로 오고가니 천상천하에 누가 능히 당하리요"라는 임종게를 남겼다.

청담문도회 최고 어른
개미떼 밟지 않으려
30리 돌아간 일화 유명

조계종 제2대 종정을 지낸 청담 스님을 은사로 1947년 득도한 정천 스님은 49년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한 뒤 제방 선원에서 수십 안거를 성만했다.

21살 되던 해, 청담, 성철, 안락 스님 등을 모시고 조계종 종정 법전, 원로의원 혜정 스님등과 수행했던 인연으로 청량산 문수암에 들어 수행과 불사에 매진해왔다. 하동 쌍계사 주지, 영천 은해사 주지,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청담문도회장 등을 역임했다. 은사 청담 스님의 유훈을 받들어 문수암을 지키며 도선사 조실로 불자들에게 가르침을 전해왔다. 저서로는 <피안의 향훈>을 남겼다.

정천 스님의 영결식은 10월 19일 고성 문수암에서 조계종 원로회의장으로 봉행됐다.

임종게

역역고명물형자 본무생사최당당
(歷歷孤明勿形者 本無生死最堂堂)
환화삼계임거래 천상천하수능당
(幻化三界任去來 天上天下誰能當)

조계종 종정 법전, 원로의원 진제 · 지혜,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1000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봉행됐다.

법전 스님은 법어를 통해 "백천간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법신을 이루었으니 어찌 종사의 본분상에 생몰이 있겠습니까?"라며 정천 스님을 추모했다.

이에 앞서 종산 스님의 영결사를 대독한 진제 스님은 "아직 제도해야 할 중생들이 이렇게 지천인데 홀로 열반락을 즐기시렵니까? 원생으로 저희들 곁에 다시 오십시오"라며 안타까워했다.

지관 스님은 "개미떼의 생명을 죽이지 않기 위해 목적지를 바로 앞에 두고 30여 리 길을 돌아갔다는 스님의 생전 일화가 후학들의 마음을 때리니 앞으로 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열심히 정진하는 사부대중이 되겠다"고 추도했다.

영결식에 이어 국화꽃으로 장식된 다비장에서 스님의 법구는 귀천(歸天). 거화를 하려는 순간 하늘에 햇무리가 뜨자, 슬픔에 잠겼던 대중들은 "스님 가시는 길에 상서로운 조짐이 나타났다"며 기뻐했다. 정천 스님의 법신은 연기로 화해 문수암과 약사전 약사대불을 돌고 구름 낮게 드리운 하늘로 사라졌다.

천미희 · 조용수 기자



4대 종교인 "북핵문제 평화적 해결" 촉구

불교 개신교 가톨릭 원불교 등 4개 종교인들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기도를 올렸다. 4개 종교단체 대표자들은 10월 19일 △미국과 북한의 직접 대화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재다짐과 해명 △민간 통일 · 평화운동 단체들의 대북 교류 강화 등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박봉영 기자

어린이 포교전진대회 열린다

11월 11일 포교의지 담은 선포문 낭독

조계종 포교원(직무대행 일관)은 11월 11일 조계사 대웅전 앞에 특설무대를 마련하고 '어린이 포교가 미래불교의 희망이다'라는 슬로건으로 어린이포교 전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어린이포교에 대한 조계종의 강력한 의지와 종책을 대내외에 선포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전국의 어린이포교 지도자 및 어린이불자 2천명을 집결해 포교의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사는 △어린이포교 관련 모범공로자 표창 △종단의 포교의지를 천명하는 어린이포교 선포문 낭독 △어린이포교 비전 선포식 △총무원장스님 치사 등으로 진행된다.

이은비 기자

청소년 불자 화합 한마당

경인지역 사찰학생회 연합체육대회

침체된 청소년포교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인구 최대의 수도권지역 사찰 중고등학생회가 참여하는 연합행사가 개최된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 사찰들은 10월 29일 오전 10시~오후 4시 서울 동대부속여고에서 '청소년불자 화합의 한마당'이라는 주제로 수도권지역 사찰학생회 연합체육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체육대회는 서울지역 사찰 청소년법회 담당자들이 처음으로 진행하는 공동프로그램이어서 더욱 뜻 깊다. 지난 9월 24일 조계종 포교원과 파라미타청소년협회, 서울 경인지역 청소년법회 담당자들은 '침체된 사찰학생회 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한 방안'을 토론한 끝에 행사를 준비했다. 참여가 확정된 사찰은 구룡사, 금화사, 능인선원, 미타사, 봉은사, 불광사, 석왕사, 약사사, 조계사 등 9곳.

경인지역 사찰 청소년법회 담당자들은 이 행사를 시작으로 △사찰 청소년법회 지도자들의 네트워킹 및 연수실시를 통한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 불자를 위한 불교학생회 공동사업 모색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 육성, 지원체계 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인천지역 조계종 사암연합회(회장 지명)는 29일 법명사 운동장에서 '천진불 어울림 마당'이라는 주제로 인천지역 사찰 어린이회 연합행사를 갖는다.

이은비 기자

복원된 낙산사 동종
이운 · 첫 타종

낙산사는 10월 16일 복원된 동종을 종 제작사인 충북 진천의 성종사(대표 원광식)로부터 이운한 다음 낙산사 보타락에 임시로 안치해 첫 타종식을 거행했다(사진).

범종 타종식은 낙산사 주지 정념스님, 성종사 원광식 대표이사 등 사부대중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다. 타종식에서는 산불에 소실된 보물 479호 동종의 한을 대변하기라도 하듯 은은하고 우렁찬 법음이 경내에 토해졌다.



한편 낙산사 재무국장 대공 스님은 "10월 24일로 예정됐던 원통보전 기공식과 동종 타종식은 무기한 연기됐다"고 밝혔다. 노병철 기자

지구촌 공생회 · 조계종사회복지재단

한국국제협력단 NGO 등록

지구촌공생회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한국국제협력단(KOICA) NGO로 10월 10일 등록됐다. 이에 따라 불교계의 국제협력활동이 보다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두 단체는 1년 1회에 한해 최대 1억원까지 KOICA의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으며, KOICA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해 해외자원봉사자를 보내는 한국NGO봉사단을 해외사업장에 파견할 수 있다. 또 긴급구호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업비의 80%까지 지원받거나 재난지역 이동을 위한 전세기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KOICA가 자체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외시설을 위탁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국제구호 및 개발사업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됐다.

박봉영 기자

마곡사 사태에 대한 참회문

귀의삼보 하오며.

존경하는 종정예하와 원로의원스님, 총무원장스님 그리고 각 본사주지스님과 중앙종회의원, 수행과 포교에 전념 하시는 중진대덕스님과 사부대중께 삼가 참회의 글을 올립니다.

소승이 부덕하여 지난 10월 11일 저녁 6시 30분경 대전지방 검찰청 공주지청검사가 당교구본사 주지실로 들이닥쳐 압수수색 당하는 초유의 화를 불러왔습니다. 이에 소승은 진심으로 시방삼세의 제불보살님과 모든 사부대중에게 참회를 올립니다. 이번 사태는 그 어떠한 참회로도 삼보에 끼친 누를 만회 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종정예하, 사부대중 여러분

이 시점에서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잘 잘못이나 무고를 따지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시비를 불러 오고 이는 종단과 사부대중에게 역시 또 다른 누를 끼치는 결과를 가져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승으로 인해 무너진 종단과 대중의 명예를 회복하고 결자해지의 각오로서 그간의 물의를 만회코자 더욱더 성찰과 수행으로 본사의 발전과 불법의 홍포에 분골쇄신 할 것을 삼보 전에 맹세 합니다. 거듭 제불보살님 전에 참회를 올리는 바입니다.

불기2550(2006)년 10월 16일

마곡사 주지 진각 합장

마곡사 대중 일동

인간붇다, 그 위대한 삶과 사상을 만나다
빛고을 불교아카데미(제2강 : 비람강생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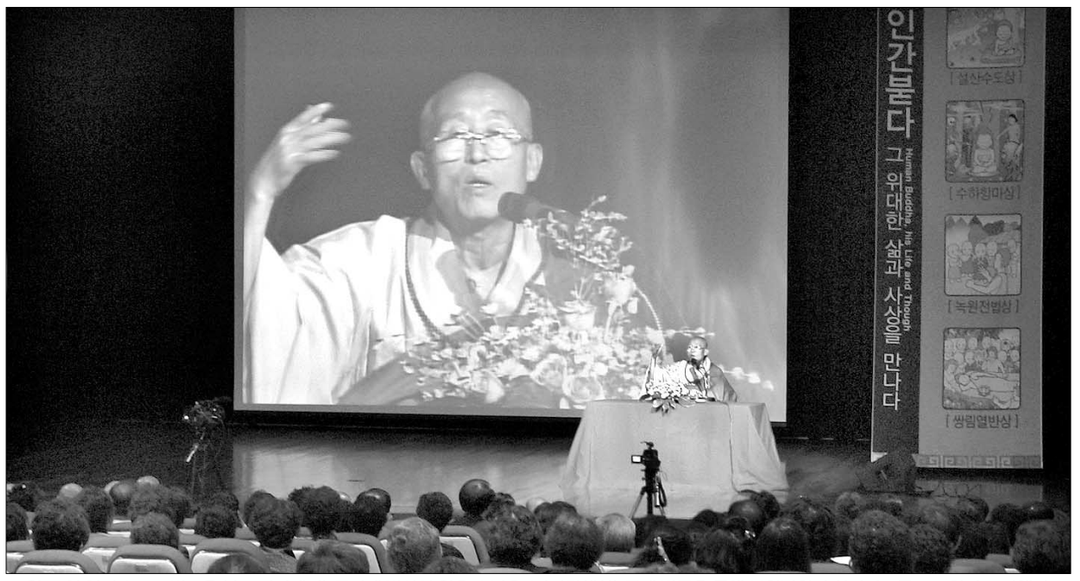
광주불교사암련 · 현대불교 공동주최
월운 스님(동국역경원장) / 10월 18일

자기 인생문제 해결해 줄 이는 오직 자신뿐

길에서 태어나 뭇 생명의 존귀함을 말하다

'비람강생상(毘藍降生相)'. 부처님의 일대기를 그린 팔상도 두번째 그림으로 마야부인이 룸비니 동산 무우수 아래에서 싯다르타 태자(부처님)를 출산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아기 부처님이 사방으로 각각 일곱 걸음을 걷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하늘을, 왼쪽 손가락으로 땅을 가리키며 '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天下 唯我獨尊)'이라고 외치는 장면이 대표적이다.

또한 하늘에서 제석천왕이 내려와 비단옷으로 부처님을 받들고, 여러 천왕이 기뻐하면서 보물을 공양하는 장면, 아홉마리 용이 신성한 물로 부처님을 씻기는 장면, 부처님을 가마에 태워 왕궁으로 돌아가는 장면, 아지타 선인이 부처님을 친견하고 예언하는 장면 등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10월 18일 열린 '2006 빛고을 불교 아카데미' 두번째 법사인 월운 스님은 '비람강생상' 주제 법문을 통해 부처님처럼 살아가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 우리 인생사는 '업계고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게 될 주제는 '비람강생상(毘藍降生相)'입니다. 다시 말해 부처님이 태어나신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은 굽이굽이 우리 범부들이 생각할 수 없이 훌륭하게 사셨습니다. 부처님은 우리 중생들이 당신과 거리감 없이 당신 말을 듣고 생각하고 행동해주길 바라시며 우리 곁에 모습을 나투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개념으로 태어났다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비람강생' 이라고 합니다. 태어나기는 태어났지만, 우리가 어머니 배에서 태어난 것과는 달라서 '강생' 했다는 것입니다.

중생들이 태어나고 죽는 것을 '업계고(業係苦)'라고 합니다. 업에 끄달려서 끌려왔다가 끌려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사는 어디서 무엇하러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며, 그저 끌려왔다가 끌려간다고 하여 업계고신이라고 합니다. 업에 얽매여서 태어나는 몸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불보살이 태어나는 것은 의생신(意生身)이라고 합니다. 뜻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불교의 특색이 뭡니까? 자기 문제를 남이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6년간 혼자 공부하신후 깨달은 것이 바로 내 마음의 조화입니다. 즉 내 마음을 잘 길들여야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스스로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가고 싶은데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뜻하지 않게 형무소에 있는 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본래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닌데 분위기 때문에 그랬다거나, 친구 때문에 그랬다던가, 무엇에 홀려서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내 마음대로 못하는 사람을 업계신,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을 의생신이라고 합니다. 주관이 생기고 주관대로 살아갈 수 있으면 의생이라고 합니다. 뜻대로 사니까요. 뜻대로 사는 방향을 바로 선택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바르게 선택하는 길이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불법 속에서 배우라는 이야기입니다.

▷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외치다

부처님 태어나실 때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한 손으로 하늘, 한 손은 땅을 가리키며 동서남북으로 일곱 발걸음을 걸으신 일입니다. 물론 문제가 있죠. 갓 태어난 아기가 어떻게 벌떡 일어나겠습니까. 또 부처님이니까 그렇다고 생각하더라도 왜 하필 일곱 발자국인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돌아다니며 한 손을 들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여기서 일곱 걸음을 걸으셨다는 것은 동서남북을 끝까지 갔다 왔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 외친 한마디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입니다. 우주만물 중에 내가 가장 존엄하다. 이처럼 부처님이 태어나자마자 한 말씀 하셨다고 해서 제일 사자후, 맨 처음에 하신 부처님 말씀이라고 합니다. 말이 그렇지 사실 갓난아이가 말을 했다고 하면 누가 믿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믿느냐.

죄송하지만 지금도 부처님이 하신 그 소리가 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귀에는 안 들리니까 문제인 겁니다. 다른 소리는 들리는데 이 소리는 안들려요. 안 들린다고 해서 소리가 안 나는 것은 아닙니다. 가을이 오는 소리가 들리고, 여름이 가면서 눈물 흘리는 소리도 있는데 안 들립니다.

그 당시 하늘 위, 땅에서 높은 분이 있다면 천지만물을 창조한 창조주가 제일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창조주를 기독교가 이야기 하지만 바라문 교, 마호메트 교 등 유신론에서 모두들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절대적인 신이 우리를 지배하고 천지만물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용서해주시고, 애들 쑥쑥 크게 해달라고 비는데, 애들 크는 것이 빌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오줌똥 잘 싸야 쑥쑥 크는 것입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것이 확실한 진리이고 으뜸가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으뜸가는 말씀이냐 하면, 불교가 그것 빼고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혼자서 존재하는 거죠. 우리가 신에 매달려 산다든가, 운명에 매달려 산다든가 그러지 말고 스스로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내 삶을 챙겨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 불교입니다. 첫째도 내 책임, 둘째도 내 책임, 그래서 이 말을 하려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정신만 차리면 행복이 굴러 들어오고, 정신만 차리면 불행을 웃으면서 받아넘길 수 있고, 정신만 차리면 힘이 들어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불교입니다. 부처님의 첫번째 사자후, 이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가 없던 것이었는데 싯다르타 태자가 태어나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진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처님은 제일 사자후를 외치시고, 그걸 시현하기 위해 출가수행 하셔서 도를 닦으신 것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하신 후 처음으로 설한 것이 <화엄경>입니다.

▷ '오늘의 나' 똑바로 서기 위해

<화엄경> 여래출현품에 부처님의 첫 사자후인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풀이해놓았는데, 1 중생은 모두가 부처다. 2. 그런데 스스로의 제 욕심 때문에 제가 속아서 중생이 되었다. 3. 내가 그들에게 방편으로 참과 거짓을 가르쳐 주어, 4. 스스로가 부처임을 알게 하리라. 이것이 여래출현품에서 제일 사자후를 다시 풀이해 놓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불교의 전체입니다.

나 자신이 정신을 차리면 부처가 그냥 유지되는데 부처가 아닌 까닭은, 무슨 사탄이나 조상 탓이 아니라 나 자신이 부처를 찾지 않고 우선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즐기고 보자는 것 때문입니다. 뻔히 알면서도 자기 자신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자기 자신을 지키는 종교입니다.

자기 자신을 지켜 자신의 힘으로 행복을 만들어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과정에서 당연히 지불해야 할 고통이면 지불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불교의 생활은 과거 현재 미래, 시방삼세를 살펴서 나의 정신이 삼세를 꽉 훑어보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 발걸음이 지금 현재 내 발걸음이면 뒷발걸음이 과거이고 앞으로 내딛는 발걸음이 미래입니다. 그런데 앞은 볼 것 없이 막 내밀면 된다고 하는 이도 있고, 과거를 생각할 것이 없이 열심히만 살면 된다는 이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안됩니다.

어제 없는 오늘이 있을 수 없고, 오늘 없는 미래가 있을 수 없습니다. 불교에서 수행은 오늘의 나를 똑바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어제의 잘못된 것을 철저히 나 스스로 정리하고 미래의 방향을 항상 챙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법문을 듣는데 법문만 듣고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나는 항상 부처님같이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불제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가 ▲나는 왜 불제자인지 알고 있는가.

이 세 가지 물음을 항상 자신에게 던져야 합니다. 우선 내가 왜 불교를 믿는가를 모르면 그냥 내 몸에 진이 배길 정도로 마음속에 부처님을 새기면 됩니다. 아주 쉬운 방법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 말자 앉아서 이를 딱딱딱 세 번 치고, 손바닥을 세 번 문지르고, 눈을 세 번 부비고 '관세음보살' 아니면 '석가모니불'을 일곱 번 부르든지 시간이 없으면 다섯 번, 세 번, 아니면 한번이라도 불러보세요. 선도에서 손 비비는 것은 세수를 하고 얼굴 닦고, 양치하는 것입니다. 이를 딱딱거리면 늙어서 이가 놀지 않고, 눈을 비비면 눈이 나빠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침마다 하는데, 콩을 백 개 가져다가 하루했으면 콩을 종지에 한개 놓고, 빠졌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백일간만 하면 분명 달라집니다.

저녁에 잘 때 하면 더 좋습니다. "오늘 하루도 부처님 곁을 떠나지 않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부처님을 많이 놓쳤지만 내일은 부처님과 더 가까이 부처님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반복하고 반복하다보면 내 속에 힘이 생기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기힘이 생깁니다. 부처님을 믿는 힘. 이 힘은 믿음과 끊임없는 노력, 잊지 않는 기억과 흔들리지 않는 선정, 슬기로운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나쁜 마음을 생각하면 나쁜 힘이 생깁니다. 그런 것이 나를 끌고 가게 됩니다. 집안을 깨끗이 치워놓아 보세요. 파리가 오겠는가. 재앙이 괜히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쁜 향기를 피우니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불할 때도 '계향' 하는데, 계를 잘 지키면 내 몸에서 향이 납니다.

▷ 부처님같이 살고 있나 늘 돌아보자

가족들에게 내가 불제자임을 확실히 보여주고, 왜 절에 가는지 일러줘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이, 내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알고 가야 합니다. 정신 차리는데 불교가 무슨 필요 있는가 하지만 논리없이 정신차린다는 것은 바다의 등대가 꺼지지 않고 깜박거리는 것과 같습니다.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미래를 내다보려면 지혜로운 판단이 있어야 해요. 그 판단을 제공해 주는 것이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은 그 판단만 제공하지 다른 아무 일도 해주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대신 너희를 극락을 보내준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족이 다같이 불제자 생활을 하고 절에 가서 이웃을 향한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자타일시 성불도'입니다.

비람강생상, 부처님께서 룸비니동산에 하강하시는 그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바로 알아 받들어서 우리 자신이 부처님을 닮아 가야 하겠습니다. 정리 · 사진=이준엽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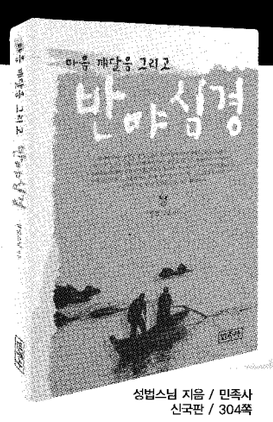
山寺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서른 세 분의 스님이야기!

내가 만난 스님들은 고집쟁이들이었다. 주위의 시선에 아랑곳없이 묵묵히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외골수들이었다. 융통성과 재주와 재치가 판치는 세상에서 아직도 원칙과 상식 도덕을 받드는.
자유인들이었다. 어느 상황이 닥쳐도 훌훌 털어버리는 홀가분함, 앞뒤 재지 않는 무대책, 명분이 서지 않으면 낭떠러지인 줄 알면서도 발길을 옮기지 않고 꼿꼿하게 길을 가는.
채우기보다는 버림을 선택하는 버리기 도사들. 성향과 방식은 다르지만 모두 자유인들이다.

아름다운 길 아름다운 스님
21세기 33인의 스님이야기
이연정 지음
아름다운 길 아름다운 스님
이연정 지음 / 신국판 / 320쪽 / 12,000원

지종 스님(벽양사 방장) | 원응 스님(벽송사 서암) | 지광 스님(능인선원 원장) | 진옥 스님(석천사 주지) | 영담 스님(석왕사 주지) | 혜능 스님(율사) | 잔월 스님(한국 종교연합선도기구) | 법장 스님(선운사) | 상덕 스님(청암사 주지) | 각안 스님(효상좌) | 현장 스님(대원사 주지) | 원민 스님(능엄학림) | 도각 스님(민족공동체추진본부) | 지현 스님(청량사 주지) | 현응 스님(육조사 주지) | 진원 스님(강사) | 탁연 스님(충무원 문화부장) | 지완 스님(서울노인복지센터) | 철산 스님(내소사) | 원오 스님(군법사) | 정념 스님(월정사 주지) | 인묵 스님(어산학교장) | 원각 스님(원당암) | 지산 스님(봉인사) | 도영 스님(용탑선원) | 노현 스님(각화사 주지) | 미산 스님(중앙승가대) | 성원 스님(강화 선원사) | 정념 스님(낙산사 주지) | 원명 스님(동해 삼화사 주지) | 금강 스님(미황사 주지) | 철운 스님(법주사 승가대학장) | 선재 스님(선재사찰음식연구원)

불교에 대한 보기 드문 비판과 대안을 역설한
반야심경의 새로운 해석!



이 책은 불교에 대한 보기 드문 비판과 대안을 역설하면서 반야심경의 새로운 해석을 시도한 반야심경 해설서이다. 깨달음이란 물질을 떠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집착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본성을 공(空)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다. 마음으로 물질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다스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다.

성법스님 지음 / 민족사
신국판 / 304쪽

UN에서 전세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질문은 딱 한 가지였다.
"지금 다른 나라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식량 부족 문제의 해결책이 있다면 정직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설문은 엄청나게 실패했다. 아프리카에서는 '식량'이 뭔지 몰랐고, 서유럽에서는 '부족'이란 단어를 몰랐다. 동유럽에서는 '의견'의 뜻을 몰랐고, 중동에서는 '해결책'이 뭔지 몰랐다. 남미에서는 '부탁'이라는 걸 몰랐고, 아시아에서는 '정직한'이라는 뜻을 몰랐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다른 나라들'이라는 게 뭔지 몰랐다.

– 본문 중에서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파빌리온 810호 · 전화: 02-732-2403~4 팩스: 02-739-7565
이메일: minjoksa@chol.com 홈페이지: www.minjoksa.org
민족사

한·일·대만 전문가들

통도사 다보탑 벽화 복원 나섰다



복원에 앞서 3개국 전문가들이 영산전 벽화를 분석하는 장면.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지은) 영산전의 다보탑 벽화 보존과 모사작업에 한국, 일본, 대만 3국의 문화재 전문가들이 힘을 합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의 통도사성보박물관과 일본 나라시 강고지문화재연구소, 대만 퉁하이대학의 전문가 25명이 공동 연구에 참여한다. 우리나라 벽화 보존을 위해 3개국이 공동 작업을 하는 것이 처음 있는 일인데다, 일본과 한국의 민간 기업이 공동 연구를 지원하고 나서 더욱 관심을 모은다. 일본의 도요타재단과 한국의 부산상호저축은행(대표 김양), 부산2상호저축은행(김민영)이 후원을 맡았다. 특히 부산2상호저축은행의 김민영 대표는 불교 고문서 수집과 스님들의 계보 정리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불심이 깊은 불자이기도 하다.

이번 공동 연구는 일본 나라시 강고지문화재연구소 야마으치 실장이 통도사를 방문했다가 영산전의 다보탑 벽화에 매료되면서 시작됐다. 채식자료수복실 실장인 야마으치씨는 박락이 진행되고 있는 다보탑의 아름다움을 원형 그대로 되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공동 연구를 제안하고 도요타 재단에 지원 기금을 신청했다. 이를 통도사가 받아들였고 통도사성보박물관장 범하 스님은 한국의 민간 기업의 지원을 이끌어냈다.

한·일 민간기업이 후원, 내년말 완성
공동세미나 개최 … 첨단 장비도 동원

공동 연구 기간은 2005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로 3년. 준비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공동 연구가 착착 진행 중이다. 한국, 일본, 대만의 전문가들이 매월 한차례씩 영산전 주변의 일기, 습도, 온도 등을 관찰해 그 조건에 맞는 보존 방법을 강구하게 된다. 벽화가 그려진 벽의 구조물과 벽화의 상태 분석을 위해 X선 촬영과 적외선 촬영 등 첨단 장비가 동원됐다.

다보탑 벽화가 더 이상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벽화 제작 당시 사용되었던 아교를 복원해 벽화가 떨어져 나오는 것을 막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더 이상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보존 방법을 찾는 일과 함께 이번 작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다보탑 벽화의 복원을 위한 모사 작업이다. 한국과 일본의 전문가들이 올 11월부터 시작하는 모사 작업은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된다. 한국은 채색 상태나 박락 상태 등을 그대로 모사하는 현상 모사를 일본은 처음 그려진 그대로를 짐작하며 복원해 내는 복원 모사를 맡는다. 이 두 가지 모사본이 완성되면 전시를 한 후 통도사에 영구히 보존하게 된다.

또한 이번 공동 연구 성과를 토대로 12월 3일 일본에서 한일 공동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며 2007년 11월에는 한국에서 세미나를 열어 그 동안의 결과물을 발표하게 된다.

법화경의 '견보탑품'에 나오는 다보탑을 형상화한 것은 불국사의 석가탑과 다보탑이 건축으로 남아 있을 뿐, 회화작품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한 것으로 이번 공동 연구로 다보탑 벽화에 대한 재조명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석가여래와 다보여래가 분반좌하는 내용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이 벽화는 1716년(숙종 42년) 작품으로 파악됐다. 탑 둘레는 온통 영락과 보배로 된 풍경이 장엄돼 있고 하늘에는 오색구름이 휘날려 아름다움을 더하는 작품이다. 통도사 영산전은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203호 지정돼 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기장 금산사 가을산사음악회



부산 기장군 자비동산 금산사(주지 무유)는 10월 15일 금산사 경내 야외무대에서 소년. 소녀 가장 돕기 가을산사 음악회를 개최했다(사진).

남성중창단 청공의 '칸쵸네 칸쵸네' 중창으로 시작된 이날 음악회는 혜원정사 합창단, 홍법사 청림 어린이 중창단, 한마음 선원 합창단의 공연으로 이어졌으며 어울림 국악연구회의 '평조회상' 중 '상영상' 공연으로 회향 됐다.

금산사 산사 음악회의 수익금은 사회복지 법인 혜원을 통해 소년, 소녀 가장을 돕는 데 쓰여질 예정이다. 이은아 기자

생명나눔 부산본부 개소식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가 10월 17일 양정 불교회관 5층에 사무실을 개소하고 현판식을 봉행했다(사진).

부산지역 본부장 원범 스님은 "많은 분들의 관심과 도움으로 사무실을 열었다"며 "사랑과 관심에 힘 입어 생명을 살리고 사랑을 나누는 일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는 지난 7월 21일 창립법회를 봉행하고 9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열린 범어사 개산문예대제전에 참가 장기서명 운동을 펼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이날 현판식에는 범어사 주지 대성 스님, 감로사 주지 혜총 스님, 김귀련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 회장 등 사부대중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이은아 기자

울산 월봉사, 선서화전

울산 월봉사(주지 오심)는 10월 14일 '소외된 노인복지를 위한 아름다운 동행' 주제로 제2회 월봉사 문화 예술 축제를 열었다.

선서화전 및 바자회, 일일찻집으로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축제는 입재불공, 티벳 칠링린포체 초정 문화의식, 통도사 주지 산옹 스님의 법문으로 이어졌다. 오후에는 사찰음식시연회, 월봉사 다도회의 전통다례 시범 등으로 월봉사를 찾은 5천 여 사부대중의 눈길을 끌었다. 천미희 기자

지역불교현장을 찾아서

음식 나누며 불교와 친구 돼요

부산 홍법사 외국인 문화행사



자기나라 음식을 만들고 있는 외국인들.

"빨리!! 빨리!!"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초조해진 나탈리의 목소리가 칼질 소리, 기름 끓는 소리와 함께 템포 빠른 음악처럼 리드미컬하게 들린다.

캐나다에서 온 나탈리, 인도의 나라지 샤르마, 일본의 와타나베 히로코씨 등 10월 15일 부산 홍법사 야외 조리실에 모인 20명의 외국인들이 저마다 각국을 대표하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 분주하다.

매월 셋째 주 일요일 외국인들에게 한국 전통문화를 소개하고 있는 (사)한나래문화재단(이사장 심산)이 외국인 문화행사 개최 100회를 맞아 국가별 채식 요리 선보이기를 연 것이다.

치이~지글지글~ 지지고, 볶고, 끓이고.. 국적도 다양하고 조리법은 각양각색 이지만 모자란 재료는 나누고 미처 배우지 못한 조리기구 작동법을 알려주는 모습은 각국의 음식이 뿜어내는 연기가 한데 섞여 풍기는 냄새처럼 묘한 일체감을 느끼게 했다.

100회 맞아 각국 사찰 채식요리 선보여
10년간 3000여명 참가, '홍보대사' 역할

행사에 참가한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이거나 각국의 언어를 가르치기 위해 한국에 머물고 있는 외국어 교사들이다. 부산 동서대학교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전공하고 있는 인도의 나라지 샤르마는 군만두처럼 생긴 사모사를 가리키며 "이거 인도 만두,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너무 재밌어요. 빨리 만들어서 사람들이랑 같이 먹고 싶어요"라며 짧은 한국어를 구사하고는 멋쩍은 웃음을 내 보였다.

정오를 조금 넘긴 시간. 홍법사 잔디밭에 설치 된 식탁 위로 각국의 음식이 속속 올라오기 시작했다.

인도의 사모사와 전통차 짜이 일본의 사찰음식 켄친지루, 폴란드식 만두 프로기, 대만의 버섯 샤부샤부, 한국의 사찰음식 등 7개국 참가자들의 20여 가지 음식이 식탁을 가득 채우고 요리를 하던 참가자와 기다리던 관람객까지 모두가 식탁으로 모여 들었다.

친구들과 함께 왔다는 영국의 피터 루이스는 "미리 알았다면 꼭 참가해 요리를 만들고 싶었다"며 "한국에 와서 늘 한국음식만 먹었는데 오늘은 여러 나라의 음식을 맛 볼 수 있어 아주 좋은 날"이라고 엄지 손가락을 치켜세웠다. 공손히 무릎을 꿇고 연차와 떡을 맛 본 호주의 아네트 드류는 "맛 있어요. 굿~ 좋아요."라며 연신 감탄사를 쏟아냈다.

1996 년 몽골 간단사 방문을 계기로 국제포교에 관심을 가지게 된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은 몽골선수단과 결연을 맺으며 한국의 역사와 불교문화를 몽골에 소개하기 시작했다.

외국인문화행사는 10년간 100회의 행사를 진행하는 동안 3000명의 참가자들이 다녀갔다. 국제부 김건웅 회장은 "앞으로도 윷놀이, 송편 빚기 등 계절에 맞는 행사를 꾸준히 진행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외국인들에게 한국과 불교를 알리는 통로가 되겠다"며 새로운 10년을 다짐했다.

이은아 기자

"청정한 마음으로 평화 정착시켜야"

부산종교인 평화회의, 영호남 종교지도자대회 열어

부산종교인 평화회의(상임대표 정각)는 10월 16~17일 부산 코모도호텔과 부산일원에서 제 7회 2006 영호남 종교지도자 대회를 개최하고 16일 첫 행사로 한반도 평화 구현과 종교인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 정홍섭 신라대 총장의 사회로 법산 스님(前 신라대 총장)이 주제 발표를 진행하고 김동환(천도교), 법현 스님(불교) 송영웅 목사(기독교)가 토론자로 나섰다.

법산 스님은 주제 발표에서 "북한의 핵실험으로 한반도가 떠들썩하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지만 종교인들은 이에 너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시대적 상황을 대중요법으로 치유하려하기보다는 종교본래적 사명에 전념하면서 청정한 마음으로 화합을 이루어가는 것으로 평화를 정착시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미희 기자

사명대사 추모대법회 봉행

부산불교연합회는 사명대사 열반 제396주기를 맞아 10월17일 초읍 어린이대공원 사명대사 동상 앞에서 추모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대성 스님은 봉행사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비롯해 세계가 서로를 반목하는 지금 사명 큰스님의 호국정신과 대자비심이 어느 때 보다 간절하다"고 말했다.

부산불교연합회 부회장 혜총 스님의 행장소개로 시작된 이날 법회는 헌화, 기원문, 봉행사, 추모사 낭독, 사명대사 추모가 합창 순으로 봉행됐다.

이은아 기자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경남남부지국 : (011)571-5316
울산지사 : (052)272-0909

www.songgwangsa.org

송 광 사 금 강 산 림 대 법 회

[입재 : 2006년 11월 8일 (음 9월 18일) 11시 보성 큰스님
회향 : 2006년 12월 27일 (음 11월 8일) 11시 지관 큰스님]

승보종찰 조계총림 송광사에서는 제방에서 수행정진하시는 큰스님들을 모시고 '금강산림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에 봉행되는 '금강산림대법회' 49일동안 매일 영가천도기도를 봉행하며, 일주일에 한번씩 고승대덕 큰스님들의 초청법문이 펼쳐집니다.
대법회에 동참한 인연공덕으로 우리 재가불자들은 큰스님들의 가르침을 통하여 깨달음의 향훈이 함께하는 시간이 될 것이며, 유주무주 선망부모의 영가들에게는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무금강반야바라밀


11월 8일(음9월 18일) 보성큰스님 송광사 방장


11월 15일(음9월 25일) 정여스님 여여선원 선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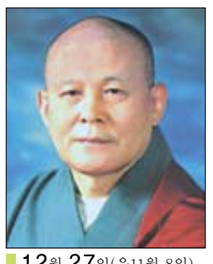

11월 22일(음10월 2일) 법흥스님 송광사 회주


11월 29일(음10월 9일) 혜자스님 도선사 주지


12월 6일(음10월 16일) 월파스님 문수암 주지


12월 13일(음10월 23일) 통광스님 칠불사 주지


12월 19일(음10월 29일) 지현스님 부산 관음사 주지


12월 27일(음11월 8일) 지관큰스님 총무원장

동참금 : 영가 1위당 1만원, 가족축원 5만원입니다

차량운행
• 광주 출발 : 학동 나협회 앞 9:00 출발
• 순천 출발 : 대승사 앞 9:00 출발
• 부산 출발 : 교대역 한양프라자 앞 5:30 출발
• 울산 출발 : 태화로터리 5:30 출발
• 양산 출발 : 천일고속정류장 6:00 출발
• 경남지역 차량 운행 연락처 : 범일 010-6626-5030 / 수보리 010-9595-8262

승보총림 조계총림 송 광 사 061)755-0108 종무소 061)755-5301 원주실

‘사간판 인경본’ 집에 모시세요

해인사, 인경불사한 ‘묘법연화경’ 등 경전 11종 24권 보급

법보종찰 해인사가 소장하고 있는 사간판 장경판의 인경본을 가정에도 모실 수 있게 됐다.

해인사(주지 현응)는 고려각판을 보존하기위해 해인사 사간판 인경불사를 지난해 9월부터 시작했으며, 지금까지 인경을 마친 인경본을 사찰은 물론 기관외 개인에게도 보급한다고 최근 밝혔다.

해인사가 지난해 9월부터 인경불사를 시작해 책으로 만든 인경본은 <묘법연화경> <인천보감> <경덕전등록> <능가경회역> <심부주> <대승능가경> <고봉화상 선요> <시왕생칠경> <대문(大文)금강경> <80화엄경 변상도(주본)> <60화엄경 변상도(진본)>등 11종류 경전 24권이다.

이중 <인천보감>(국보 206-9) <시왕생칠경>(국보 206-10, 보물 734-3), <대문 금강경>(국보 206-20), <80화엄경 변상도>(국보 206-14)는 모두 국보로 지정된 고려각판을 인경한 것으로 그 소장가치가 매우 크다. 다른 인경본도 모두 조선시대에 제작된 각판들을 인경한 것으로 인경본이 갖는 학술적 서지학적 가치가 높다. 특히 <심부주>는 <능가경> 관련 주석서인데 경제목에 대한 설명자체도 알려지지 않은 희귀본이며, <대문 금강경>은 글자체가 크고 특이해 그 가치가 남다르다. 또, <경덕전등록>은 절집의 족보와 같은 것으로 학술적 서지학적 가치가 높으며, <시왕생칠경>은 다른 종류의 책으로 각각 한 권씩 모두 두 권이 있는데 요즘은 사라진 왕생극락사상을 대표하는 고려시대의 경전으로 희귀본이다.

해인사가 소장하고 있는 경판은 국간판과 사간판으로 나뉜다. 국간판은 국가가 대장도감을 설치해 왕의 이름으로 제작한 경판으로 1236년부터 1251년까지 16년에 걸쳐 만든 고려팔만대장경판(81258장, 국보 제32호)을 말하며 사간판은 지방관청이나 사찰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만든 목판을 말한다. 사간판은 지금까지 국간판의 명성에 가려져 그 가치가 부각되지 못했다. 그러나 고려팔만대장경이 제작되기 전인 900년대에 제작된 것부터 1960년대에 제작된 것까지 모두 158종 5986판이 현존하고 있다. 28종이 국보206호로, 26종이 보물 734호로 지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대부분 간행기록이 남아있어 고려시대 불교신앙의 경향과 서지학적 변화를 알 수 있는 귀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인천보감’ 등 국보포함 소장 가치 높아
고려시대 불교신앙 한눈에 알 수 있어
“복원자료 확보 차원, 마지막 인경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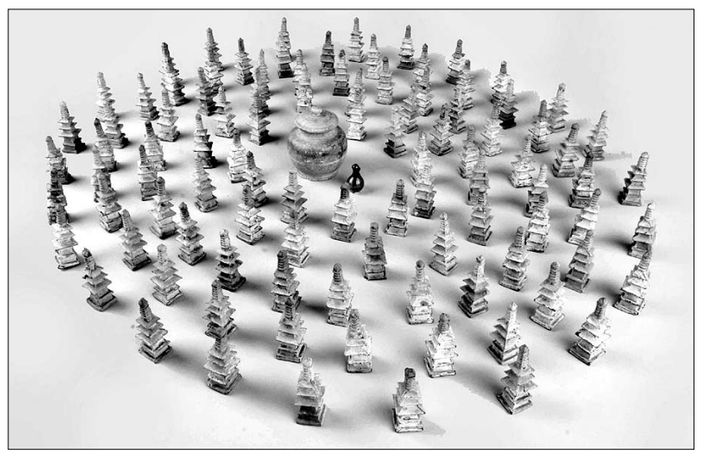
해인사가 소장하고 있는 사간판은 지금까지 전체가 완질로 인경돼 보관된 곳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현대 인쇄기술이 들어온 이후 인경된 예도 없다. 따라서 해인사는 사간판의 복원자료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지난해 9월 인경불사를 시작했다.

당시 해인사는 1년여의 기간동안 해인사가 소장하고 있는 사간판을 모두 인경 해 인경본 10질을 만들어 완질을 판매할 계획이었다. 현재 인경률은 20%정도에 머물러 있다. 오랜 세월 속에 경판의 마모가 심화되어 인경 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종이낭비도 그만큼 많았던 것이다.

게다가 자료 확보 차원에서 글자 하나하나를 교정하고 검토해 나가는 작업은 무엇보다 더디고 힘겹다는 것이 해인사의 설명. 따라서 인경 불사를 지속하기 위한 예산마련 차원에서 인경본을 보급하게 됐다는 것이다.

해인사 팔만대장경 보존연구원 남일 스님은 “지금까지 모든 사간판의 인경을 시도한 적은 없었으며, 복원자료 확보를 위한 이번 인경을 끝으로 더 이상 인경본은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만들어지는 해인사 소장 사간판 인경본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암시했다. (055)934-3095

배지선 기자 jjsun@buddhapia.com



종교적 열정 공예기술에 감탄

봉화 서동리 사리장엄구 특별전, 11월말까지

불교예술과 신앙의 결정체로 ‘탑 속의 보물’이라 불리는 사리 장엄구가 대구에서 특별 전시된다. 10월 19일~11월 말 국립대구박물관 작은갤러리에서 열리는 ‘소탑공양과 사리장엄-봉화 서동리 사리구’ 특별전이 그것이다.

국립대구박물관(관장 김정완)은 해솔관 개관 기념으로 개최한 특별전에서 사리장엄 유물을 전시한다.

경북 봉화군 춘양면 서동리 춘양중학교 교정에 남아있는 9세기대의 2기의 동, 서 삼층 석탑 중 동쪽 석탑 첫 번째 탑신석 내부의 사리공에서 1963년 발견된 99기의 소탑(사진)과 곱돌로 만든 사리호 사리 3립(粒)이 들어있는 녹색 유리사리병을 비롯한 140여점의 사리장엄구가 전시된다.

전시는 사리신앙의 기원과 전래, 법사리로서의 무구정광대다라니경, 법사리 신앙과 소탑공양, 봉화 서동리 사리구, 사리장엄 공양품의 주제로 나눠 소개한다. 이중 봉화 서동리 사리구는 9세기에 봉안됐지만 보존상태가 뛰어나다.

무구정광대다라니경(無垢淨光大陀羅尼經)사상에 따라 탑 내에 봉안한 99기의 소탑은 현재 서동리와 해인사 길상탑, 양양 선림원지 사리구만이 온전히 남아있다. (053)768-6051

배지선 기자

풍성한 가을 산사마다 축제 물결

은해사 개산대재, 불국사 영산재, 부석사 화엄축제 등

가을을 맞아 지역사찰 곳곳에서 산사음악회를 비롯한 축제가 풍성히 열리고 있다. 팔공산 은해사(주지 법타)가 1197돌 개산대재를 10월 29일 봉행하고, 대구 영남불교대학 관음사(회주 우학)가 같은 날 오후2시~밤 10시 백혈병 어린이돕기 가을음악회를 두류공원 야외음악당에서 개최한다.

서기 809년 신라 헌덕왕 원년에 혜철 국사가 창건한 은해사의 개산대재는 28일 오후3시부도전에서 봉행되는 혜철국사와 역대조사 다례재로 시작해 29일에는 지장전 지장보살 봉안식과 개산대재법요식, 경북도립국악단이 펼치는 산사음악회, 만등불사점등식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054)335-3318

영남불교대학 관음사 가을 음악회는 현철, 송대관, 배슬기 등 인기연예인이 출연해 TBC 공개방송으로 진행되며, 회주 우학스님의 작품전, 수지침, 다도, 페이스페인팅, 가훈 써주기, 컵등만들기,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들이 펼쳐질 예정이다.(053) 474-8228

경주 불국사(주지 성타)는 10월 14일 영산대재를 봉행하고 지역민들을 위한 한마당잔치를 열었으며 영주 부석사(주지 근일)는 14일부터 16일까지 ‘원융무애’를 주제로 제4회 부석사화엄축제를 개최해 조사헌다례와 의상사상학술대회를 비롯한 다채로운 문화행사들을 진행했다.

청도 적천사(주지 덕현)도 개산 1342주년을 기념하며, 10월 22일 은행나무 별빛축제를 개최했다. 수령 800년 된 은행나무(천년기념물 402호) 아래서 열린 음악회는 김태곤의 웰빙뮤직콘서트를 중심으로 펼쳐졌다.

배지선 기자

화합과 상생의 등반대회

동화사 · 천주교 대구대교구청

“대자연과 더불어 맑은 공기를 마시며 불교계와 가톨릭이 우애를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서 기쁘고 반갑습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청 최영수 대주교가 팔공산 중턱에서 땀을 식히며 동화사 주지 허운 스님과 함께 팔공산을 오른 소감을 털어 놓았다.

허운 스님도 “산행을 같이 한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등지거나 반목하지 않는다”며 웃었다.

10월 18일 대구 팔공산에서는 동화사 개산대재의 일환으로 스님과 신부님들이 함께 산행을 하는 화해와 상생의 등반대회가 열렸다. 주지 허운 스님을 비롯해 50여 사부대중과, 대구대교구청 최영수 대주교를 비롯한 신부 10여 명이 동참했다.

오전 10시 동화사 봉황문에서 만난 두 종교 지도자들은 유리광전(통일대불전)에서 차담을 나눈 뒤 염불암까지 2시간에 걸친 산행을 하고, 국수 공양을 하면서 친목을 다졌다.

배지선 기자



사불산 채석장 개발 ‘없던 일’

문경시, 불허가 처분

문경 사불산 채석장 개발사업에 대한 문경시의 불허가 처분이 10월 16일 내려졌다.

문경시(시장 신현국)는 “채석지역이 도로에서 500미터 이내로 관련 규정에 어긋나고 사찰과 주민 등 7천여 명이 반대서명을 하는 등 반대여론이 높아 행정심판 결과와 관계없이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본지 599호 A5면 참조)

이로써 문경산업은 지난 4월 문경시로부터 불허가 처분을 받은 후 경상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승소했으나 시로부터 사업허가를 다시 받지 못했으며, 그동안 채석장 허가 반대를 요구하며 지난 12일부터 문경시청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여온 철산 스님과 인근 주민 등 2명은 단식농성을 중단했다.

배지선 기자

고송 스님 부도탑 제막식 봉행

팔공산 파계사(주지 성우)는 前 조계종 명예원로의원 고송 스님의 열반 3주기를 맞아 10월 17일 부도탑 제막식을 봉행했다. 개막식에는 파계사 회주 도원, 동화사 조실 진제, 동화사 주지 허운, 직지사 주지 성웅, 파계사 주지 성우, 파계사 율원장 철우, 해인사 율주 종진 스님을 비롯한 고승 문도회 스님과 재가불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배지선 기자

홍천군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

조계종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지현)이 지난 10월 11일 강원도 홍천에 신규 설립된 홍천군장애인종합복지관을 위탁했다.

홍천군 홍천읍 태학리에 위치한 홍천군장애인복지관은 총 900여평의 부지에 연건평 500평의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의 건물로, 운영지원 사찰은 홍천 수타사로 결정됐으며 내년 1월 1일에 개관한다.

이은비 기자

2007학년도 후기
중앙승가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

일반대학원

1. 모집과정 및 인원

과 정	학 과	전 공	모집인원
석사학위과정	불교학과	-불교학 -역경학 -실천불교학(포교사회) -불교문화재학	30명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과정	불교학과	-불교학 -역경학 -실천불교학	10명

2. 지원자격
1)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취득 예정자 또는 취득자 / 박사과정은 석사학위취득예정자 또는 취득자
2)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3)대한불교 조계종 소속 승려, 또는 대한불교 종단협의회에서 인정한 타 종단 승려
※ 타 전공자도 응시할 수 있음. 단, 입학 후 소정의 학부과정 개설과목(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3. 전형일정
1)원서 교부 : 2006. 10.23(월) ~ 11.10(금) 17:00까지 (대학원 교학부)
2)원서 접수 : 2006. 10.30(월) ~ 11.10(금) 17:00까지 (대학원 교학부)
3)전 형 일 : 2006. 11. 16(목) 13 : 00(박사과정) / 14:00(석사과정)
4)합격자 발표 : 2006. 11.20(월)
5)등록 기간 : 2006. 11.22(수) ~ 11.30(목)

4.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1)장소 : 면접 고사실 - 대학본부 2층 세미나실
2)기 간 : 2006. 11. 16.(목) 13:00 (박사과정) / 14:00 (석사과정)

5. 제출서류
1)입학지원서 (본교 소정양식) 1부
2)학업 및 연구계획서 (본교 소정양식) 1부
3)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 증명서 1부
4)대학/대학원 전학년 성적증명서 (백분율 성적 기재분) 1부
5)수계확인서 (3개월 이내) [최종수계일 기입 요] 1부
6)해당 총무원장의 추천서(타 종단 스님)
7)주민등록등본 1부
8) 칼라사진 5매 제출(가사 수한 사진 3×4㎝)
※ 대학/대학원 졸업예정 증명서를 제출한 스님은 합격 후, 2007. 2. 28까지 학위수여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6. 입학원서대 및 전형료
1)원서대 : 무료
2)전형료 : 박사과정 50,000원 / 석사과정40,000원

7. 사정원칙
1)입학원서 및 구비서류 기재사항에 허위 및 하자가 있는 자는 불합격 처리함
2)정당한 사유 없이 전형 미 응시자는 불합격 처리함
※ 상기 사정원칙에 기재하지 않은 기타 사항은 입학 사정회에서 결정함

8. 지원자 유의사항
1)제출된 서류 및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원서의 기재사항은 변경할 수 없음.
2)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및 홈페이지 게재. (www.sangha.ac.kr)

9.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 : 415-070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159-1 중앙승가대학교 대학원 교학부
• 전화 : 031)980-7864(내선:7864) / FAX : 031)980-7863
• 특전 : 1) 조계종 소속 승려(구족계수지자)는 장학금 혜택이 있음.
2) 각종 교내 · 외 장학금 지급
3) 전공별 대학원 연구실 제공

중앙승가대학교 대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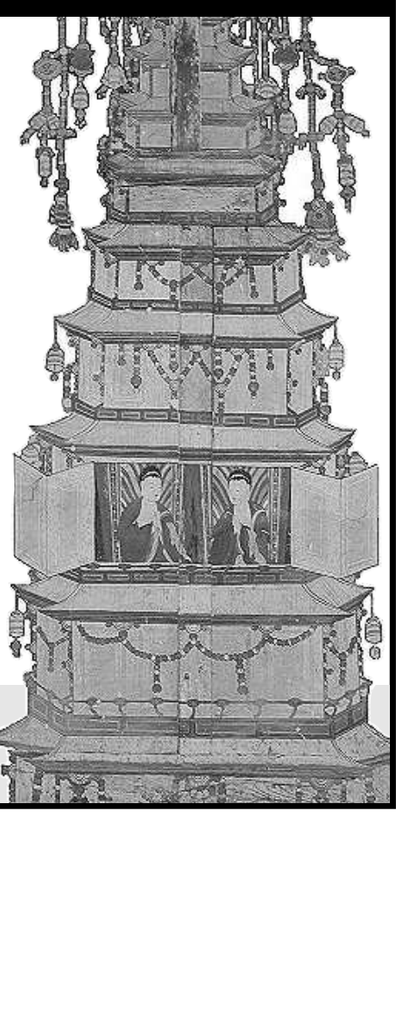
통도사 영산전 벽화
한 · 일 · 대만 공동 학술 연구

한국 · 일본 · 대만이 공동으로 통도사 영산전 벽화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학술연구를 통해 전통문화 계승에 이바지하고 상호간의 문화교류를 확대 · 증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연구기간 2005년1월 ~ 2007년12월 (약3년간)

연구기관
한 국 : 통도사성보박물관
일 본 : 元興寺文化財研究所
대 만 : 東海大學

공동지원
한 국 : 부산상호저축은행, 부산2상호저축은행
일 본 : トヨタ財団 The Toyota Foundation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583 (055) 382-1001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지은 · 성보박물관장 범하

돋보기로 보는 부처님 세상

나주 다보사, 지역노인 560명에 안경 보시 · 경로잔치

나주를 대표하는 천년고찰 다보사(주지 청암)가 지역 노인들에게 광명을 선물했다. 나주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어르신 560여 명에게 돋보기 안경을 맞춰주었기 때문이다.

이번 행사는 10월 16일 나주 남산 시민회관에서 경로잔치와 함께 열렸다.

행사에 앞서 주지 청암 스님은 인사에서 "평생 나보다 남을 위해 살아온 어른신들의 마음이 곧 부처님 마음이다"며 "좀더 밝은 세상을 보면서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기 바란다"고 기원했다.

이날 다보사가 준비한 돋보기는 560여 개. 청암 스님이 몇 년간 한푼 두푼 모아 마련한 것이다. 행사장에는 예상을 뛰어넘어 700여명의 노인이 참석했다. 청암 스님은 돋보기를 받지 못한 노인들에게 "지역 동사무소를 통해 추후에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동안 쓰던 돋보기의 돗수가 맞지 않아 불편했다"던 정정숙 할머니(69 · 나주 송월동)는 "스님이 주신 새 안경을 받고 보니 심봉사가 눈을 뜨듯 기쁘다"고 말했다.

이날 안경을 보시한 청암 스님은 몸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다. 스님은 몸이 불편한 가운데도 포교에 있어서는 한 치도 물러섬이 없다.

지난 3월 다보사 주지로 부임한 이래 불교교양대학을 개설하고, 평양민속예술단 초청공연, 부처님 전 꽃공양 올리기 등 다양한 불교문화를 시연했다.

이러한 스님의 정성에 감복해 안경 전문가 조광혁(안경랜드 21 대표) 씨도 '돋보기 맞춰주기 행사'에 자원봉사를 자처했다. 다보사 신도들도 각종 음식을 마련해 참가 노인들을 접대했다.

한편 다보사는 10월 30일(음력 9월 9일) 대웅전에서 부처님 전에 꽃을 공양하는 불교전통의식을 봉행한다.

글 · 사진=이준엽 기자



나주 다보사는 지역 어르신들에게 안경 560개를 맞춰 선물하는 등 지역민을 위한 포교에 진력하고 있다. 사진은 10월 16일 열린 경로잔치.

자비정신으로 성장한 호남 명문사학

건학 60주년 맞은 정광 중 · 고등학교

광복 이듬해인 1946년 백양사, 송광사, 화엄사, 대흥사, 선암사 등 호남지역 5대 본사가 주축이 되어 설립한 정광학원(이사장 천운 스님)이 건학 60주년을 맞았다.

지난 10월 14일 정광고등학교 룸비니관에서 열린 '개교 60주년 기념식'에서 이사장 천운 스님은 기념사를 통해 "정광학원의 출발은 만암 대종사의 원력으로 지역 사암과 불자가 뜻을 모아 출발했다"며 "건학이념인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좇아 더욱 정진하자"고 강조했다.

정광중학교 강춘식 교장과 고등학교 정인영 교장도 인사말을 통해 "60년 전통을 살리고, 급변하는 사회에 적극 대처해 명문중의 명문사학으로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정광학원은 조계종 종정 만암 스님이 교육불사를 제안하고 호남지역 5대 본사가 적극 참여해 설립됐다. 당시 호남의 각 사암과 불자들의 참여로 16만 8876평의 대지를 확보하고, 1946년 3월 10일 목포 정광사에서 3년제 중학교로 첫 출발했다.

그후 정광학원은 1948년 광주로 학사를 이전하고 1951년 10월 10일 정광고등학교를 개교했다. 정광학원은 1987년 현 학사가 자리한 광주 송정동으로 이전하면서 급성장해 호남의 명문 사학으로 거듭나고 있다. 그동안 정광중학교는 59회에 걸쳐 1만 2869명의 졸업생을 냈고, 고등학교는 54회에 걸쳐 1만 941명을 배출했다.

또한 정광고는 금년초 박나영 양이 광주에서 최초로 골든벨을 울려 화제가 됐다.


10월 14일 정광고 룸비니관에서 열린 개교 60주년 기념식 모습.

interview 정광학원 이사장 천운 스님

"본사 주지 뜻 모아 제2건학"



"해방 당시 혼란기에 조계종 초대 종정을 지낸 만암 스님을 비롯한 지역 스님들은 부처님과 같은 일류 마음씨를 가져야 국민이 살고 나라가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뜻이 모여져 정광학원이 설립됐고, 그동안 수많은 청소년들의 마음을 바로 세우는데 힘써왔습니다"

10월 14일 개교 60주년을 맞아 기념축제를 주관한 정광학원 9대 이사장 천운 스님(대흥사 조실 · 사진)은 "같은 지역에 자리한 교구 본사가 모두 참여해 불교 종립학교를 설립한 것은 정광학원이 유일하다"고 소개했다.

천운 스님은 "초창기 5대 본사가 힘을 모았던 뜻을 살려 각 본사 주지스님을 학교 이사로 참여토록 하고 있다"며 "60주년을 맞아 제2 건학으로 지역뿐 아니라 세계로 나가는 교육도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또한 "물질만능으로 발생하는 수많은 사회문제에는 부처님의 중도사상이 대안이다"며 "불교 종립학교로서 부족함 없는 교육으로, 정광인들이 사회와 나라를 이끄는 동량이 되도록 교직원과 함께 힘껏 정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준엽 기자

송광사 금강산림대법회 연다

11월 8일 입제…보성 · 지관 스님 등 설법

조계총림 송광사(주지 영조)는 11월 8일부터 12월 27일까지 8회에 걸쳐 '금강산림대법회'를 개최한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열리는 이번 법회는 매주 수요일 사자루에서 송광사 방장 보성 스님을 비롯해 부산 여여선원장 정여, 송광사 회주 법흥, 서울 도선사 주지 혜자, 문수암 주지 월파, 쌍계사 강주 통광, 관음사 주지 지현,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차례로 <금강경>을 설한다.


보성 스님


지관 스님

또한 송광사는 금강산림법회가 열리는 49일 동안 매일 영가천도 기도를 봉행한다. (061)755-0108

이준엽 기자

광주불교방송
BBS FM 89.7 MHz
www.kjbbs.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호남지사 : (062)375-9986
대전충북지사 : (043)732-5560
충남동부지국 : (010)3069-3170



전북지역 5개 불교대학 체육대회 열고 화합 다져

전북지역 5개 불교대학 학인들이 운동을 통해 단합과 지역포교를 다짐했다.

전북, 화엄, 무주, 남원, 익산 불교대학 등 5개 대학은 14일 전주공고 체육관에서 제6회 연합체육대회를 개최했다(사진).

각 대학 동문과 재학생 1000여명이 참석한 이날 체육대회에서 금산사 주지 원행 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불교대학 학인은 곧 지성불교를 대표하는 불자이다"며 "운동을 통해 서로 화목하고 지역불교를 이끌어 가는 주역이 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체육대회에서 탁구, 배구, 줄다리기에서 우승한 무주불교대학이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이준엽 기자



심향사, 장조 스님 부도 제막

봉하당 장조 스님 부도 제막식이 10월 18일 나주 심향사 부도전에서 봉행됐다(사진).

제막식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천운, 백양사 주지 두백, 마하보리사 회주 성오 스님 등 문도 스님과 신도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장조 스님은 16세에 백양사 운문암에서 호명 스님을 은사로 출가, 문도들의 추대로 28년간 백양사 주지를 역임하며 백양사를 중흥시켰다.

이준엽 기자

대전에 불교 상설전시관 오픈

대전에 부처님 성상과 불교 관련 조각품을 상설 전시하는 공간이 생겼다.

대전 여진미술관(관장 이진형)은 개관 1주년을 맞아 불교기념관을 건립, 10월 14일 초전법륜상 점안법회를 열었다. 하동 쌍계사 조실 고산 스님을 증명으로 열린 이날 법회에는 사부대중 200여명이 동참했다.

불모 이진형 관장은 여진미술관과 불교기념관을 대전지역을 대표하는 불교문화 산실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042)934-8466

혜철 대전 충북 지사장

성곡사, 십일면관음보살 점안식

공주 성곡사(주지 관묵)는 10월 13일 십일면관세음보살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법회는 법주사 회주 혜정 스님과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등 사부대중 10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고불산 자락에 위치한 성곡사는 30년전 천막을 치고 개원한 이래 30년간 불사를 진행해 천불 참회기도도량으로 거듭났다. 주지 관묵 스님은 2008년 불사회향을 발원하고 30년째 기도를 계속하고 있다.

혜철 대전 충북 지사장

팔공산 은해사 제1197돌 개산대재

미타도량 은해사는 서기 809년 신라 헌덕왕 원년에 혜철국사(惠哲國師)께서 창건하셨으며, 한국불교의 새벽을 여신 원효(元曉)스님, 우리 문자의 기틀을 마련하신 설총선생, 민족의 자족. 자존. 자주역사를 최초로 선양한 삼국유사를 지으신 일연선사(一然禪師) 등 삼성현의 정신이 깃든 역사적 도량입니다.

아미타부처님이 상주하는 은해사가 온 국민의 정신적 귀의처요, 정혜결사 도량으로서 개산한 지 어언 1197년의 성산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산의 역사와 전통을 오늘에 되새겨 불국정토구현에 배전의 노력을 다짐하면서 개산대재 만등불사 그리고 지장보살 봉안식을 봉행하오니 많은 동참 있으시기 바랍니다.

불기 2550년 10월

은해사 수림장 안내

수림장은 사람과 나무가 상생하여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으로 회귀하는 인연을 근거로, 화장을 하고 유골분을 지정된 나무아래에 봉안하는 가장 환경 친화적 장례문화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본사가 시행함으로써 선진 장례문화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 민족과 친근하고 장수를 의미하는 소나무와 참나무를 효행목으로 지정하여 가족들이 애정으로 보살피고 가꾸어 고인의 넋을 위로하고 추모할 수 있는 편리함이 더한 자연 환경 친화적 선진 장례문화이다.

www. surimjang.co.kr 전화상담 : 054)335-0566

개산대재 만등불사 대법회 안내

■ **2006년10월 28일 토요일 오후 3시**
개산조 혜철국사와 역대조사 다례제 - 부도전

■ **2006년10월29일 (일요일)**

오전 10시	헌공 및 사시예불 지장보살 봉안식
정오	점심공양
오후 1시	개산대재 법요식
오후 2시	산사음악회 = 국악공연
오후 5시	저녁공양
오후 6시	저녁예불
오후 6시 30분	만등불사 점등식

■ **동참금** : 만등불사 - 1인 1등 1만원
지장보살 동참자 복장비 - 1만원

은해사 (054)335-3318~9, FAX (054)335-0293
평불협 (02)741-9345
은해사 교구 각 말사

* 은해사에서는 특별법회 및 정기법회일(매월 음력 3일, 18일) 동대구⇒ 반야월⇒ 하양지역으로 버스 운행합니다.
* 행사전날 철야기도하실분 미리 원주실로 연락 바랍니다

제10교구본사 팔공산 은해사 주지 중 화 법 타 합장

WFB 한국본부 회장에 추대된 진각종 회정 통리원장

“범불교 국제교류창구 역할 수행”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사진)가 10월 17일 서울 남산타워호텔에서 열린 ‘세계불교도우의회(W.F.B ; The World Fellowship of Buddhist)’ 한국본부 이사회에서 제 8대 회장 겸 총재 권한 대행에 만장일치 추대됐다. 지난 1966년 W.F.B 태국 방콕 세계대회에서 한국본부가 승인 받은 이후, 종단 행정수장이 회장으로 취임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때문에 40년이 넘는 역사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름만 있고 활동이 없던’ W.F.B 한국본부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956년 4차 네팔 카투만두 세계대회에 옵서버로 처음 참가한 한국본부는 현재 불교계 내외 지도층 인사 36명이 임원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회장에 취임한 회정 정사를 만나 향후 W.F.B 한국본부의 위상 제고 방안과 국제 불교 활동에 대한 전망을 들었다.

▲W.F.B 한국본부의 위상에 대한 지적이 많은 가운데 회장을 맡으셨는데….

–역사에 비해 그동안 활동이 미미했다. 연례행사로 세계대회에만 참석할 뿐, 한국본부의 면모를 세우지 못했다. 이웃 종교 원불교의 국제 활동을 보라. 놀랄 정도로 왕성하다. 그런데 우리 한국불교는 어떠한가? 우물 안에만 있다. 변해야 한다.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역할을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이제는 한국불교가 국내에서만 머물면 안 된다. 세계인류를 구제하는 종교로 탈바꿈해야 한다. 먼저 진각종이 그간 해온 국제불교 업무는 W.F.B를 경유하게 될 것이다. 향후에는 W.F.B를 범불교, 범종단 차원의 국제불교 창구로 그 위상을 높일 것이다. 이를 위해 WFB 한국본부란 이름



에 걸맞게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정비하겠다. 특히 추진력을 갖고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적 · 물적 토대를 마련하겠다.

▲구체적인 조직 정비 방안은?

–W.F.B 한국본부 신임 집행부에 진각종 국제불교연구소 인력을 투입하는 등 종단 차원의 다양한 연계방안을 모색하겠다. 먼저 연구소 상임연구원을 W.F.B 사무총장에 임명하는 한편, WFB 이사진에 소속된 종단 집행부 부 · 국장단의 왕성한 활동을 독려할 계획이다.

▲앞으로의 계획은?

–세계 불교지도자들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2007년 10월경 ‘W.F.B 국제학술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 지난해 W.F.B 한국본부가 대만 까오슝에서 열린 ‘W.F.B 국제대회’에서 포럼 유치를 추인받은 이 행사에서는 국내외 불교지도자 150여명을 초청되는 등 대단위 규모로 진행할 것이다.

김철우 기자

미륵종 예비승려 28명 배출



미륵종(총무원장 송정)은 10월 18일 제8기 행자교육을 마치고 예비승려 28명을 배출했다(사진). 미륵종은 지난 11일 경남 김해시 총본산 관음정사에 행자교육원을 개원, 남행자 20명 여행자 8명 등이 입산해 사미율의, 초발심자경문, 예식의궤 등의 교육을 7일간 이수했다.

이번에 입산한 예비승려들은 전국 각말사에서 공부 하던 행자들로 교육이수 후 승가고시에 전원합격해 사미(사미니)수계법회를 봉행했다.

미륵종 총무원장 송정스님은 “수준높은 스님들을 많이 배출하여 종단의 초석으로 삼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태에 맞추어 불법을 전파하고 종단의 개혁과 자정의 밑거름이 된다” 고했다.

영민 서부 경남 지사장

천태종 해운사 대웅보전 낙성



제주도 서귀포시에 위치한 천태종 해운사(주지 진달스님)가 연건평 322평에 전통양식 2층 규모의 대웅보전을 신축해 10월 17일 낙성식을 봉행했다(사진).

도용 종정 스님 등 2천여 명이 동참한 이날 행사에서 정산 총무원장은 “한반도 최남단 도시 서귀포에 대조사님의 정법이 뿌리내려 새롭게 융성하는 것을 보니 불법인연이 도래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날 낙성된 해운사는 지난 73년 상월대조사의 제주 대법회 후 2년 뒤인 75년에 서귀포 지회로 발족됐으며, 10년 후인 86년에 제주지부 문강사에서 해운사로 분리 독립됐다. 93년 토평동 부지를 매입하였으며, 2002년 기공 이후 4년 만인 이날 낙성을 가졌다.

김주일 기자

법화경 사경독송대법회 3만여명 운집 성황리 회향



대한불교조계종 평화통일불사리탑, 세계대각법화회, 법화정사 등이 공동으로 개최한 세계평화와 남북평화통일 발원 ‘법화경사경독송대법회’가 10월 15일 오전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법화경>을 사경(寫經)한 서예작품전, 법화경 독송식, 부처님 세안식(사진), 호국영령 추모제, 통일기원 음악회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

특히 전시되는 1천여장의 <법화경> 서예작품들은 국내 유명 서예가 1천명이 참여해 각각 1장씩 사경해 완성한 것. 또한 미얀마 불교계의 선지식인 예도 스님도 초청돼 부처님 세안식을 봉행했다

김주일 기자



국내 최초 ‘진지 법당’ 첫삽

평상시엔 신앙공간 전시 전투공간으로

강화 무애원 공사 착수

국내 최초로 진지법당이 건립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진지법당이란 평상시에는 군장병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정신 전력을 강화하는 곳이지만 전시에는 법당 옥상에 마련된 진지에서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군법당을 말한다.

강화 무애원(주지 설봉)은 10월 19일 진지법당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했다.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진 진지법당은 장병들이 법회를 볼 수 있는 법당과 함께 다목적 수련관 등의 시설을 겸비하게 된다. 특히 진지법당 옥상에 전시 해병대 불자들이 전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진지가 지어져 있는 군의 현실에 부합하는 법당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무애원 주지 설봉 스님은 1980년 서울 신길동 판자촌에 처음으로 무애원



전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진지법당 건립이 시작됐다. 사진은 10월 19일 열린 기공식 모습.

을 설립했고 1995년 해병대 강화법당 호국 기룡사를 창건하는 등 30년 이상 어린이, 군포교에 매진해왔다.

설봉 스님은 “법당 위에서 총을 들고 적과 싸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역사를 반추해 보면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 나라가 위태로울 때마다 승려들이 경전 대신 창칼을 들고 나라를 지켰다”며 “향후 장병 수련장 및 훈련장 등을 만들어 진지법당이 호국불교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송담 스님 후원으로 군법당 창건

호국 금강사 낙성

한국의 대표적인 선승인 인천 용화사 송담 스님이 군법당 건립을 위해 거액을 희사해 화제다. 육군 20사단 62여단은 10월 13일 석남사 회주 정무, 여주사암연합회장 신고달사 주지 혜성, 양평사암연합회장 사나사 주지 화암, 이천사암연합회장 용학사 주지 혜봉 스님과 3군 사령부 이종인 법사, 20사단 박춘근 법사를 비롯해 부대관계자 등 사부대중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호국 금강사 낙성식을 봉행했다.

송담 스님은 총 공사비 1억 5천만원 가운데 절반 이상을 보시해 군 포교와 청년 포교가 중요하다는 것을 실천행으로 보여주었다.



62여단 호국 금강사는 10월 13일 낙성식을 갖고 본격적인 군포교활동에 돌입했다. 사진은 주요 내빈들이 낙성식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는 모습.

62여단 불자 장병들은 그동안 법당이 없어 차량으로 30분 거리의 20사단 호국 득도사로 이동해 법회를 보아왔다.

수송 수단의 제한 및 동절기 강설 등으로 법회 참석이 쉽지 않아 그동안 종교활동에 제약이 많았다. 이번에 건립된 호국 금강사는 80평 규모의 조립식 건물로 62여단 본부와 2개 대대 장병들의 신앙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김두식 기자

누구나 동참할 수 있어요

■어떻게 진행되나

‘2006 군포교 합시다’ 캠페인은 ‘군법당-사찰-기업(학교 · 불교단체 포함)’을 하나로 연결,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군법당 후원체계를 갖춤으로써 군포교 활성화를 이끌어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군장병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등 미래불교의 씨앗을 심는 소중한 불사로 추진됩니다. 종단, 사찰, 기업, 단체, 학교, 개인 등 누구나 동참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동참하나

▷**결연** : 사찰-군법당-기업을 연결. ▷**군법회 위문** : 소외된 군법회를 위문.
▷**군법당 건립 후원** : 낡은 군법당 재건, 신축 지원. ▷**정기적 물품 전달** : 군법당, 군불자에 후원품 전달.
▷**법사 지원** : 법사 없이 진행되는 군법회를 지원. ▷**동참 및 문의** : 조계종 군종교구 (02)797-7266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02)2004-8291
▷**후원 계좌안내** : 006-25-0023-989 (국민은행,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477401-01-092896 (국민은행, 예금주 군종특별교구)

신설 군법당 부처님 무료로 모셔드립니다
불모 허길량씨 후원 석가모니불상(재료:銅) 문의:02-2004-8291

만 인 동 참
ARS : 060-700-0108
당신의 후원이 군불교를 살립니다



용의크기 : 넓이 2미터, 높이 2.5미터, 길이 108미터
사바세계 일체중생은 신비의 용을 친견 함으로써 번뇌망상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일체중생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관세음보살님 42수 진언의 소원 성취를 증득하실 길장이 바로 **칠포 대원사 성지순례**이옵니다.

대한불교 선총림 오봉산 대원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리 607번지 전화 : 054)261-7777 / 팩스 : 054)261-6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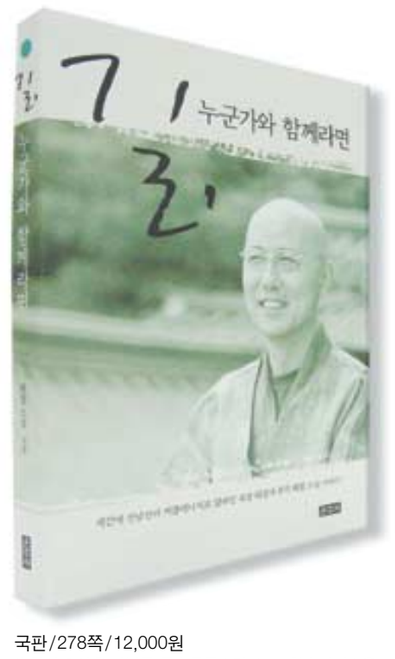
71, 누군가와 함께라면

선남선녀의 따뜻한 인연을 이어주는
혜철스님의 가을같은 맑은 이야기!

‘대성사 따뜻한 만남’ 이라는 새로운 법회를 통해 처녀총각 인연 맺어주기를 실천하는 혜철스님이 그 동안의 법문과 기고문, 그리고 시와 단상 등을 모아 엮었다.
세간의 일상을 담담히 담아내는 따뜻한 시선, 환경오염에 대한 애절한 안타까움,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마음가짐 등 대립과 투쟁이 만연한 우리 사회에 대한 절실한 사랑이 묻어난다.

인생은 나와 인연과 연緣을 맺은 수많은 사람,
수많은 환경과의 공존의 길이다.
독자 한사람 한사람이 이 책의 주인공이며, 함께해서
행복한 그 ‘누군가’가 바로 내가 되어야 한다.

대성사 주지 혜철 합장



전국 유명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문의 및 구입안내 : 온라인책방 여시아문 02)737-0695

국판/278쪽/12,000원
운주사 |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6가 25-1 청송빌딩 3층
02)926-8361

대구BBS 개국 10주년 기념 공연
창작 뮤지컬 갓바위!!
11월 3일 / 대구 오페라 하우스
사랑과 효, 그리고 정토대종동!!
공연문의 및 예약 053-427-5114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법당이 따로 있나' 대방광전 밖 구석에서 한 불자가 108 참회기도를 하고 있다.



108 참회기도를 마치고 법회참석 증명서인 낙관을 받고 즐거워 하고 있다.



'오랫만에 소풍나온 기분'. 법회 시작전 경내 숲속에서 점심 도시락을 먹고 있는 참가자들.

염주알 꿰는 마음으로…

도선사, 108사찰 순례기도 입제하던 날

▶2500명 65대 버스에 나눠 타고 통도사로

10월 17일 낮 12시, 오전 내 고요하던 양산 통도사의 적막이 갑자기 깨졌다. 65대의 버스에 나눠탄 2500여 불자들이 한 순간에 들이닥쳤기 때문이다. 도선사(주지 혜자) 108사찰 순례단이다. 단일 사찰 행사로는 좀처럼 보기드문 엄청난 규모이기에 그 자체를 보는 것만으로 통도사를 찾은 관광객들의 입이 딱 벌어졌다.

도선사는 '혜자 스님과 함께 떠나는 108사찰 순례기도' 첫 장정의 닻을 영축총림 양산 통도사에서 올렸다. 통도사에 속속 도착한 순례단은 각자 준비해 온 도시락으로 점심 공양을 마친 후 오후 1시 일주문 앞에 가지런히 정렬했다.

순례단은 '관세음보살' 정근을 하며 점심 공양으로 잠시 풀어졌던 마음을 다잡았다. 이번 행사 총지휘자인 혜자 스님을 선두로 독경소리에 맞춰 일주문부터 금강계단까지 도보순례가 시작됐다.

참가자들의 긴 행렬은 끝간데 없이 한동안 이어졌다. 그들 속에는 1m도 안되는 지팡이 하나에 의지해 걸음을 옮기는 노보살, 쌀 1되를 넣어 무거워 보이는데도 힘겨워하지 않고 열심히 따라오는 50대 보살, 말쑥한 양복 차림에 '관세음보살'을 외치며 씩씩하게 걸어나오는 거사 등이 있었다.

행렬은 잠시 부도전 앞에 멈춰 통도사 출신의 역대 고승대덕들에게 삼배를 하고 다시 이어졌다. 순례기도 법회는 대방광전에서 열렸다.

수많은 인파로 미처 대방광전에 들어가지 못한 순례단들은 경내 마당 한구석에 자리를 펴고 앉아 법문에 귀를 쫑긋 세웠다. 법문이 끝난 뒤 '삼귀의'와 '천수경' 독경, '석가모니불' 정근에 이어 108참회 기도가 시작됐다. 발디딜틈조차 없는 대방광전에서, 절 마당 한구석에서, 금강계단에서, 명부전에서, 마음을 한데 모아 하는 참회 기도는 그 자체가 장관이었다. 절의 횟수를 알리는 법사 스님의 죽비소리는 안 들리지만 이심전심으로 염주알을 굴려가며 108배를 했다. 그야말로 처처(處處)가 불심가득한 법당이었다.

▶매달 한곳 이상 참배 … 9년의 여정

이날 순례의 하이라이트는 법회가 끝난 뒤 마련된 금강계단 적멸보궁 사리탑돌이. 일반에게 좀처럼 공개가 안되는 적멸보궁에서 참가자들은 '석가모니불' 정근을 했다.

정근이 끝난 불자들에게는 이날 법회 참석 증명서인 낙관을 혜자 스님이 펴낸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 책 속 통도사 편에 찍어 주었다. 아울러 통도사 글자가 깨알같이 새겨진 염주알도 하나씩 증정됐다. 108곳 사찰 순례를 모두 마치게 되면 저절로 108 염주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은 "108 산사에서 108 배하며 108 번뇌소멸하고 108 염주를 만들어 가는 소중한 인연공덕을 쌓길 바란다"며 "<마음으로…>에 해당 사찰을 방문할 때마다 소감을 적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자식들이 순례기도에 동참한 부모님들의 불심을 오래도록 가슴에 새기며 본받을 수 있도록 해 놓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통도사에서 첫 발을 내딛은 '도선사 108사찰 성지순례기도'는 11월 7일 법보종찰 해인사, 11월 29일 승보종찰 송광사에서 진행된다. 매달 1개 사찰 참배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지역 상황에 따라 두 개의 사찰도 찾아갈 예정이기에 108 산사 순례는 자그마치 9년여의 대장정이 될 것이다.



참가자들이 배낭 가득 각자 짊어지고 온 쌀을 한데 모으고 있다. 모여진 쌀은 30가마니가 넘었다.



적멸보궁 참배 후 주지 혜자 스님이 신도들에게 염주알을 나눠주고 있다.



이번 순례기도의 하일라이트인 적멸보궁 탑돌이. 2500여 참가자들이 각자 서원을 발원하며 사리탑돌이를 하고 있다.

▶"108 산사서 108배하며 108번뇌 소멸"

올해 삼보종찰 참배를 끝내면 내년부터는 제주도 관음사에서부터 금강산 건봉사까지 전국의 사찰을 두루 돌아보게 된다. 돌아오는길에는 인근 군법당도 들러 위문품과 쌀 등을 전달할 계획이다. 혜자 스님은 남북관계의 냉기류가 풀린다면 내친김에 금강산 신계사와 보현사까지도 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3시간여 동안 진행된 108사찰 첫 기도순례는 참가자들이 배낭 한가득 짊어지고 온 쌀을 한데 모은 30가마를 통도사측에 전달하는 것으로 여법하게 회향됐다. 쌀 한되와 도시락 등 속세에서 10kg이상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온 참가자들은 가벼워진 배낭만큼 시름과 번뇌도 다 내려놓은 듯 가벼운 발걸음으로 일주문을 나섰다.

통도사/글 =김주일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이색참가자들

▲권영희보살–질병 무릅쓰고 불심으로

새벽 4시에 일어나 참가했다는 권영희 보살(79 ·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은 고혈압에다 허리디스크로 건강이 무쳑 안 좋았지만 부처님을 만나러 간다는 일념으로 다리를 질질 끌면서 통도사 금강계단까지 왔다. 하지만 금강계단 앞에 도착하자 온몸에 경련이 일어나 경내 구석에서 한동안 안정을 취했지만 탑돌이에 동참, 열심히 기도했다. 권영희 보살은 법회가 끝나자 "적멸보궁 앞에 서니 육신의 고통이 다 달아나고 환희심이 벅차 오른다"고 해 주변을 감동시켰다.

▲안젤라 수녀–적멸보궁서 편안함 느껴

의정부의 한 성당에 있다는 안젤라 수녀님은 어려서부터 불교집안에서 자라 사찰문화에 대한 동경이 많다. 도선사 신도인 이웃 주민의 권유로 이날 참석한 안젤라 수녀는 "일반인들에게 공개가 잘 안되는 곳이라기에 호기심으로 적멸보궁에 들어갔다 왔는데 웬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졌다"며 "성당에서도 가끔씩 성지순례를 가지만 오늘 도선사 순례기도 행사처럼 이렇게 엄청난 규모는 처음 본다"고 신기해 했다.

▲김홍균 거사– '매회마다 동참' 발원

수천의 보살들속에는 가끔에 콩나듯 거사들도 눈에 띠었다. 이중 김홍균 거사(50 ·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는 재적 사찰인 도선사외에는 다른 사찰에는 한번도 가본적 없는 특이한 이력의 불자다. 아들의 대학입학 합격 발원 기도를 위해 도선사만 다녔었는데, 지난 10월초 모집중인 성지순례 동참 회원으로 등록하고 108사찰 순례의 발원을 세웠다. 그는 "지금의 마음처럼 회향하는 그날까지 한번도 빠지지 않고 꼭 참가해 108 염주알을 다 꿰어 놓겠다"고 의욕을 나타냈다.

청운 스님 진품 달마도

귀의 삼보 하옵고
청운 스님께서 직접그리신 달마도는 오랜 정진을 통한 선(禪)기가 녹아 있습니다.
달마도는 인간의 근본 마음을 밝혀줌으로써 삶의 모든 어두운 불행의 기운을 사라지게 만들어 밝고 행복한 삶으로 바뀌줍니다.
청운스님의 영적 힘을 가진 진품 달마도를 소장하시고 소원성취도 이루십시오.
나무관세음보살

※ 달마도(그림)만 구매 가능 합니다. 각 호수를 불러주세요. 10점이상 구매시 사찰명을 새겨 드립니다.

앞면 

달마 관음 지장

뒷면 

소원성취 건강부 사고방지

◀ 달마카드
소재 : pp금장 달마도 부적카드
규격 : 50mm × 75mm

※ 50장이상 주문시 사찰이름을 새겨드립니다.


달마 3호-그림: 30×40cm
달마 4호-그림: 40×50cm


달마 6호-그림: 35×45cm
액자: 47×64cm


달마 8호-그림: 35×68cm
액자: 47×88cm


달마 10호-그림: 45×75cm
액자: 58×94cm

● 구입문의 : 불교용품 전문기획 달마 SHOP 051)851-5535 입금계좌 : 농협 949-02-315451(정정애)

마음은 PC로 사경은 노트로 전해요

인연카페 '릴레이 사경' 인기

우편 배송 방식으로 20여 회원 꾸준히 참여
천수경 금강경 이어 우리말 법화경 진행
"현대인 생활패턴 맞춘 새로운 신행문화" 주목



삽화: 이동수

경전(經典)의 내용을 필사(筆寫)하는 사경(寫經). 사경은 경전의 뜻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고 자신의 원력과 신심을 한 자 한자 정성을 들여 필사하면서 키워나간다는 점에서 불자들의 수행 방편으로 널리 행해지고 있다. 하지만 바쁜 일상생활로 특별히 시간을 내어 사경 수행을 하기란 쉽지 않다. 특히 불교 초심자의 경우 경전 한권을 모두 사경한다는 것은 크게 법이 없을까 고민하다 평소 해보고 싶었던 사경을 회원들과 나누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카페 게시판에 올려 회원들의 의중을 물었다. 이를 본 회원들은 좋은 생각이라며 동참하겠다는 뜻을 전달했고 처음으로 <천수경>을 회원들이 나누어서 릴레이 사경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운영진을 중심으로 사경에 참여했지만 2년이 지난 지금은 20여명의 회원들이 꾸준히 릴레이 사경에 참여하고 있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그동안 <천수경>< 금강경>을 사경했고 지금은 우리말 법화경을 사경하며 회원들의 친목과 신심을 키우고 있다.

서원을 세우지 않으면 힘든 일이다.

그러나 인터넷 다음의 인연 카페(http://cafe.daum.net/inyon)에서는 릴레이 사경이라는 독특한 아이디어로 회원들과 함께 사경을 생활화 하고 있어 화제다.

인연 카페지기 아쇼다라가 릴레이 사경이라는 아이디어를 낸 것은 2004년. 불교라는 공통된 주제로 사이버 공간에서 동호회 활동을 하지만 법회나 성지 순례 이외에 특별히 개인 수행을 할 수 있는 방

이같이 릴레이 사경이 꾸준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비결은 바로 사경 방식 때문. 우선 릴레이 사경 게시판을 통해 사경을 신청하면 카페 운영진이 경전과 사경노트, 다음 차례 사경자 주소를 우편으로 배송해준다. 사경노트에는 사경하는 방법과 규칙, 사경의 범위가 명기되어 있고 자신의 소개와 발원을 적은 다음 사경을 시작하게 된다. 사경을 마친 이후에는 다음 차례의 회원에게 사경 노트를 우편으로 보내 주고 게시판에 사경을 회향했다는 글을 남기는 방식으로 사경이 진행된다.

릴레이 사경은 바쁜 직장 일, 또는 시간에 쫓기는 현대인들의 특성을 감안한 수행법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인터넷 신행 문화로 평가받고 있다.

인연 카페지기 아쇼다라는 "사이버 공간에서 불교 동호회를 찾는 사람들 대부분이 직장인 이거나 시간이 없어 오프라인 신행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사경을 체험해 보면 마음이 깨끗하고 맑아지는 것 같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회원들의 동참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우리문화원형 디지털콘텐츠화사업' 결과물

국사교과서 부교재로 개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원장 서병문)은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유영렬)와 공동으로 10월 10일 국회 헌정기념관 강당에서 문화원형 콘텐츠를 활용해 개발한 초중고 국사교과서 부교재인 <재미있는 디지털 한국사 이야기> 시연회를 가졌다(사진).

이번에 편찬된 <재미있는 디지털 한국사 이야기>는 지난 5년간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 실시한 '우리 문화원형의 디지털콘텐츠화 사업'의 결과물들을 활용해 제작한 것으로 초등학생용과 중고등학생용 2가지가 개발됐다.

<재미있는 디지털 한국사 이야기>는 플래시애니메이션, 사진, 동영상 등 다양한 시각자료를 통해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꾸며졌으며 실제 수업과정에 맞춰 진행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은 물론 각 과별로 거의 빠짐없이 퀴즈 및 놀이를 넣어 학생들이 보다 재미있게 내용을 익히고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우리 문화원형의 디지털콘텐츠화 사업'에 선정된 작품 가운데 20%이상이 불교 관련 소재 작품이었다는 점에서 국사교과서에 나오는 불교 이야기를 멀티미디어로 쉽고 재미있게 배울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 포교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미있는 디지털 한국사 이야기>는 내년 3월부터 전국에서 시범 사용되며 추후 해외교포를 위한 영문판 교재가 만들어질 예정이다.

서병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장은 "진흥원의 개원과 함께 가장 먼저 추진된 '문화원형의 콘텐츠화' 사업이 우리 문화원형을 한곳으로 모으는 일뿐 아니라 이렇듯 교과 부교재로까지 쓰이게 됐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부교재 개발에 나서 소중한 우리 문화를 청소년들이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엠파스서 베타버전 서비스

우리 민족의 역사, 자연, 생활, 사회, 종교 등 한민족의 문화유산을 집대성한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을 인터넷으로도 볼 수 있게 됐다.

검색전문포털 엠파스(대표 박석봉 www.empas.com)는 한국학중앙연구원(원장 윤덕홍)과 함께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베타 버전을 오픈했다고 10월 17일 밝혔다.

이번에 오픈한 베타서비스에서 '팔만대장경'을 검색해 보면 해인사, 가야산, 고려대장경 등의 자료는 물론 참고문헌 정보와 원본 이미지를 자세히 볼 수 있다. 또한 사용자들이 검색한 자료를 백과서전 양식 그대로 자신의 블로그에 담아 사용할 수 있어 불교 정보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김두식 기자

우리 가족 영상 만들기 15

초보·전문가 모두 편리하게 사용

프리미어 프로의 인터페이스

영상 편집 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프리미어다. 초보자에서부터 전문가까지 누구나 쉽고 다양한 효과를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통 편집보드를 구매하면 번들로 제공됨으로 설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사용 설명서를 보면 된다.

최근에는 프리미어 프로 버전이 일반화되어 이를 기준으로 인터페이스를 첫 화면을 살펴보면 크게 4개의 창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화면 좌측 상단에 메인 윈도우(Main Windows)는 여타 프로그램들과 같이 프로젝트나 파일을 불러오고 저장하며 최종 렌더링, 환경 설정 변경 등 프리미어 프로의 모든 작동이 가능한 곳이다.

그 밑에 있는 박스는 프로젝트 윈도우(Project Windows)는 편집할 영상을 만들 재료들을 관리하는 창이다. 캡쳐한 동영상 클립이나 음악파일, 혹은 사진파일 들을 이용해서 편집할 때 이같은 소스를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영상이 보여 지는 곳을 모니터 윈도우(Monitor Windows)고 한다. 이 창은 편집할 원본 소스들을 확인하고 자르는 기능을 수행하는 좌측의 소스 모니터와 현재 자신이 작업하고 있는 영상을 미리 볼 수 있고 우측 모니터로 구성되어 있다. 백터 스코프(Vector Scope), 웨이브폼(Waveform) 등 색감 조정에 관련된 전문적인 기능도 할 수 있다.

하단에 길쭉하게 있는 타임라인 윈도우(Timeline Windows)는 촬영한 영상과 음악을 배열하거나, 자막을 삽입하는 등 합석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다. 실질적으로 영상 편집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영상부분과 음성부분으로 나누어져 한 트랙을 이루고 있으며 계속해서 트랙을 만들 수 있다. 영상과 음성이 분리되어 다양한 효과 작업을 수행하는 기능을 한다.

우측으로 숨겨져 있는 창들도 많다. 화면 상단에 윈도우 기능키를 누르면 화면에 보이게 할 수 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창은 바로 이펙트 윈도우(Effects Windows). 비디오나 오디오에 각종 특수효과를 간단하게 모아둔 곳으로 장면 전화 효과를 간편하게 영상에 삽입할 수 있다.

이펙트 윈도우에서 적용된 효과를 세부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을 하는 창은 이펙트 컨트롤 윈도우(Effect Controls Windows)다. 영상의 크기나 투명도, 프레임 움직임 등을 조정하여 애니메이션 효과를 줄 수도 있다.

그 외에도 오디오 믹서 윈도우(Audio Mixer Windows)는 트랙의 소리 크기 조정, 좌우 소리 조정 사운드 레코딩 등 소리와 관련된 기능을 조절하는 창이며 히스토리 윈도우(History Windows)는 작업자가 이전까지 작업한 과정이 기록되어 있어 실수로 파일을 지워버리거나, 특수효과를 잘못 적용한 경우 그 전 단계로 돌리는 기능을 수행한다. 인포 윈도우(Info Windows)는 영상 편집을 위해 불러온 비디오, 오디오, 사진 자막 등의 길이, 종류 등의 정보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김두식 기자

클릭! 불교문화상품
불교문화상품전문몰 mahamall.co.kr
상품문의 : (02)732-1520



연꽃좌대 애기관음

재질 : 마블
크기 : 애기관음(小) 높이 10cm / 애기관음(大) 높이 15cm
애기관음(大)의 좌대밑면에는 복장을 할 수 있도록 구멍이 뚫어져 있습니다.
책상위에 모셔놓은 애기관음의 자애로운 미소가 불자님 가정에 편안을 가져다 드립니다.

가격: 애기관음(小) 15,000원
애기관음(大) 30,000원

"새는 지붕"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 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창고, 공장, 가정집 (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바로공사)

서울·경기도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7638-1117
전라도 : 010-2311-0157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애드다피아 http://ad.buddhapia.com
법회 참석 대중의 일체감과 효율성을 높이는 필수 교보재

법요집·기초교리집 괘도 특별한정 보급!!



정기법회, 수련대회, 불교대학, 불교학교 등
법당에 걸어 비치만하셔도 법회의 원활한 진행은
물론 신도님들의 불교기초공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법요집
·삼귀의 ·정근
·찬양합니다 ·발원 및 축원
·반야심경 ·사홍서원
·입정 ·산회가
·청법가 ·기타찬불가
·법문

● 기초교리
1. 불교란? 8. 예불문 15. 사성제
2. 부처란? 9. 삼보 16. 사섭법
3. 대승과 소승의 차이 10. 삼귀의 17. 십이인연
4. 사찰에서 쓰는 도구 11. 삼법인 18. 육바라밀
5. 사찰경내 예법 12. 삼업 19. 팔정도
6. 합장과 반배 13. 삼학 20. 보왕삼매론
7. 고두례 14. 신도오계

법회의 일반적인 순서와 불자라면 꼭 알아야 할 기초교리가 암도 큰스님의 감수로 알차게 꾸며져 있습니다.

· 특별보급가 : 140,000원 (한정수량판매)
40쪽, 아이보리색 레자크지
· 구성 : 괘도(법요집, 기초교리, 양면인쇄) 1개
걸이대, 지시봉

인터넷 불교 종합 서점
여시아문 02)737-0695 02)2004-8219,8220
국내·해외불교서적, 교양도서 http://www.yosiamun.com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 생활 정보



▷ 광고문의 : TEL 02)2004-8213~6, 02) 732-1522
FAX 02)737-0696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광고가격 : 1Box(4.4×4.4) 4만원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각 사찰에 모든 행사 장엄해 드립니다
49재, 천도재, 바라, 나비무
살풀이, 승무, 회심곡, 태평소
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집전위주교육 6개월
위치: 부산 온천동
051)516-5691
017-556-5691

조상 천도재 무료로 여법하게 집전해드립니다
(단 준비물만 해오십시오)
건강상담 및 팔상체질감별 무료
031)834-3207,833-6803
017-288-6863/010-4860-6863

역학개인지도
명리,성명,택일,풍수
쉽게 풀어보는 명리첩경
著者 반야선원 혜공 합장
02)421-8494
017-606-6628
(전화 상담도 함)

數(수)修理(수리) 사주팔자
● 천체의 이동에 따른 지축의 정립으로 인해 1년이 360일이 되며 양력과 음력이 일치하니 기존의 달력이 새달력으로 바뀌며 周易(주역) 다음으로 제 3역인 교易(정역)으로 쓰인다.(일부김항선생의 정역편에서 발췌)
• 동서양을 통해 변하지 않는 근본(기본적) 숫자를 통한 특유의 접술로고.
• 숫자가 사람 장소 사물에 대해 제공해줄 수 있는 숨겨진 의미를 찾아 운명해독의 비법전수
• 교재) 수수리수인작법서 무료증 (시중에 절판된 책)
수강처 : 031)633-1517

사찰의 각 행사 해드립니다
천도재, 49재, 점안식,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 회심곡, 호적
행사문의
010-4870-8359
범음범패 연수원장 덕산 합장

회심곡.천도재. 49재.바라.태평소
학인스님 행자모집
범음범패 교육도량
인간문화재 9호 이수자
마산 밤밭고개 세원암
016-428-6665
055)222-9486 천우 합장

눈 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노환으로 작은글씨 안보이시는 분
눈흐림, 눈건조, 눈부심, 침침함,눈빼빼함,
눈곱, 충혈, 시력강화, 렌즈착용 하신분
섭취하고, 반응 없을시 100% 환불
구입문의 (02)2631-2205,1305

명리 6개월 무료강의
2기생 모집
현재 1기생 15명이 용맹정진하고 있음
정락스님 직강
032)662-5701
010-3448-6612

용 덕 사
역학. 매화역수. 강의안내
(비구. 비구니 무료강의)
지하철3호선 미남역 6번출구
교차로방향 1분거리
051)506-4038

행 자 구 함
남 · 녀 연령 제한 없음
▷충남 공주
010-8828-3002

천도재.49재
일인스님 20만원
이인스님 40만원
저렴한 보시금으로 해 드립니다
▷부산, 경남지역
010-7747-5222

경주 도심속 자연경관이 수려한 「비구니선원」 분양안내
■ 22,2평형 - 3세대
■ 18평형 - 3세대
■ 14평형 - 5세대
} 총 잔여세대 평당분양가 (390만원)
경북 경주시 충효동 450번지
대한불교 조계종 선도산 금선사
여래선원 주지 휴정 합장
문의 전화 054)772-7171 011-538-3879

사주 명리 구성학 성명 택일 궁합 관상 풍수
역학개인지도,숙식제공
보현사 학산철학원
원장 학산 합장
054)383-4569
016-717-1592

동양최대 천수관음법도량
100억 불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1세기 한국 불교발전에 초석이 되실 동반자를 기다립니다.
사찰운영중
010-9443-7881

기 공 지 도 자
전문과정모집
행자모집
30년전통불선도(佛仙道)
대한불교전통기공협회
051)852-2277
016-551-9700

경 전 공 부
● 과목: 천수, 반야, 미타, 금강, 법화
● 일시: 매월 첫째, 셋째 일요일 오전 10시
문의 041)662-9489
011-9937-7667
반야암주 합장

법 화 경 특 강
1. 셋째 토요일 오후 2시~3시 30분
2. 동대구역 옆 동대구빌딩 3층
3. 회비 만원 법화경(삼만원)증정
053)952-8711
017-501-8711
불교해동대학원

토굴수행중인 스님입니다.
약 7평정도의 법당 불사 중입니다.
목탁, 종, 탱화, 불구, 그림 등
한점이라도 보시 원하시는 분
연락 부탁 드립니다. 달마암
042)282-2334
016-606-565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40~50대
011-9778-0408

청정한 나반도량입니다
천일기도 용맹 정진할
비구니 스님과 보살님 모십니다
055)835-9450
011-9790-1779

비구니부전스님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도 김포
011-9469-6625

1. 신심있고 내집처럼 살 비구니 스님 및 공양주 보살님을 찾습니다 (운전가능한자)
2. 남 · 여 행자 스님 구합니다
011-9803-6301

산촌 조용한 나한도량 스님입니다. 신심이 있고 건강 · 근면하며 불사 함께 하시고 사찰관리 하며 지내실 40~50대의 화주보살님을 찾습니다
011-486-1275

부전스님 모십니다
▷40~50대
051)542-5600
011-551-1719

사주운세 10초내 맞추면 통장입금
명리학[사주첩경통달](이석영)
명리학 질문 10초 내 답변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가출, 부부간의 갈등, 혼사지연, 부모와 자식간의 갈등,학업성적 부진등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리고 퇴마와 천도방법을 상담으로 찾아드립니다

궁합보실분 10곳을 다녀보세요.
8곳은 ○표 2곳은 X라면 ○표를 믿겠죠.
X표는 내시경으로 본듯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찍어냅니다. 또 백호대살, 형살, 원진살 등 흉살이 있다고 해서 고민하지 마세요.
사주첩경 6권을 보면 오히려 음덕이 있음을 많이 봅니다.

굿이나 부적 등 일체 부담되는 일은 권해 없습니다

02)826-5067
하나은행 361-810554-63707 김진동

공양주 보살님 모 십 니 다
▷대구지역
053)313-5908

비구 부전스님 모십니다
▷전남 화순
011-611-8867

공양주 구함 부부도 가능
▷용인소재사찰
031)335-2576
011-270-2675

공양주 보살 모 십 니 다
▷60세 이하로 절에서 거주하실 분
보시금은 상담후 결정
051)508-4509

공양주보살님과 처사님 모심
조용한 사찰입니다.
공양주보살님과 처사님을 각각 모십니다. 부부가 함께 오셔도 좋습니다
(삼랑진)011-584-3535

공양주 보살님 모 십 니 다
▷40~60대
031)480-2258

비구 부전스님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울산, 50~60세
052)243-38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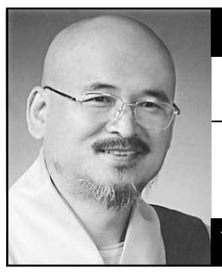
행 자 모 집
나이:20세이상,40세미만
공양주 보살님모십니다
나이:50세-65세미만
▷서울근교/초보환영
02)356-1860
011-9004-1860

참 좋은 인연을 찾습니다
한 평생 좋은 마음으로 웃으며 살아가실 분
공양주 우대함, 인심좋은 경주
닭띠 환영, 연락주세요
054)775-8880

유 명 표 구 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 합장 ▷전국 택배가능◁
02)374-9886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28숙과 방위술
● 방위술과 28숙을 정확하게 쓰는방법을 1:1로 쉽게 일러드리며 승려에 한합니다
● 위치 :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지도스님 : 대주 합장
☎ 02)926-1259 / 011-741-0867

행자(예비스님) 모집
● 산중 분원인 감포선원(무문관)에서 수행함
☎ 문의 : 054)771-8350. 011-881-9710(주지스님)
- 대구큰절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면 그것도 가능함
- 회주이신 우학스님 상좌됨
- 1인 1실, 민주적 교육, 수계 후 모든 교육비 지원
대한불교 조계종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053)474-8228,011-9852-0075(총무스님)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학 인 모 집
명리학을 처음 공부하고자 하는분들의 마음은 누구에게 배워야 할것인가를 결정하기가 정말 힘든일이지요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해서 보내드립니다.
문의 051) 867-8438
부산 송광정사 附設 FAX 051)867-7438
부산시청(경찰청) 뒷편 삼화탕 앞

대한불교 전통조계종
(사)國際佛敎 僧伽會 所屬
本宗은 釋迦牟尼佛을 敎祖로 太古 普愚 國師를 宗祖로 하여 釋迦世尊의 自覺覺他 覺行 圓滿한 根本敎理를 奉體하며 直指人心 見性成佛 傳法度生을 종지로 한다
● 종정대행 : 각암대종사 ● 원로의장 : 청산
● 중앙종회의장 : 무 원 ● 사정원장 : 지 원
● 총무원장 : 능 인 ● 총무부원장 : 허 허

본 종단 종지 종통에 뜻있는 종도 및 사암을 모집함

1. 각 사암 등록 및 각 교구 종무원 등록을 원하시는 분
2. 불교무술 자격증 및 단증을 취득 하실 분
3. 승려가 되고자 하시는 분
4. 종단간부 임원직을 맡고자 원하시는 분

- 산하기관 -
(사)세계불교호국무술연합회
(사)호국불교단체협의회
(사)전국불교체육인연합회

◆ 총무원 : 구미시 사곡동 670-1
전통불교대학 삼보선원
◆ 문 의 : 054)464-4725, 464-4735
총무원장 010-7302-0077

설법 연수생 모집
● 교육목적
각 개인별 특수성을 파악하여 설법의 실기 연수과정을 통한 능력배양, 그리고 자료의 재구성 능력과 표현 능력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 교육내용
1. 가치관의 체계확립 및 성격교정
2. 설법의 개념 및 부처님의 5종 설법
3. 설법 무엇이 문제이고, 그 대안은?
4. 음성언어 및 몸짓언어의 이론과 실제
5. 원고작성법 및 실기훈련, 비디오 촬영
6. 상담적대화 및 대화최면의 실기 훈련
7. 인사말, 축사, 격려사, 주례사, 발원문 등 실습
8. 설법자료의 재구성 능력 확보를 위한 이론과 실제
◆ 특징 :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
◆ 모집 : 종합반 - 매주 화요반 & 목요반-2개월 과정
특별반 - 맞춤식 개인지도 8회과정
※ 수시모집
◆ 개강 : 종합반 - 화요반 : 2006.11. 7(화) 오후 7시
목요반 : 2006.11. 2(목) 오후 7시
◆ 문의 및 신청 ◆
TEL 02)747-1567
H·P 011-248-1567
한국설법연수원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20(영흥 B/D 4층)
〈지하철 1, 3, 5호선 종로 3가역 2번출구〉

할아버지 · 할머니, 아들 · 딸, 손자 · 손녀
가족이 함께 기도함
음력 9월 9일 영가천도기도
횡사액난으로 죽은 영가천도
전국에서 기도동참하고 있을 지방분 환영
개인별 능력에 맞춰 체계있게 기도함
원하는 소원성취가 잘 향상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철야용맹정진
가정에서 전국 포교활동 하고 싶은 분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드리는 방법

경전독송기도특강 (3개월과정) ● 기도와 회향 매주 화요일 ● 보시와 불공방법
①우리말 천수경 ②문수보살예찬문 ③보현행원품 ④관세음보살보문품 ⑤지장경 ⑥금강경 ⑦아미타경 ⑧약사여래경 ⑨능엄신주 ⑩신년법어 ⑪불탄법어(성철큰스님) ⑫영가천도 ⑬기 타

● 지방분 환영 ● 전국 포교활동 하실분
★가정방문 상담과 기도해 드림
스님 동참환영
● 군부대 법당 ● 경찰서 법당 ● 교도소 ● 병원법당 법보시 하실분 문의 및 상담
● 노후에 건강하게 오래살고 회향을 잘하고 복짓고
맨발등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꿈바위불교교육원 018-789-5008
서울 부산 대구 마산 안성 지역 예방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 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전화 : 02) 2004-8213~6 / 02)732-1522 (直)
· 전송 : 02) 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사 찰 안 내
● 위치: 전남순천 ● 법당: 25(木) ● 요사: 20평 ● 부지: 250평 ● 가액: 3억
● 위치: 경남마산 ● 법당: 17평 ● 요사: 32평 ● 부지: 100평 ● 가액: 2억 6500
● 위치: 경남 ● 법당: 20평 ● 요사: 80평 ● 부지: 650평 ● 가액: 3억 3천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암 자 안 내
● 위치: 경남 밀양 얼음골 주위
● 임야 4500평 법당, 요사채, 산신각
● 가액: 4억5천만원
● 유명관광지 입구
010-4876-5535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순창
● 부지 350여평, 건평 45여평, 법당1 요사채1, 삼성각1, 방4
● 특징 : 지하수 물 좋음
● 가액 : 1억2천5백만원
011-595-7878

토 굴 안 내
● 위치: 대구 주변
● 부지 180평
● 임법당, 주지실 1동, 방 6개 요사 및 공양간, 산신각 1동
● 자연경관 멋진 도심 속 토굴
● 가액 : 1억 7천만원 (융자 5천 포함)
011-803-6962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종로구 세검정 삼각산
● 대지 : 약 200평
● 건평 : 약 70평 (1층 40평, 2층 30평)
● 가액 : 20억원
※ 꼭 필요하신 분만 연락 (스님환영)
010-9494-3032
02)716-0072

사 찰 안 내
● 위치: 강원도 ● 부지: 2300평 ● 법당: 20평목조 ● 요사: 30평 ● 가액: 2억 7천
● 위치: 천안근교 ● 부지: 360평 ● 법당: 20평한옥 ● 요사: 30평한옥 ● 가액: 절충가능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양도 운영하실 분 전화 주세요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 찰 안 내
● 위치: 밀양시 산외면 근방
● 대지: 약 500평
● 대웅전: 20평
● 산신각: 15평
● 요사: 50평
● 가격절충
011-9516-5364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김해
● 대지: 170평, 법당: 25평
● 요사 2동, 산신각
주차시설 약 10대
● 사용평수: 약 1천평
부전스님 모심
● 가액: 4억원
010-8529-0863

사찰안내
● 위치 : 대구시에서 5분거리 위치만점 아파트 밀집, 고속도로 IC인접
● 대지: 135평, 법당 20평, 요사 40평, 방 5개 사무실
● 신개발지 시내버스종점, 교통편리, 텃밭있음, 주차장 확보
● 삼존불 봉안 화장실 3개 창고
● 가액: 2억7천만원(융자가능)
011-825-1662
꼭 필요한 분만 연락바람

별장식토굴안내
● 위치: 춘천시 강촌 인접
● 구조: 멋과 모양을 갖춘 한옥식 휴식공간
● 건물: 가옥 등비 완비 (방3, 입식부엌, 수세식 화장실,정원)
● 평수: 130평
● 가액: 6000만원
● 특기사항: 망중한을 즐길 수 있는 아란야인
010-6312-8637

사 찰 안 내
● 위치: 서울 ● 대지: 약 90평 ● 법당: 25평 ● 요사: 30평 ● 가액: 3억 8천
● 위치: 경남 밀양 ● 대지: 1100평 ● 법당: 10평, 25평(2개) ● 요사: 22평, 21평(2개) ● 가액: 2억 7천
한국불사 (한국 최고의 사찰 컨설팅)
연락처 : 02)6674-3535 / H.P 010-3154-3535
※ 전국 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상담 환영합니다.

사 찰 (급) 안 내
● 위치: 경남 마산시
● 대지: 130평, 건물 건평: 100평
● 건물: 지하 1층, 지상 2층 (1층 요사채, 2층 법당) (산신각)
● 가액: 2억 8천만원 (은행대출 1억 2천만원)포함 답사 후 가액절충, 즉시법회가능
011-9503-3442

사찰안내
● 위치: 경북 의성
● 평수: 대지 150평, 요사 2동
● 건평: 54평
● 삼존불, 16나한 봉안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선세 180만원
● 시설비: 500만원
010-6374-0034

사 찰 안 내
● 위치 : 익산시 황등면 황등리 소재지
● 법당 : 한옥 임법당 25평 요사 : 조립벽돌 30평
● 종교부지 300평, 시유지 550평
● 약사석불, 산신각, 면사무소 인접
● 절앞 마을, 뒤 소나무숲, 절충가함
● 양도가 : 1억 7천
011-677-8525

천하절경명당터청정계곡접
● 서울에서 1시간 30분 2시간 소요
● 1만여평부지내 건물 10여동
● 모든것 완전구비 30억 이상 투자
● 가액: 17억
※중개인 전화 사절
017-373-5998

사찰안내
● 위치 : 전남 나주시에서 20분거리. 교통편리
● 대지: 420평
● 법당: 20평
● 요사채: 30평(방5)
● 가액: 9천5백만원
010-6308-7320

사 찰 안 내
〈사 찰〉 ● 위치:구미시청근처 ● 법당 및 요사 95평 ● 어린이 법회 ● 불교대학 ● 가액: 2억 3천
〈토 굴〉 ● 위치:부산 광안동 ● 2층주택 ● 깨끗하게 단장 ● 가액: 8천
〈사 찰〉 ● 위치: 부산시내 ● 법당: 25평 ● 요사: 40평 ● 부지: 1000평 ● 가액: 6억 5천
※ 부산시내 사찰 및 토굴, 암자 다량보유
※ 2억, 4억, 6억, 10억
부산 연산공인중개소 011)560-8522 051)863-6661

토 굴 터 안 내
● 위치: 문막 IC 15분거리
● 토굴, 전통찻집 적당
● 350평 -9천만원
● 800평 - 2억원
011-716-2794

포 교 당 안 내
● 위치: 지하철 7호선 수락산역
● 건물: 5층에 3층
● 평수: 50평
● 시설완벽, 즉시법회 가능
● 보증금 2500만원 월 80만원
● 시설비: 3000만원
017-3715-6333

사찰 및 명상센터 안내
● 위치: 광주광역시 동구
● 대지: 247평, 건평: 75평.
● 법당, 요사, 화장실, 창고, 기역자형
● 산좌수려, 아파트 개발 예정지 근교 현대식건물,기도터 및 명상및교육센터 버스 및 지하철 교통편리
● 가액: 1억8천5백만원
011-624-0919

사찰(급)안내
● 위치: 경북 영천 시내
● 대지: 117평
● 법당, 요사채, 대중공양간, 주지실 등 ,방 4개, 스님 화장실1, 신도 화장실 1, 심야보일러
● 가액: 1억 5천 8백만원 (절충가능)
사정상 시세 이하 계산합니다
010-6215-8784

사 찰 안 내
● 위치: 울산시내
● 대지: 98평
● 건물: 약 200평
● 주차공간 충분함
● 가액: 10억
● 엘리베이터 있는 4층 현대식건물임 포교 · 불교대학 최적지임
010-9550-8793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부산
● 실평수 65평, 법당 특 A시설 방大3, 공양간(특 A시설)
● 시설비: 답사후 결정
● 가액: 전세 2000 만원 월 115만원
즉시 법회 가능
018-632-2009

사 찰 안 내
● 소재지 :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고속도로 횡성IC, 새말 IC 20분
● 대지 500평(미등기 1,000평) 법당 30평(2층 1층 요사, 2층 법당) 요사채 70평, 산신각
● 가액: 3억(절충가능)
010-7211-5066/017-420-2200

사 찰 안 내
● 위치: 서울 상계동 소재
● 아담하고 수려한 경관 (계곡 옆) 사찰 팝니다
● 국유지 53평(밭도 있음)
● 가액: 3억
02)951-9393
016-222-3505

포 교 당 안 내
● 위치: 부산 동래구 사직동 앞뒤 아파트 단지. 주변시장
● 평수 38평, 방 2개, 주방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20만원
● 시설비 1500만원 (불상 및 집기일체 포함)
019-291-5558

사 찰 안 내
● 위치: 충북 청원군 미원면
● 평수: 1036평
● 대지 200평
● 법당, 대웅전(50평) 산신각, 요사채
● 가액: 5억 (절충가능)
043)284-7763

사 찰 안 내
● 위치: 경주시 안강읍
● 대웅전, 문화재, 요사채, 대중공양간
● 방 5개, 산신각, 염불전, 큰 거실 2개
● 가액: 답사 후 절충
054)762-8677

포교당(급)안내
● 위치: 대구시 내당동 전철역에서 걸어서 3분 아파트 주택가
● 3층 법당 40평 다다미방
● 주지실, 상담실, 공양간, 화장실
● 삼존불 탱화 신중탱화 산신탱화 모신지 두달 됨
● 전세 5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 1,000만원(절충가) 몸만 오시면 됨. 시설완비
010-5710-1732

포 교 당 안 내
● 위치: 창원시내
● 평수: 100평
● 4층건물 중 3층
● 가액: 보증금 2000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4000만원
010-4877-5900

토 굴 안 내
● 위치 : 지리산 자락 하동 악양
● 가옥 신축 황토 기와집 33평, 부지 672평
● 가액:2억2천
● 특징 : 집 위 대숲, 집안 연못과 잔디밭
016-367-2112

포 교 당 안 내
● 위치: 대구시 중구 대구역 앞
● 평수 25평
● 가액: 1년월세(일시불 300만원)
● 시설비 : 900만원 즉시법회가능 역학하시는분 최적지임
053)426-4162
010-8200-2055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 중심지
● 건물:1층요사채(약 18평)
● 2층 법당 (약 18평)
● 가액: 보증금 3000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없음 약 20년된 사찰
018-502-8080

사 찰 같 은 포 교 원
● 위치: 천안중앙요지최고
● 조건: 2층50평 3층 50평
● 옥상 50평 현재10년운영
● 함께 운영할 비구비구니
● 조건 맞으면 이양도가능
● 불사관계로 제방에알림
010-8808-2646

사 찰 터 안 내
● 산좋고 물맑은 충남공주시
● 무성산 기슭 임야 8천평내
● 주택2동 38평 25평
● 도량이 깊고 계곡물 흐르면서옹달샘 있음
● 전세가능
041)854-0333

사 찰 (급) 안 내
● 위치: 충북 단양군
● 부지 430평중 대지 290평
● 법당: 40평, 요사: 60평 지장전 20평
● 가액: 1억 2천 5백만원 (융자 2천 5백만원)
011-9567-5300

사 찰 터 안 내
● 위치: 부산, 경남
● 대지 200~1000평
● 법당 30~50평 (목조건물)다량확보
● 가액: 5억~20억
영주불사
010-9798-1091

사찰터(급)안내
● 위치: 충북 제천시 청풍호 주변
● 부지 2필지 708평. 현재 하우스 전기전화 계곡 자연수 흐르는 기도처
● 위치: 충북 괴산 지방문화재
● 부지 1필지 233평 ● 가액: 상담후 결정
011-742-5925
043)644-1666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마산 근교
● 건물3동
● 총평수: 1,000평
● 가액 : 4억 8천만원
010-2728-1956

포 교 당 안 내
● 위치: 서울 관악구 봉천 6동 (재래시장옆)
● 평수: 55평
● 가액: 보증금 일천만원 월세 백삼십만원
● 시설금: 상담후결정
02)879-2460
011-9892-2891

포 교 당 안 내
● 위치: 도봉구 방학동
● 평수 25평
● 삼존불, 탱화시설완비
● 가액: 전세 2800만원
● 시설비 1000만원
몸만 오시면 즉시법회가능
018-315-0108

포 교 당 안 내
● 위치: 충북 제천시 중심가
● 한옥 25평, 임법당
● 가액: 전세 3000만원 월세, 양도도 가능함
043)648-6422
011-9423-6788

사 찰 안 내
● 위치: 충남 아산시 대방면 화룡리
● 대지: 310평
● 요사채50평, 요사채10평 법당 20평
● 가액: 8500만원
010-7271-4020
010-2000-5809

명 당 터 안 내
● 위치: 경남 하동 의신 (의신골 금혈자리)
● 전 800평
● 가액: 2억 5천만원 양택지, 수양터 최적
010-4746-5483

옛 절 터 안 내
● 위치: 경남 고성
● 현재 유실수 경영 주말농장, 농장 사택 앞 대형저수지있음, 대형버스진입 주차장완비
● 실제평수: 약 1300평정도
● 산세수려하고 지하수완비
● 가액: 11억. 가격절충
011-9323-4979/010-9903-8088

암 자 안 내
● 위치: 강원도 영월
● 1200 여평
● 건물 5동
● 법당, 산신각, 주지실, 요사2동, 심야보일러
● 가액: 2억 7천 (조정가능)
033)372-6494
011-790-9195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도 포천시
● 부지: 1300평
● 건평 53평, 25평, 17평 세동
● 가액: 3억 8천만원 산세수려한 청정지역
010-3929-1113

사찰(토굴)안내
● 위치: 대구 팔공산 갓바위 근처
● 산세, 계곡 좋음
● 가액: 4천만원
꼭 필요한 분만 연락바람
010-6262-1407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포항시 북구
● 대지 약 640평
● 국유지 약 640평
● 건물 2동(약 51, 약 25평)
● 바다가 보임 (바다인접)
● 가액: 평당 90만원
010-9207-7335

도 심 사 찰 안 내
● 위치: 일산
● 7층에 4층. 114평
● 시설완벽, 위치A급
● 가액 4억 3천 은행융자 2억 포함 (임대가능)
011-749-4553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밀양시 초동면
● 부지: 240평, 법당: 20평
● 언제든지 법회가능
● 요사채: 20평 가전제품일절구비
● 가액: 보증금 4천만원 월 30만원
011-879-7551

사 찰 안 내
● 위치: 서울에서 30분거리
● 대지 402평, 임야 40평
● 대웅전 33평(삼존불)
● 삼성각 10평, 요사채 66평
● 사용평수 : 600평 경내 조경 잘 되어 있음
● 가액: 7억 5천만원
011-9411-5302

포 교 당 안 내
● 위치: 부산시 온천시장 뒷길
● 2층건물 중 2층 , 60평
● 에어컨, 엠프 등 시설완비
● 가액: 전세 1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조성비): 3천만원
051) 554-2406
011-843-2403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양산시 하북면
● 평수: 2층 60평
● 주지실, 상담실, 공양실, 욕실, 삼존불과 후불 산신.신중.관음.지장탱화 소불 520불 집기일체
● 가액: 전세 1천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상담후 결정
055)383-5030

사 찰 안 내
● 위치: 정선군 임계부근
● 대웅전 20평(목조건물) 산신각 5평(목조건물) 요사채, 행랑채
● 평수: 총 2312평 산세수려하고 소술용궁
● 가액: 3억 5천만원 (융자 4천 포함)
033)562-7053
011-9793-7052

포 교 당 안 내
● 위치: 대구 송현동 주공아파트 맞은편 주공시장 입구 건물 4층
● 평수: 53평 (삼존불, 산신나한탱화)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3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즉시법회가능 시설 A급
010-3773-4367

토 굴 안 내
●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최요지
● 법당, 주지실, 사무실, 공양간
● 평수: 50평
● 보증금 3,000만원, 월15만원
● 시설집기 일체 포함 3,000만원
● 즉시법회가능
019-293-9369

별 장 식 사 찰 안 내
● 위치: 이천시(중심가)
● 대지: 175평
● 주차장 100평(별도이용)
● 법당 30평, 요사 현대식 건물 (1층, 2층)
● 가액: 3억
● 특징: 산과 도심이 어울리는 전망좋고 교통편리한 위치입니다
016-510-3455

암 자 안 내
● 위치: 경남 진주에서 30분거리
● 평수: 380평
● 토지세 (1년 15만원)
● 법당 18평 가건물, 천수천안보살(동불)
● 요사채 1층(28평), 2층 (15평) 산신각 3평, 약수터
● 가액: 1억 1 천만원
055)972-3650
011-424-4969

"日 교토대도서관 소장 '대승사론현의기' 서기 600년에 혜균이 저술

'대승기신론' 보다 60년 앞선 국내 最古 문헌"

최연식 · 플라센 교수 주장…김성철 · 김상현 교수 "좀더 검토해 봐야"

'우리나라 최고(最古) 문헌으로 알려진 원효의 <대승기신론소>보다 60년 앞서 저술된 불서의 필사본이 일본 교토대 도서관에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학계의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백제의 승려 혜균이 600년 경에 백제 지방에서 저술한 <대승사론현의기>가 그것이다.

목포대 역사문화학부 최연식 교수와 독일 보쿰대 한국학과 플라센 교수는 10월 20일 한국사연구회와 목포대가 공동 주관하는 연구발표회에서 논문 '<대승사론현의기>의 찬술지역과 찬자에 대한 재검토'와 '한국고대 불교사상사 연구에 있어서 <대승사론현의기>의 중요성'을 각각 발표했다.

이날 연구발표회에서 최 교수와 플라센 교수는 "<대승사론현의기>의 저자는 백제의 승려 혜균이 확실하는 증거를 고증했으며 불교 삼론학의 개론서인 이 책은 7세기 중후반 저술된 원효의 <대승기신론소>보다 60여년 가량 앞서 저술됐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대승사론현의기>를 저술한 혜균이 백제 승려라는 결정적 증거로 이 문헌에 나오는 절 이름 '보희사(寶熹寺)'가 2000년도에 부여 능산리 절터에서 발견된 목간(木簡)에 기록된 '보희사(寶熹寺)'와 일치한다는 점을 들었다.

최 교수는 "<대승사론현의기>의 내용 중 '현재 이곳의 보희연사(寶熹淵師)…'에서의 '현재 이곳'이란 편찬 지역을 의미하고 보희연사는 백제 보희사의 연사 스님을 지칭한다"며 "2000년도 능산리에서 발견된 목간의 판독에서 보희사는 백제의 사찰임이 증명됐기 때문에 '현재 이곳'은 백제가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플라센 교수도 "<대승사론현의기>가 원효의 <대승기신론소>보다 60년 앞선 600년 경에 저술됐다는 주장에 대해 '중국 삼론종 중흥의 시조' 길장(549~623)의 <대승현론>이 내용상 혜균의 <대승사론현의기>를 의식하며 편찬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길장의 <대승현론>의 내용 중에는 이미 혜균이 <대승사론현의기>에서 서술한 개념들이 중첩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승사론현의기>가 600년 경에 저술됐다는 결정적 증거는 이 문헌의 내용에도 들어 있다. 문헌에서는 '길장이 장안으로 간 599년이 기록돼 있고 일본 승려가 일본 왕에게 <대승사론현의기>의 필사본을 바친 해가 658년이다'라고 명기돼 있다. 따라서 이 문헌의 저술 시기는 599년과 658년 사이가 된다는 것이 최 교수의 주장이다.

삼국시대 이전 책으로 편찬된 우리 문헌이 사실상 전해지지 않는 현실을 감안할 때 혜균의 <대승사론현의기> 필사본의 발견은 한국의 사상사 연구 등에서 엄청난 의미를 가진다.

동국대 김성철 교수는 논평을 통해 "최 교수의 논문 자체만을 놓고 <대승사론현의기>를 검토한다면 이 문헌은 600년 경에 저술된 백제의 불교문헌으로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문헌이 확실하고 7세기 초 백제 불교계의 동향 및 6세기 중국 삼론학의 초기적 모습을 연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동안 <대승사론현의기>의 저자 혜균이 '백제 승려인지 일본 승려인지 중국 승려인지'를 놓고 의견이 많았다. 이번 논문을 통해 혜균은 6세기 후반 남중국의 진나라에 유학해 삼론학의 이론체계를 수립한 법랑의 문하에서 수학한 후에 백제로 귀국해 삼론학을 전파한 백제의 승려로 밝혀진 것도 큰 성과로 평했다.

하지만 김성철 교수는 "최연식 교수가 소재로 삼고 있는 <대승사론현의기>서 廣州三藏(만속장경, p.201상)이 廣州三滅(同, p.180하) 등 오사(誤寫)된 글자가 많이 발견된다"며 "이것을 근거로 할 때 본 논문의 결정적 근거로서 최 교수가 인용하고 있는 '今時此間 寶熹淵師 祇洹雲公'이라는 구절은 '今時此間 寶亮法師 祇洹雲公'의 오사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즉 寶熹淵師를 寶亮法師의 오사라고 보고서 '비간(此間)은 앞에 열거한 십사(十師) 중에서'라고 이해할 때 전체 문맥 역시 자연스러워지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또 "로마자나 한글과 같은 표음문자로 기술된 문헌과 비교할 때 표의문자인 한문으로 기술된 문헌에서는 오사된 글자가 특히 많이 발견되고 한문의 경우 제한된 면적 내에서 획의 변형과 첨가를 통해 수많은 글자를 만들어 내야 하기에 유사한 글자가 많다"며 "해서체로 씌어진 문헌의 경우도 오사가 많을 수 있지만, 행서나 초서로 쓰인 한문문헌에서 원래의 글자를 복원해 내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동국대 김상현 교수도 "최 교수가 논문에 발표한 자료 인용과 고증이 확실하다면 재론의 여지가 없이 <대승사론현의기>의 저자는 백제의 승려 혜균이 맞겠지만 김성철 교수가 지적한 오사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연식 교수와 플라센 교수가 발표한 이번 논문에 대해 일부 역사학자와 서지학자들은 '좀더 충분한 자료검토와 고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내 불교학자와 역사학자들은 '<대승사론현의기>가 원효의 <대승기신론소>보다 60여년 빨리 저술된 것에 대해서는 수긍'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노병철 기자 sasiman@buddhapia.com



2000년 부여 능산리 절터에서 발굴된 목간. '보희사'라는 절 이름이 선명하게 보인다.

일본 교토대에 보관중인 <대승사론현의기>중 '보희연사' 설명대목.



최연식 교수

능산리 발견 목간의 '보희사' 백제 사찰 '보희연사…' 와 일치



플라센 교수

599~658년 사이 저술 중국 '대승현론'에 영향 "日 승려가 왕에게 필사본 바쳐"

주요사찰 방재대책 조사보고서 발간

조계종, 30개 사찰 조사…개선방안 등 수록

사찰 화재를 막을 수 있는 최적의 대안 소방방재시스템은 뭘까.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은 사찰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대한 분석과 주요사찰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토대로 최적의 대안 소방시스템을 제시한 지침서 <주요사찰 방재대책 현황조사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조사 경과 및 사찰화재 현황과 사례 △주요사찰 방재대책 현황조사 결과 △해외사례 △대안설계 △방재대책 개선방안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사찰화재 현황과 사례에서는 1997년~2003년 간 발생한 각 지역별 사찰화재의 원인분석과 대책 및 향후 추진 과제 등에 대해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전국 주요 30개 사찰에 대한 방재대책 현황조사 결과에는 각 사찰에 있는 문화재 분포도와 소화전 배치 및 작동, 소방수 급수 시설 상태 등을 점검한 체크리스트, 조사결론 등이 제시돼 있다.

특히 대안설계에서는 그동안 피상적 사찰방재 정책제시와는 달리 직접적인 현장조사와 해외사례 등을 바탕으로 소방전문가들이 설명하는 소방설비 현황과 표준형 사찰 방재 시스템 구축, 방재 시스템 적용 사례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노병철 기자

'삼세실유설의 재고찰' 등 발표

보조사상연구원 법련사서 월례학술대회

보조사상연구원(원장 법산)은 10월 21일 송광사 서울포교당 법련사에서 제 72차 월례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동국대 황정일 강사의 '삼세실유설의 재고찰' 부산대 권서용 강사의 '다르마키르티의 이중적 인식에 대한 고찰' 등 2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황정일 강사는 논문을 통해 "세친(世親)이 설일체유부의 삼세실유설을 비판하는 기본적 입장은 <승의공계경>에 근거한 것으로 '본래 없다가 지금 있고 있다가 없게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이는 비록 찰나적 시간이지만 현재라는 시간을 인정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황 강사는 또 "유부의 존재론적 관점은 과거와 미래에 실유하는 법이 있다는 것이며 세친이 현재법만의 실유를 근거로 현재의 실유만을 주장했다면, 유부는 과거 · 미래법의 실유를 근거로 과거 · 미래의 실유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삼세(三世)가 실유한다는 것은 곧 삼세가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 된다"고 설명했다.

노병철 기자

'실크로드에서 한류까지' 문화교류 조명

한국학중앙연구원, 27일부터 세계한국학대회

세계 인문학 석학들이 제주도에 모여 열띤 토론의 장을 벌일 예정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원장 윤덕홍)은 10월 27일부터 10월 30일까지 제주대학에서 '문화교류의 역사와 현실-실크로드에서 한류까지'를 주제로 제3회 세계한국학대회를 개최한다.

종교 · 문화 · 언어 · 역사 · 사회 · 경제 · 민속 등 12분과로 나눠 진행되는 이번대회는 국내외 인문학자 200여명이 참석하고 발표되는 논문만도 150여 편이 넘는다.

특히 29일 열리는 종교분과에서는 한국학중앙연구원 김종명 교수의 '불교와 훈민정음' 원광대 김영두 교수의 '나옹 혜근의 선사상과 국제교류' 뉴질랜드 오클랜드대 이영희 교수의 '조선 후기 불교의 성격' 독일 튀빙엔대 디터 아이케마이어 교수의 '고대 이집트와 부처의 나라 인도 그리고 제주도에서의 모세 모티브' 네팔 트리브후반대 생커 타파 교수의 '동아시아 역사 속에서의 인도불교' 등 6편의 불교 관련 논문이 발표된다.

노병철 기자

※ 기사넘쳐 '박영준 교수의 과학기술과 불교'는 쉽니다.

역학(사주명리, 사주추명)의 시청각 교재 DVD 출시 – 궁중비법–

– 비매품 책자, 요점자료 동봉 –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1차분 완매로 인하여 2차분 한정제작. 인하된 가격으로 선착순 공급하게 되어 기쁩니다.」

어렵다는 역학을 누구나 쉽고 빠르게 한달 공부하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면서 보고 듣고 이해하며 필기하고 보충자료와 책자를 숙지하면 됩니다.
15만원 정도의 DVD 재생 기계를 구입하여 TV에 연결하여 보시면 됩니다.
역학(사주, 신수, 궁합, 택일, 애정, 재운, 관재, 자녀운, 기타 모든것)은 실제로 어려운 것이 아닌데 스승이나 책을 잘못 만나면 중도에 암흑의 망망 대해에 빠져서 평생 완성되지 않습니다.
순간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 DVD에는 필자가 20여년간 국내외 수백명의 제자를 역학에 도통하도록 철저하게 개인지도 해온 그대로를 총 26부(26시간)에 가감없이 실전 사주풀이 다수와 함께 담았습니다. 그동안 배움의 뜻은 있었으나 국내외 원거리사정, 수강순서 늦어짐, 고액의 수강료, 기존 업을 하는 관계로 알려짐이 부끄러움 등으로 기회를 기다리던 분들에겐 최고의 기회와 광명이 될 것입니다. 현재 본 DVD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국에 산재한 스님, 보살님, 현재 철학원을 운영 하시고 있지만 적중률이 낮아서 성업안되는 분, 퇴직후 장래직업으로 역학을 하실분, 초심자, 순수연구자, 학생 등 다양한 부류인데 전부가 하나같이 찬사와 감사의 메시지나 전화를 해 주시고 정말 제대로 된 배움의 길을 선택한데 대해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며 안도하고 행복해 합니다.
본 저자도 이 DVD교재로 인해서 수많은 분들이 진정한 역학적 개안이 그렇게 신속히 열려가는데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한글만 아시면 되며 학력과 관계없습니다. 쓰이는 한자는 22자이니 저절로 배워집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선택하세요. 아주쉽게 단기간에 완성하며 평생의 훌륭한 길잡이가 됩니다.
불교 교리로 부터 시작되는 이론의 장엄한 전개는 당신을 견성에 이르는 기쁨을 맛보게하고 스스로와 친지들의 사주를 감정하면서 그 적중됨에 탄성을 발하게 됩니다.

사주통달책임개인지도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완성 (국내외 제자 300명 왕성히 활동중)
■ 완전초보자도,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
■ 한달만에 모든 것 완전 통달됨 교육이수후 월 250만원 보장
■ 전화감정 대환영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 (회원은 특혜있음) 전국 최대 회원양성 교육기관임

– 남몰래 한달 공부하여 혜성과 같이 나타나십시오 –

◆ 구입금액 : 추명사 건립 보시금 90만원 (분납방법: 인도금 40만원, 한달후 30만원, 두달후 20만원) ※일시불은 80만원에 공급함
◆ 계좌번호 농협 704-02-341067(예금주 : 김금란), 대구은행 018-08-388350-001(예금주 : 이하림)

사단법인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총재 : 백운 성수, 부회장 도영(성수철학원장)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721-16 전화 053)255-4784, 256-4784 / 휴대폰 018-531-2237, 011-9583-6161

일주문



은해사 제1197돌 개산대재

영천 은해사 주지 법타 스님은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경내에서 제1197돌 개산대재 만등불사 대법회를 봉행한다. (054)335-3318~9



팔관회 및 수륙공천도대재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회장 대성 스님은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제7회 불교전통문화 팔관회 및 수륙공천도대재를 봉행한다.



송석구 前 총장 초청 강연회

부산 감로사 주지 혜총 스님은 10월 24일 경내에서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를 주제로 송석구 前 동국대 총장 초청 강연회를 열었다.



미국 동부승가회장에

미국 보스톤 문수사 주지 도범 스님은 10월 12일 미국 동부승가회 정기총회에서 3년 임기의 동부승가회장으로 추대됐다.



28일 괘불재 · 작은음악회 개최

해남 미황사 주지 금강 스님은 10월 28일 대웅전 앞마당에서 '괘불재, 그리고 작은음악회'를 개최해 템플스테이 등을 함께 진행한다. (061)533-3521

홍기삼 총장 은관문화훈장 수여

"문학연구 · 평론으로 발전에 기여"



홍기삼 동국대 총장(사진)이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은관문화훈장을 받았다. 은관문화훈장은 문화예술 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문화 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최고 등급의 문화훈장이다.

문화관광부는 "문학계에 등단한 이래 40여 년 동안 현실적 상황과 인문적 지성에 바탕을 둔 문학연구와 평론으로 문학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적을 높이 평가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10월 20일 서초동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거행됐으며, 홍기삼 총장을 포함해 임영방 前 국립현대미술관장, 국악인 한명희씨, 언론인 故 이규태씨 등 총 4명이 은관문화훈장을 받았다. **남동우 기자**

인사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입학처장=이상일 △대외협력처장=권동희 △국제교육원장=김일중 △학생상담센터장=김혜숙

"장학기금 확대에 최선 다할 터"

해인사승가대학 동문회 새 회장 정각 스님



"선배스님들이 하던 일을 이어 해인사동문회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월 20일 해인사 관음전에서 열린 해인사승가대학동문회 정기총회에서 제14대 회장으로 선출된 정각 스님(도솔암 회주 · 사진)은 "해인사와 해인사승가대학동문회의 발전을 위해 스님들의 많은 경책과 격려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특히 "10여 년의 발원으로 재단법인 해인동문장학회가 만들어졌지만 아직 모든 것이 빈약한 상태"라며 "보다 많은 장학기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각 스님은 조만간 부회장과 각 부장 차장 등 임원단을 꾸릴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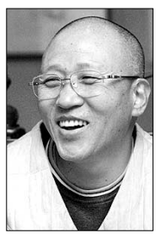
정각 스님은 통도사 벽안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스님은 총무원 문화부장 등을 역임한 뒤 현재 경봉장학회 이사, 도솔암 회주 등을 맡고 있다.

한편 정기총회에서 청우(등명낙가사 주지) 현응(해인사 주지) 재원(마하사 주지) 스님을 감사로 선출했다. 또 법혜(동국대 경주캠퍼스 정각원장) 현진(여의도포교원 주지), 무관(해인사 율원장) 스님이 해인승가상을, 도현 스님(재단법인 자비실천 이사장)이 공로패를 받았다. 해인사 강원 12명의 학인과 동국대, 중앙승가대, 해인사 율원에서 공부하는 4명의 스님들에게 장학금이 전달됐다.

해인사=배지선 기자

"해외 구호 · 협력사업 박차"

(사)로터스월드 공동의장 효림 스님



"국제협력사업을 보다 원활히 진행하고 좀 더 확대해 나가기 위해 실천불교를 '로터스월드'로 이름을 바꾸게 됐습니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 공동의장 효림 스님(사진)은 명칭 변경을 더 정진하겠다는 회원들의 다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로터스월드'가 해외 첫 구호 및 협력활동으로 캄보디아 시엠립에 건립한 교육 · 복지시설 BWC(Beautiful World of Cambodia)를 운영하는데 힘을 모아나갈 계획이다.

효림 스님은 "로터스월드는 국제NGO로서 제3세계에 대한 '자비 실천'을 목표로 하고, 캄보디아 협력사업을 장기적인 과제로 선정해 캄보디아 전역에 교육 · 복지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또 "50~60년대 서양 기독교 중심의 원조를 받으면서 우리 민족이 겪은 정체성 혼란을 그들에게 물려주지 않아야 한다"며 "제3세계의 전통문화를 살리는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봉영 기자**

불광사 '과학, 생명 그리고 불교' 강좌



서울 불광사(회주 지홍)는 10월 18일 보광당에서 창립 32주년 기념 강연 '과학, 생명 그리고 불교'를 개최했다.

첫 번째 강의는 이화여대 김성구 명예교수가 '물리학의 시공간과 불교'를 강연했다. 김 교수는 "상대성 이론은 세상만사를 사건의 연속으로 보는 불교적 관점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강좌는 '생명조작과 불교'(25일) '불교의 생명의료윤리'(27일) '불교 수행의 현대의 학적 접근'(11월 1일) '윤회와 무아의 현대적 이해'(3일) 등으로 이뤄진다. (02)417-2551

"어산 맥 이을 후학양성 주력"

조계종 최초 어장 동주 스님



조계종 최초로 어산어장(魚山魚丈)에 원명(동주 · 사진) 스님이 10월 16일 공식 임명됐다.

이번 어산어장 지정은 조계종 원로회의가 지난 8월 16일 회의에서 종단 어산어장으로 원명 스님을 지정해 달라는 청원을 총무원에 발의한데 따른 것이다.

어산어장은 어산종장(경력 10년) 지정후 2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스님.

원명 스님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어산의 맥을 잇는데 45년여 년 동안을 헌신해왔던 만큼 더욱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번 종단의 어장 임명을 계기로 앞으로 더욱 후학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원명 스님은 1961년 출가해 64년 벽응 스님과 송암 스님으로부터 범패의식작법 전 과정 일체를 사사받았다. 80년부터 사자암에 '범패의식 수련원'을 개설, 국내외에서 그동안 3000여 건의 영산재 및 수륙재와 예수재 등을 집전했다. **조용수 기자**

삼화불교 해인사 주지 정담 스님 진산식



대한불교조계종 삼화불교(총무원장 혜인)는 10월 15일 서울 돈암동 해인사에서 5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주지 진산식을 봉행했다. 이날 진산식에서 정담 스님이 해인사 새 주지에 취임했다. 해인사는 수개월에 걸친 도량정비 불사와 요사채 개보수 공사로 새로운 도량으로 탄생했다.

제3회 한강행복문화축제 개최



한강행복문화축제 조직위원회(위원장 김의정 · 조계종 중앙신도회장)는 10월 15일 서울 올림픽공원 88잔디마당에서 '제3회 한강행복문화축제'를 개최했다. '걷기 선'으로 문을 연 행사는 족구, 축구 등 체육대회와 노래자랑, 불자골든벨, 명랑운동회 등으로 진행됐다.

제11회 명원차문화대상 시상식



명원문화재단(이사장 김의정 · 사진 왼쪽)은 10월 16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제11회 '명원차문화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공로상은 사단법인 화공회 임화공(오른쪽) 이사장이, 학술상은 前 한국차인연합회 정학래 상임이사가 각각 수상했다. 시상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대원불교대학 추계체육대회



대원불교대학(학장 허경구)은 10월 15일 김천 봉계초등학교에서 2006학년도 추계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참가자 250여명은 족구, 피구 등의 경기의 경기로 화합과 애교심을 고취했다. 서울불교학과와 부산 대원불교대학이 공동우승을 했으며, 서울 불교상담심리치료학과가 응원상을 수상했다.

금강선원 제6대 이홍표 이사장 취임



(사)한국불교금강선원(총재 활안)은 10월 12일 청량리 진주웨딩홀에서 제6대 이홍표 이사장 취임 및 출판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활안 스님을 비롯해 300여 명이 참석했다. 취임식에 이어 <대승기신론강의> <세계법왕 일붕큰스님> 두 권의 출판 기념법회가 개최됐다.

우학스님의 빛깔있는 법문

국판 | 144쪽 | 전 5 권 세트 - 각권 5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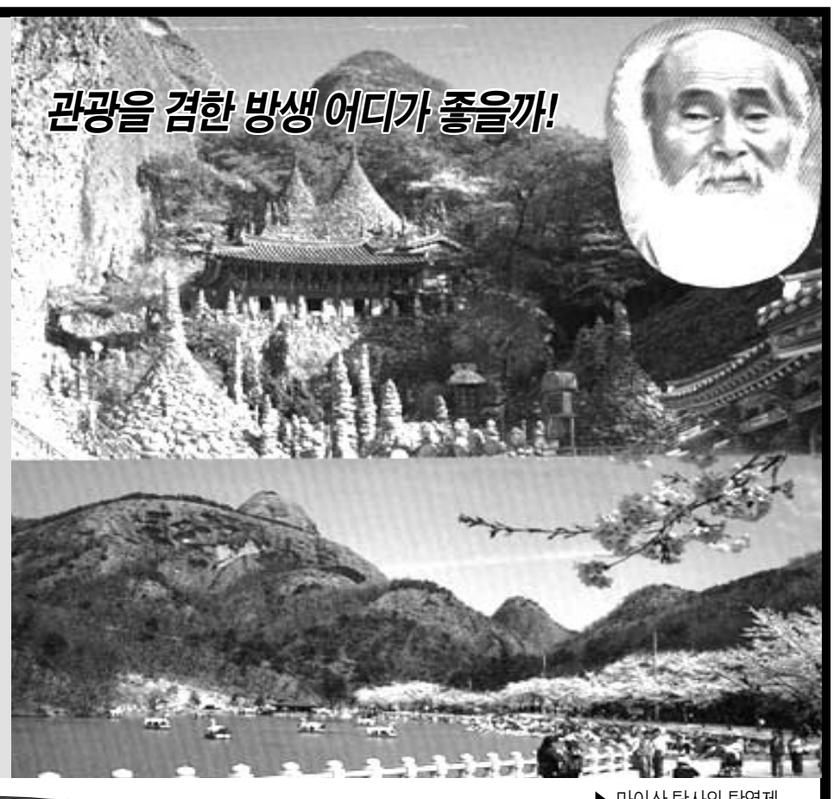


-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저자의 잔잔한 사자후
- 우리나라 최대 도심사찰의 성장 노하우가 들어있음.
- 삶에 희망을 주는 기도, 참선의 바른 법 제시

조계종 영남불교대학 · 大관음사 053) 474 - 8228

[부속출판사 도서출판 좋은인연 053) 475 - 37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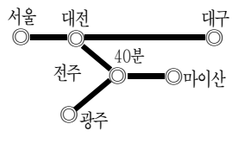
신비의 마이산 탑사 탑영제 방생



▶ 마이산 탑사와 탑영제

관광과 방생을 한곳에서!

기묘한 산이 있어 좋고, 불가사의한 탑이 있어 신비스러운 곳,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탑영제 방생기도



진안 마이산 탑사

063)433-2900,0303
432-0652,0072



불자 세상보기

김 징 자
칼럼니스트

철새 오고 단풍 드는데…

전에 없던 가을 가뭄과 더위 탓으로 가장 먼저 현란한 색채들을 뽐낼 올해 강원도 단풍이 곱지 않을 것이라 한다. 하지만 좀 늦기는 해도 이미 백두대간의 높이 솟은 산봉우리에서부터 서서히 물감 질이 시작되었다.

짙거나 혹은 옅은, 붉은색 주황색 노랑색으로 수놓아지는 단풍은 '고독한 가을'이란 이미지를 여지없이 날려 버린다.

사람들은 붉은 단풍에 고무되고 주황이나 노랑색 단풍 색깔에서 위로와 안정을 찾는다고 색채 심리학자들은 말하지 않는가. 단풍의 과학으로 들어가면 이야기는 또 달라진다. 냉혹한 과학은 인간의 정서나 감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노랑이나 주황 등의 단풍 색깔은 잎 속의 엽록소가 분해되면서 남아 있는 색소가 공기에 노출될 때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만 붉은 색의 경우 전혀 다른 과정을 밟을 뿐 아니라 다른 종의 식물을 자라지 못하도록 독을 분비하는 이른바 '아름다운 킬러'라고 과학자들은 이름 붙인다. 붉은색 단풍나무의 경우 변화하는 계절에 적응하려고 사투를 벌이는 과정에서 생성한 안토시아닌(Anthocyanin)성분을 땅속으로 스며들게 하여 다른 수종의 생장을 막아버린다는 것이다.

한편 가을더위라지만 고니 기러기 시베리아 까마귀 등 겨울 철새들도 어김없이 찾아오기 시작해, 텃세 심한 텃새인 까치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배타적 기질이 심한 까치는 철원 파주 쪽으로 날아오는 덩치 큰 시베리아 독수리의 눈도 파먹어 치운다는 텃새다. 동해안을 따라 내려오는 머리 좋은 시베리아 까마귀도 예외가 될 수 없는지 벌써부터 그 행로를 두고 곳곳에서 티격태격 하는 모습이 관찰된다. 정서적 단풍이든 과학적 단풍이든 강원도 고성 금강산 끝자락에 해당하는 남한의 천년고찰, 금강산 건봉사에도 그 단풍은 이미 시작되었고 까치와 까마귀의 기(氣)겨루기도 목격되고 있다.

신라 불교 도입 초기에 가장 먼저 창건된 사찰 가운데 하나인 건봉사는 지금 휴전선과 맞닿은 민통선 안에 위치한 몇 안 되는 사찰 가운데 하나다. 분단의 현실을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 규모로도 한국 최대 사찰이었던 건봉사의 역사를 보면 전란과의 악연과 폐허가 쓸쓸하고 슬프다. 사찰 입구에 사명대사 좌상을 크게 조성해 놓은 것을 보면 사찰과 호국불교와의 인연도 짐작케 한다.

아도화상, 도선국사, 나옹선사 등 시대마다의 덕망 높은 대덕들과의 인연은 물론, 임진왜란 때 사명대사가 일본으로 건너가 통도사에서 왜군이 가져 간 부처님 진신 치아 사리를 거두어 이곳에 봉안 했다는 사실도 예사롭지 않다. 오래전부터 폐허위에 시작된 불사가 지금은 제법 규격을 갖추었다. 북한 금강산을 다녀 온 관광객들이 이곳을 둘러서 가기도 한다.

분위기는 참으로 평화스럽다.

최근 북한의 느닷없는 핵실험은 그 평화스러움에 얼마간의 그늘을 드리우기 시작했다. 철새들의 비상을 보는 텃새 까치의 긴장감과는 성질이 다르겠지만, 이곳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긴장감을 주고 있음에는 틀림없다.

왜란이후 사명대사께서 부처님 진신치아 사리를 왜 이곳에 안치하셨을까? 분단의 가장 민감한 곳에 자리 잡은 건봉사의 오늘을 내다 보셨을까?

건봉사의 평화는 곧 이 땅의 평화라는 생각이 든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불교계 국제협력단체들의 활동이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지구촌공생회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한국국제협력단(KOICA) NGO로 등록하면서 한국불교계의 국제협력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현재 KOICA에 등록된 국제협력단체는 68곳. 이 가운데 불교단체는 앞의 두 단체를 포함, 한국JTS와 진각복지재단, 이웃을돕는사람들 등 모두 5곳이다. 이밖에 실천불교전국승가회가 운영하는 사단법인 실천불교가 원활한 국제 교류활동을 위해 'Lotus World'로 이름을 변경했다.

타종교에 비하면 아직 미미하지만, 불교계가 국제협력활동에 적극 나섰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그동안 불교계에서는 각 사찰에서 벌이고 있는 '불사(佛事)'에 대해 자성의 목소리가 높았다. 사찰의 창건이나 개 · 증축 등 외형 위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불교계가 지구촌 공동의 평화와 행복을 도모하는 것은 새로운 영역의 불사를 개

지구촌 곳곳에 자비를

척했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예불 때마다 사물(四物)을 울리며 하늘과 땅과 물속의 모든 중생에게 보내던 자비심을 지구촌 전역에 본격적으로 실천하는 길이기도 하다.

불교계의 해외협력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선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우선, 기금 조성을 위한 후원을 이끌어내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협력활동에 대해 불자들의 관심을 높여야 한다. 미꾸라지나 자라를 놓아주는 것보다 더 의미 깊은 방생임을 인식시켜야 한다. 둘째로는 현지 지원 활동에 적합한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다. 봉사 영역의 전문적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양성하는 것은 물론, 대상 국가의 언어와 사회, 문화를 배우고 익혀야 한다. 셋째로는 이 모든 활동과 더불어 수승한 부처님 법을 함께 전한다는 의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 가장 효과적인 전법은 '모델링'이다.

현지인에게 불자로서 여법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저절로 교화활동이 될 것이다. 혹여 도움을 베푸는 입장이라고 하여 우월감을 표시하거나 심지어 현지인을 무시한다면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신행(信行)'을 겸비한 불자상이 바로 여기서 필요하다.

■ 권경희(불교상담개발원 사무처장)

이렇게 들었다 스타마케팅

온갖 유위(有爲)의 법은 꿈같고 그림자 같고 꼭두각시 같고 거품 같으며 이슬 같고 번개 같으니 이러한 것으로 관찰하여라. 〈금강경〉

100만부 이상 팔려 올해 베스트셀러 반열에 오른 〈마시멜로 이야기〉가 대리번역 논란에 휩싸이면서 스타를 이용한 상술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책 구매자들이 출판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얘기가 나오더니, 급기야는 역자로 이름을 올린 방송인이 비난여론을 이기지 못하고 '정든 방송'을 그만두고야 말았다.

이번 사건은 스타마케팅의 부정적인 한 단면을 보여준다. 대중매체 발달로 탄생한 '스타'를 마케팅에 이용하는 것은 이미 보편화돼 있다. 우리가 TV에서 매일 보는 광고가 대표적이다. 스타들은 TV에 출연해서 상품들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시청자들에게 강요한다. 〈마시멜로…〉의 극단화된 스타마케팅은 그대로 적중, 놀라운 판매고를 올려 효과를 방증했다.

〈마시멜로…〉를 펴낸 출판사와 관계자들이 사과의 뜻을 밝히고 있지만 네티즌들의 비난은 그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스타가 빚어내는 허상과 상품을 혼동한다. 그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들은 스타를 이용하는 상술에 무너진다. 마케팅뿐 아니다. 허상이 지배하는 현상은 정치 분야에서도 나타난다.

허상에 길들여져 그럭저럭 지내다보면 가치기준과 판단기준은 어느새 내가 아닌 타인에 맞춰지고 나는 사라진다.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자신마저 속이게 만든 상(相)에 대한 집착. '깨달음'까지는 아니더라도, 헛된 것에 시달리며 살지 않기 위해서라도 제거해야할 적인 것은 분명하다.

■ 박익순(취재부 기자)

기고 전통 화엄경 해석의 문제점



각품에서 '전체 화엄' 봐야 오류없어

〈화엄경〉은 대단히 난해한 경전이라 해석이 쉽지 않다. 그래서 많은 화엄의 대가들이 분류와 해석에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다. 필자가 보기에 전통 화엄경 해석의 가장 큰 문제점은 화엄을 '차제법문(次第法門)으로 해석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 때문에 광활한 화엄이 왜곡되고 화엄의 뜻을 제대로 전달 못하는 우를 범하는 되었다고 본다.

〈화엄경〉의 전통적 해석을 보면 〈화엄경〉은 모두 일곱 장소에서 설해진다. 즉 지상에서 천상으로, 다시 지상의 일곱 곳에서 설해지며 여기에 많은 의미를 부여한다. 이러한 해석은 경을 이해하는데 대단한 모순을 자아내는데, 이런 식으로 보면 화엄은 당연히 '차제법문'이 될 수밖에 없다. 지상에서 천상으로, 다시 지상으로 오신 뜻을 헤아리는 과정에서 돈오(頓悟) 원교(圓敎)의 가르침이 훼손되는 것이다.

또한 역사적으로도 〈화엄경〉은 집성경전(集成經典)이라 지상, 천상, 다시 지상의 개념을 도입할 때 다소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물론 이런 무리를 보완하기 위해 화엄경 편찬자들은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래도 그런 보완은 태생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전통 화엄 해석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경전의 각 품(品)을 화엄경 '전체적 흐름이나 관점'에서 보지 못하고 '따로' 각 품의 의미를 부여하고 찾아내려고 한 것이다. 그 결과 원래 '함께 존재하는 화엄'은 '따로 존재하는 화엄'으로 변해 버렸다. 각 품이 '완전한 가르침'이 되지 못하고 다음 장으로 이어지는 '하위 개념'이 된 것이다.

대표적 사례가 십신을 일으키고 십주에 머물며 십행, 십회향, 십지를 거쳐 등각, 묘각에 올라가는 52위의 화엄 수행단계 가르침이다. 이런 관점에서는 십신이 십주보다 못하며 십회향 또한 십지보다 당연히 아래이다. 십회향까지를 범부의 경지, 십지 이후를 성자의 경지로 보는 견해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으로 생각한다. 〈화엄경〉이 성립될 때도 그러하였고 집성 편찬된 현존 경전 자체에도 52위 간에 조금의 차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닦아서 상위 지위에 오르는 점오법, 차제 법문'이 생긴 것은 혹시 이런 해석 때문은 아닐까.

〈화엄경〉은 처음 생겨날 때부터 각 품이 그 자체로 '완전한 경전'으로 태어났다. 우리는 각 품에서 '전체 화엄'을 보아야 한다. 필자가 보는 관점에서는 각 품이 내용의 많고 적음을 떠나 모두 화엄의 근본 가르침을 '그 자체'로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간단한 사실을 전통 화엄 학자들께서는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 송구스럽지만 필자의 견해다. 십주 가르침에는 십지 가르침이 모두 담겨 있다. 십지 또한 마찬가지라, 초지(初地)인 환희지가 마지막 십지인 법운지(法雲地)보다 조금도 못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화엄을 '차제법문'으로 이해하는 탓에 초지에서 십지를 보지 못하고 초지가 십지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본래 원융무애하고 하나에서 모두를, 모두에서 하나를 보는 통합적이며 모든 세계를 두루 회통하는 화엄이, 점차적이고 개별적, 차별적으로 존재하는 옹색한 세계에 갇히게 되는 것이다. 이런 해석이 화엄의 '한계'를 초래하고, 특히 '실천' 부분에서의 미흡함은(종래 화엄학자들은 '보현행원'을 보지 못하고 오로지 '관법'으로만 화엄수행을 확립하려 했음), 선종을 비롯한 많은 종파들의 도전을 받아 결국엔 '교학'만 앞세우는 실천이 없는 '알음알이', 알맹이 없는 '지해(知海)의 가르침'으로 전락하고 만다.

그러한 비판과 전통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이것은 필자가 볼 때 불교의 모든 가르침을 원융회통하는 '유일한 가르침' 인 화엄의 비극이다. 특히 모든 방향이 '우주'와 '생명'의 문제로 흐르는 눈부신 21세기에, '우주'와 '생명'을 설하는 부처님 가르침인 '화엄'이, 유일하게 우리 모든 생명이 '함께'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원만무애한 그 '화엄'이, 찬란하게 꽃피는 대신 천대받고 마침내 창고에 묻혀 버리는 암담한 현실은, 참으로 아쉬운 우리 모두의 아픔이다.

■ 이종린(홍익소아과 원장)

'현대' 만평 심 민 섭



氣功지도사 과정 수련생모집

3박 4일 코-스 61기 : 11월 16일 - 19일 (선착순 20명)
62기 : 12월 14일 - 17일

골반을 모르고 병치료를 논하지 마세요
만병의 원인이 골반, 척추의 변형인데 근본을
놓아두고 어찌 병을 치료한다 할 수가 있습니까?
※상기증에 시달리시는 스님, 쉽게 해결됩니다.

수련내용

천심양기법 - 소주천속성법 - 천지관기법 - 복부진단법 - 좌골신경통소통법
기륙자동법 - 지기상달법 - 진동공(사기배출법) - 온냉교구법 - 견비통오십견대침요법
임.독맥소통법 - 의념력수련법 - 불문진단법 - 혈해혈소통법 - 편두통해소법
순환계소통법 - 천기하달법 - 적취(만병의원인)해소법 - 남성학강좌 - 제신공
배설계소통법 - 전신개혈법 - 안면신경마비해소법 - 정맥류해소법 - 양생검지장

※ 구병시식, 재 많이 지내는 스님들 중 사기를 많이 받아 몸이 냉해지고, 이유없이 아프고 얼굴이 검어지신분, 얼굴이 검어진것은 사기에 빙의된 것입니다.
손발이 차고 하복부가 냉하신분. 몸에서 찬기운이 나오는 분은 뼈속에서 냉기가 빠집니다.
환자를 치료하는 분들은 氣수련으로 사기를 배출할 수 있습니다.

※ 氣치료법 배워서 사업하실분 모심. 천일기공 책 : 10,000원

14년전통 천일氣문화센타 http://www.chgg.co.kr
소백산 수련원 : (054)637-9810 서울본회 : (02)3436-3206
주소 :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구구초등학교자리)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 "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운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1-8413

인도인 10만명 불교로 개종

'인도 북부 델리로부터 남부 하이드라바드에 이르기까지!'

최근 인도 서부 구자라트 주 정부가 불교와 자이나교를 힌두교의 한 종파로 집어넣는 종교법을 개정하자 인도불교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본지 588호 16면 기사 참조), 불교 개종의 물결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같은 개종 움직임은 올해 불가촉 천민 출신으로 초대 법무장관에 올랐던 B.R 암베드카르의 불교도 개종 50주년을 맞아 인도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개종 행사로 이어지고 있다.

'인도불교의 아버지' 암베드카르를 추모하는 '암베드카 2006(ambedkar2006.blogspot.com)'에 따르면, "전직 국회의원이었던 KSR 무르티의 주도로 10월 14일 암베드카르 기념상 앞에서 개최된 인도 하이드라바드에서의 불

암베드카르 개종 50주년

印 전역서 대규모 행사

교 개종식에서 10만명이 개종했다"며 "고(故) 암베드카르 박사의 개종 50주년인 이날 개종식에는 올해 들어 참석인원이 가장 많이 참가했다"고 부디스트채널이 10월 9일자로 이 블로그 내용을 인용해 전했다.

또한 인도 동북부 지역의 나구푸르에서도 같은 날 열린 '세계종교자유의 날' 행사에서 수만명의 불가촉 천민들이 개종식에 참가했다고 영국 일간지 인디펜더트 인터넷판 10월 13일자로 보도했다.

특히 하이드라바드 개종식에서는 남아시아의 근본불교권인 인도에서 처음으로 중국 선사가 초청됐다. 불교일간지 '르엔찌엔푸바오(人間福報)'지 10월 16일자에 따르면, 대만 불광산사의 성윈(聖雲) 스님은 이날 개종식에서 "인도는 부처님의 조국이며 모든 불제자가 찾아가야 할 곳"이라며 "오늘 개종한 인도불자들은 자기 불성을 발현하고 불교의 자비, 평등, 상호평화정신을 중히 끌어안아 인도 전역을 기쁨과 융화의 땅으로 만들라"고 법문했다.

김철우 기자



가로 11㎞, 세로 5㎞에 이르는 거대한 유적지 나란다 대학터. 중국의 현장 법사, 티베트불교의 창시자 상따라끄쉬따 스님이 공부했던 곳으로, 대승불교의 모태가 된 곳이다.

세계 최초 불교대 인도 나란다대학

복원 움직임 '꿈틀'

세계 최초 · 최대의 불교대학이었던 나란다 대학이 복원된다.

최근 싱가포르와 일본 정부가 잇따라 인도 비하르주에 위치한 나란다 대학의 재건에 강력한 지원의사를 밝히는 등 대학 복원의 움직임이 '꿈틀' 거리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이 일제히 전하고 있다.

인도 비하르 주의 일간지 '파트나 데일리(Patna Daily)'는 "상가포르 대외담당 국무장관 바라지 사다쉬반(Balaji Sadashivan)이 9월 26일 파트나에서 수석장관 니티쉬 쿠마르(Nitish Kumar)를 만나 나란다 대학의 잃어버린 영광을 되살리는 사업과 비하르 주에 있는 불교 유적의 전반적인 개발에 대한 싱가포르 정부의 관심을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또 "싱가포르 정부가 보드가야, 라즈기르 및 나란다를 포함해 비하르 주에 있는 불교유적 개발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기를 희망한다"며 "오는 11월 18개 국가에서 참가하는 나란다 대학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의 복원 지원 보도도 이어지고 있다. 인도 IANS 통신은 10월 6일, "인도 주재 일본 대사 야스쿠니 에노키가 이달 말 이틀 일정으로 비하르 주를 공식 방문해 나란다에 대학교 설립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한편 비하르 주에서의 투자 가능성을 탐색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복원 비

싱가포르 · 일본 정부, 잇따라 투자 의향 밝혀

印 주정부 "긍정적"… 일부선 "관광용" 의구심

용으로 45억 루피아(한화 4억5천만원) 투자 계획을 밝혔으며, 재건 범위도 나란다 전통 교육방식 재현까지도 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처럼 싱가포르와 일본 정부가 나란다 대학 복원 문제에 관심을 갖는 이유와 배경에 대해 현지 언론들은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 불교성지 복원의 순수한 의미를 비롯해 비하르 주 수석장관 니티쉬 쿠마르가 고향인 나란다 지역을 발전시키려고 외자를 유치하겠다는 의도라는 의견 등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현지 언론들은 싱가포르 국무장관 사다쉬반이 '파트나 데일리' 지에서 밝힌 "전문가팀이 비하르 주를 방문해 관광, 무역 등과 관련된 싱가포르 정부의 역할을 탐색하겠다"는 말을 놓고, 싱가포르와 일본 정부의 나란다 대학 복원에 의구심을 품고 있다. 현재 한국 관광업체 담당자의 말에 따르면, 한국에서만 나란다 대학을 찾는 연간 관광객 수가 1만여 명에 달하며, 전세계적으로는 수십만명이 이곳을 관광한다고 밝혔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담마난다 스님 후임에 담마라타나 스님 취임

회교국 말레이시아에서 포교에 진력해 오다 최근 입적한 담마난다 스님의 후임으로, 담마라타나(Dhammaratana, 이하 라타나) 스님이 10월 8일 쿠알라룸푸르 브릭필드에 있는 마하 비하라(Maha Vihara)의 주지로 취임했다.

말레이시아 영문 일간지 '스타' 지는 "8월 31일 세랍 87세로 입적한 담마난다 스님에 이에 라타나 스님이 뒤를 잇게 됐다"고 10월 9일자로 보도했다.

라타나 스님은 '스타' 지와의 인터뷰에서 "자비심이 가득한 젊은 세대들을 육성하는 데 중점을 기울였던 은사스님의 지도력을 충실하게 따를 것"이라며 "앞으로 청소년과 부모들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활동을 조직하겠다"고 말했다.



말레이사아 담마난다 스님의 뒤를 이어 마하 비하라의 주지가 된 담마라타나 스님이 어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다

라타나 스님은 1948년 7월 스리랑카에서 태어났으며, 1980년 3월부터 마하 비하라에서 주석해왔다. 김철우 기자

이스라엘에 '불교센터' 개원

극동아시아와 교류 목적

유대교의 성지인 이스라엘에 '불교연구센터'가 유일하게 개원한다.

말레이시아 인터넷 뉴스포털 부디스트채널은 "이스라엘에 전례 없이 '불교연구센터(ICSB)'가 문을 열어, 불교연구의 불모지인 중동지역에 희망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이스라엘 현지 불교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현재 조직화 단계인 이스라엘 불교연구센터는 '중동에 극동을 소개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비영리 단체로 종교 및 문화교류연구협회다.

김철우 기자

이병두와 함께 읽는 오늘의 세계불교



이스라엘에 부는 불교 바람

흔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유대교' 신자들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유대인들은 거의 모두가 유일신교인 유대교 신자이고, 이스라엘에서는 전반적으로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배타적' 분위기가 지배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보복'으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의 대 아랍 · 팔레스타인 정책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이스라엘에도 자비의 가르침이 점차로 퍼져나가고 있다. 법정 스님도 인도 기행중 '송광사 여름 수련회에 참가했던 이스라엘 사람을 만나서 반가웠다'고 <인도기행>에서 말한 적이 있고, 외국의 조용한 사찰을 찾아 참선 수행을 하며 자기 연마를 하는 이스라엘인들이 의외로 많다는 소식도 자주 듣는다.

적하기 시작하였다.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만이 옳다고 여기고, 신(神)이 자신들 편에 있다고 믿고 있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모든 사람들이 실상은 똑같은 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교육 기회는 예전 어느 시기에 비해 넓어졌지만, 우리들은 지극히 원시적인 신앙 행태로 뒷걸음치고 있습니다."

스님은 이어서 '윤회에 대한 믿음'과 불교의 '외부에 열린 성격'이 근본주의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스님은 또한 수강자들의 유대교 신앙과 스님의 가르침 사이의 충돌 가능성을 일축하였다. "완벽한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참선 수행을 해서 마음을 고요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불교수행모임서 텐진 팔모 스님 초청 강연

종교 배타성 벗어나 평화로운 미래 열렸으면

10월 11일 이스라엘의 <에루살렘 포스트(Jerusalem Post)>지 리안 나델(Ryan Nadel)기자는 최초의 서양 출신 비구니 텐진 팔모(Tenzin Palmo) 스님의 활동을 소개하였다.

이 기사에 따르면, 불교 수행을 하고 있는 개인들의 모임인 '이스라엘 법우회(The Dharma Friends of Israel)'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법사를 초빙해서 법문을 듣고 참선 · 명상 지도를 받아왔는데, 지난 9월 텐진 팔모 스님을 초청해 3주일 동안 이스라엘 전역에서 불교 강의를 듣고 참선 지도를 받았다.

팔모 스님은 "저는 런던의 유대인 거주 지역에서 성장했습니다"며 수강자들과의 가까운 인연을 강조하며 편안한 어조로 강의를 시작하였다. "어린 시절, 저는 제가 점점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성경>과 이슬람의 <코란>을 읽어보려고 애를 써보았지만, 제가 유일신에 경도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출가에 이르기까지의 체험과 출가 이후의 수행 과정을 소개한 스님은 '근본주의'의 문제점을 지

이스라엘 방문 동안 이루어진 텐진 팔모 스님의 법문은 주로 참선 명상의 위력과 중요성에 집중되었다. 스님은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하였다.

"우리들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흔들리며 헤매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참선 명상은 2단계 수행과정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마음 그 자체의 본성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오랜 역사 동안 선민주의(選民主義)적 종교인 유대교의 가르침에 길들여진 유대인들이 수천 년 이상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도 민족 정체성을 유지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종교의 힘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독선적 · 배타적 종교가 아집이 되어 주변 국가 · 민족과 평화롭게 살아가는 길을 막고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됐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아집의 주인공과 희생자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 것 같다. 이스라엘에 불교 공부를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조직되고, 스님들을 초청해 정기적으로 설법을 듣고 참선 지도를 받는다는 이 사실이 한 가닥 희망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 자유기고가

INVITATION

제4회 사회복지학술세미나 청소년을 위한 종교계 사회복지의 실태와 과제

초대의 말씀

귀의 삼보하옵고,

국화향기 가득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귀하의 삼도 따사롭고 풍요롭기를 기원 드립니다. 재단법인 청호불교문화원 부설 불교복지문화연구소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종교계 사회복지의 실태와 과제**"란 주제로 아래와 같이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공사다망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시어 국가 장래를 걸머질 청소년들이 잘 육성되고 보호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여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일시 : 2006년 11월 03일(금) PM 1:00~6:00

♠장소 : 한국언론재단 프레스센타 19층 기자회견장 (서울시청 뒤편)

행사프로그램

제1부

사 회 허안순 / 수화 해성스님

등 록 13:00~13:30

개회식 13:30~14:00
개회사 : 이종욱 이사장/ 재단법인 청호불교문화원 이사장,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 변호사
축 사 : 현성 큰스님/ 대한불교청소년교화 연합회 총재, 전 청소년 단체협의회 회장
인사말 : 김용택 소장/ 불교복지문화연구소 소장,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기조강연 14:00~14:20
한국 청소년복지정책의 현황과 방향
- 김성이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 한국사회복지학회 회장, 전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

특별강연
일본 불교아동청소년복지의 발전과 시사 14:20~14:40
- 박광준 교수/ 일본경도 불교대학 사회복지학부
미국 종교계의 청소년복지사업 실태와 방향 14:40~15:00
- 이은주 교수 /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휴식 15:00~15:10

제2부

사 회 : 황진수 한성대학교 교수/ 전 행정대학원 원장
발 표 1 : 기독교계 청소년복지의 실태와 과제 15:10~15:40
김종생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사회봉사부 총무
지정토론 : 노충래 교수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사회복지학과 15:40~16:00
일반 참석자 질문 및 답변
발 표 2 : 가톨릭계 청소년복지의 실태와 과제 16:00~16:30
김경히 신부 / 전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부회장 신부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 전공 박사과정
지정토론 : 김정미 수녀 / 성심디딤돌 청소년쉼터 소장 16:30~16:50
일반 참석자 질문 및 답변
발 표 3 : 불교계 청소년복지의 실태와 과제 16:50~17:20
박경일 교수/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지정토론 : 김용철 교수 / 중앙승가대학교 17:20~17:40
일반 참석자 질문 및 답변
종합토론 김용택 교수/ 불교복지문화연구소 소장,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7:40~18:00
폐 회 18:00~

재단법인 청호불교문화원 이사장 이종욱 합장
부 설 불교복지문화연구소 소 장 김용택 합장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98-12
재단 : Tel. 02)517-3052 / FAX. 02)542-0519
연구소 : Tel. 02)517-3045 / FAX. 02)515-3021
홈페이지 : http://www.chbuddha.com

현대불교 buddhanews.com
서기 2006년 10월 25일 수요일 (주간) 제 600 호



홍성 용봉초등학교 파라미타 어린이들과 함께 웃고 있는 김주석 선생님. 김 선생님은 두개의 보물을 가지고 있다고 늘 자랑한다. 하나는 부처님 가르침, 그리고 다른 하나는 부처님을 닮아가는 아이들.

아이들과 뒹굴며 '보물'을 캡니다

용봉초등학교 김주석 선생님

'누군가 내 삶을 흘겨볼지도, 또 손가락질을 할지도 모른다. 그래도 나는 내 길을 간다. 누군가 무엇인가에 인생을 걸듯이, 나도 내 길에 모든 것을 쏟았다. 나는 그 길을 걸어왔고, 그 길이 끝나는 곳까지 걸어갈 것이다. 후회는 없다. 내가 선택한 길이다. 있다면 더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일 뿐.'

이순(耳順)의 나이 60에 서서 이런 '독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충남 홍성 홍북면의 작은 시골학교 용봉초등학교. 전교생이래야 79명에 불과한 시골의 작은 학교다. 이 학교에는 불교청소년 단체인 파라미타 회원이 10명이나 된다.

용봉초등학교 파라미타 분회가 창립된 것은 지난해 5월. 시골학교의 파라미타 분회를 눈여겨보는 사람도, 또 그럴 이유도 없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불자 교사가 평생을 가꿔온 신념과 원(願)이 담겨 있다.

용봉초등학교 김주석(60) 교사. 무뚝뚝한 표정에 마른 얼굴, 게다가 60줄에 들어선 나이. 어디로 보나 어린 학생들이 호감을 가질만한 외모는 아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파라미타 특별활동 수업시간에 만난 용봉초등학교 학생회장 재민(13 · 6년)이와 홍성군 영재인 재흠(13 · 6년)이는 "꼭 우리 할아버지 같아서 좋아요"하며 씩 웃는다. 붓글씨를 잘 쓰는 소연이(12 · 5년)가 "불교를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예절도 많이 가르쳐 주세요"라고 말하자, 옆에 있던 종선이(11 · 4년)와 종열이(9 · 년) 형제는 "맞아요, 맞아요"하며 거든다. 그 사이에 교회에 다닌다는 현정이(11 · 4년)는 "동생(1학년) (파라미타에)데리고 와도 돼요?"하며 선생님에게 질문을 던진다.

교직에 몸담은 지는 올해로 37년째다. 이제는 교감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이 더 어울릴 나이. 그렇지만 '계급'에는 관심 없다. 오로지 아이들과 함께 뒹굴며, 부처님을 '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천직'으로 여겨왔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작년 3월에 용봉초등학교로 전근을 와서 바로 파라미타 분회를 만들었습니다. 별다른 어려움은 없었어요. 전에 홍남초등학교에서 파라미타를 만들 때보다는 쉬웠죠."

파라미타는 도 단위의 지부, 시 · 군 단위의 지회, 학교나 사찰 단위의 분회로 조직돼 있다. 그러나 충남에는 지부가 없고, 홍성군 지회도 없다. 그런 상태에서 홍남초등학교 분회와 용봉초등학교 분회가 설립돼 있다는 것은 특기할만한 일이다. 지부나 지회 없이 분회가 설립됐다는 것은 조직적인 지원없이 누군가가 피나는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1996년 파라미타가 창립되고 곧바로 홍남초등학교에 분회 설립을 추진했습니다. 파라미타 분회가 설립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파라미타의 특별활동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분회 설립 안내장이 나가니까 학부형들이 종교문제로 이의를 제기해왔어요. 당시 교장선생님이 많은 우려를 하셨지만 제가 학부형들을 설득하겠다고 밀어붙였죠. 그래서 학교 밖에서만 활동하는 것을 전제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교직 몸담은지 37년째
옮기는 곳마다 파라미타 설립
홍성에 만해회관 설립 추진
초등생 토요법회도 지도
"대안학교 설립해 포교할 터"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굴하지 않았다. 아니 반드시 해야 한다는 '책임감' 같은 것이 있었다. 김 교사가 파라미타에 이토록 집착한 이유는 무엇일까.

불심이 깊었던 선친과 대전고 재학시절 학내 불교동아리 '사유수' 활동을 하면서 가르침을 받았던 충남문인협회장을 역임한 김대현 시인의 영향이 컸다. 학창시절에 만난 불교가 얼마나 소중한 인연인가를 느끼게 해 준 두 분이다.

교사로 재직한 지 11년이 지난 1988년 홍성읍내에 홍주불교포교원이 생겼다. 두 분과의 인연을 이을 기회가 온 것이다. 그 길로 홍주포교원을 찾아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다고 요청했다. 이렇게 2년 간 불교학생회 아이들과 뒹굴었다.

그 뒤 파라미타 홍남초등학교 분회를 설립하고 나서는 만해회관 건립에 모든 것을 쏟아 붇기 시작했다.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만해회관 건립 필요성을 주장했다. "혼자서 쓸데없는 짓을 한다"는 식의 반응도 적지 않았지만 개의치 않았다. 만해 스님의 사상이야말로 청소년 교육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에서였다.

충남도지사와 홍성군수에게 건의서를 제출하고 군 의원과 조계종 총무원, 파라미타협회에도 연이어 요청했다. 몇 년 간을 방학 때마다 만해 스님 관련 자료를 모으러 전국을 돌아다니기도 했다. 그렇게 지금까지 온갖 노력을 기울였지만 얻은 것은 없다. 하지만 실망하지 않는다. 그 길이 자신의 길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오는 11월부터는 예산 향천사 초등학생 토요법회를 지도한다. 한동안 활동을 하지 못했던 향천사 초등학생 법회가 재개된다는 소식을 듣고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다. 마음 같아서는 모든 사찰에 어린이 · 학생 법회를 만들고 싶다.

"보물이 묻혀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 교사에게 보물은 아이들과 부처님 가르침이다. 부처님 가르침은 마음을 아는 것이고, 아들에게는 마음을 알게 하는 인성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소신이 확고하다. 그래서 김 교사는 "인성은 마음"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한다.

"부럽죠. 불교로 아이들 인성교육을 하고 계신 모습이 말이에요."

김보경 교사(38 · 영어 체육 음악 교과전담)는 자신(개신교)과 종교는 다르지만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아이들을 가르치는 김주석 교사에게 존경을 표한다.

이근정 교사(37 · 보건)와 한상미(29 · 급식담당)씨도 "교육철학이 확고하신 분"이라고 말한다.

"막내아들이 스님입니다. 기뻤죠, 부처님 뜻을 따르는 아들이 있다는 것이. 여건이 닿는다면 대안학교를 해보고 싶어요. 일반 학교보다는 부처님 가르침을 더 많이 전해줄 수 있을 테니까요."

지는 해가 더 붉은 법. 나이는 어느덧 황혼에 접어들었지만 교육에 대한 열정은 청춘이다. 용봉초등학교 구석구석에 걸려 있는 김주석 교사의 열정. 이곳 아이들은 그 열정의 꿈을 먹고 자라고 있다.

홍성/글=한명우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좋은 인연입니다



현대불교신문 창간 12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안국선원

선원장 수 불

www.ahnkookzen.org

■ 부산 :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35-14 (지하철 1호선 두실역 8번 출구)
(051)583-0993. 0994 / FAX (051)583-0999
■ 서울 :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 10-3 (지하철 3호선 안국역 2번 출구)
(02)732-0772, 744-0772 / FAX (02)744-0779
■ 미국 뉴욕 : 001-1-212-343-0809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82〉 우연지(尤延之) 거사

거사 우연지(尤延之)는 그렇게 대중적으로 크게 알려진 인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흘려 지나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는 조정의 공물운반을 맡은 조운사(漕運使)를 지냈다. 조운사는 나라세금의 일부분을 거두어들이는 소임이라 원칙주의자가 되어야만 한다. 그 뒤 홍주(洪州)태수를 지냈다. 홍주는 마조도일 선사가 활약했던 강서지방의 중심도시인지라 마조 문파를 홍주종이라고 부르게 된 인연을 가진 곳이다.

우연지 역시 다른 여느 거사와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신심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 철저한 유가적 질서에 입각하여 자기의 정체성을 찾았기 때문에 출가자들 역시 그 범주 속에 포함시켰다. 그에게는 사찰도 지역사회 관공서의 일부요, 스님네도 지역주민의 일원일 뿐이었다. 그는 공참(公參)시에 스님네까지 관청으로 불러 큰절을 받았다. 공참은 새로 부임한 관리가 아랫사람들의 문안 받는 것을 말한다.



태수 부임 후 지역 주지 불러 큰절 요구
혜홍 선사, 주지직 내놓고 불쾌함 피력
훗날 선사 일대기 정리…법은에 보답

그런데 그 때 그 지역의 광효사(光孝寺) 주지는 혜홍각범(10711~128)선사였다. 그 역시 꼬장꼬장 그 자체였다. 그가 선가의 이런저런 뒷이야기들을 모아놓은 〈임간록(林間錄)〉의 편집의도를 보면 그의 성품이 확연하게 드러난다. 동시에 항상 선사의 기개를 잃지 않았다. 우연지가 스님들까지 불러다가 인사를 받았다는 소리를 듣고서 '이럴 수는 없다'며 매우 불쾌하게 여겼다. 그리고는 북을 울려 대중을 모이게 하고는 법상에 올라가 주지직 사임을 알리고는 이렇게 외쳤다. "조사의 살림살이는 원래 큰 것이었는데, 누구에게 감히 자질구레하게 허리를 굽히랴? 똑똑하신 태수님 안녕히 계십시오. 나는 죽장에 짚신 신고서 마음껏 노닐고자 하오."

태수 우연지가 제대로 주인을 만난 셈이다. 물론 주지임명권이 태수에게 있긴 하지만, 그가 출가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모르는 바는 아닐 터이다. 미안한 마음에 사람을 보내 다시 돌아와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각범 선사 역시 한 입으로 두 말 할 위인은 아니었다. 이 사건 이후 우연지는 태도가 달라졌고 강서의 모든 사찰들이 공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을 다시 갖게 됐다. 한 사람이 주지직을 때맞춰 잘 버리면 모두가 살게 되는 도리가 있다.

알고보면 우연지 역시 본래 선지(禪旨)가 있는 사람이었다. 이후 당연히 수행법을 공부하게 되었고, 그 경지가 날로 깊어졌다. 그는 불조덕광(1121~1203) 선사를 스승으로 모셨다. 덕광 선사는 간화선의 교과서〈서장〉의 저자인 대혜종고 선사의 법을 이은 분이다. 당시 효황제 역시 덕광 선사의 제자였다. 황제와 우연지는 왕과 신하이기도 했지만 같은 스승을 모시고 있는 동문인지라 자주 격의없이 법답을 나누었다. 그런 도반 우연지가 태주(台州) 태수로 나갈 때 효황제가 물었다.

"그대가 태주로 가는데, 가는 길에 어떤 명소가 있는가?"

"국청사(國淸寺)와 만년사(萬年寺)가 있습니다."

유명 관광지 내지는 식도락을 즐길 수 있는 곳을 말하지 않고 '정말 재미없는' 도 닦는 사찰 열거한 것을 듣고는 황제 역시 매우 흡족히 여겼다. 이 한마디에 그의 가치관이 모두 드러난다. 예전의 그가 아니었다. 이제 법거량을 할 차례다. 효황제는 두 번째 펀치를 날렸다.

"그 사찰에는 오백나한이 모셔져 있는데 그들은 힘이 세다. 만약 그들이 한꺼번에 나타난다면 무엇으로 맞서겠는가?"

그러자 우연지는 주먹을 곧추세우고는 말했다. "제겐 금강왕 보검이 있습니다."

무슨 대단한 깊이를 가진 선문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대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품새가 평균치는 되는 것 같다. 어쨌거나 우연지는 당신의 삐딱한 시각을 교정시켜 준 혜홍각범 선사가 입적했을 때 몸소 선사의 일대기를 정리해 주었다. 그리하여 법은(法恩)에 감사하는 그의 진심을 고인에게 늦게나마 전했다.

■ 원철 스님(조계종 총무원 기획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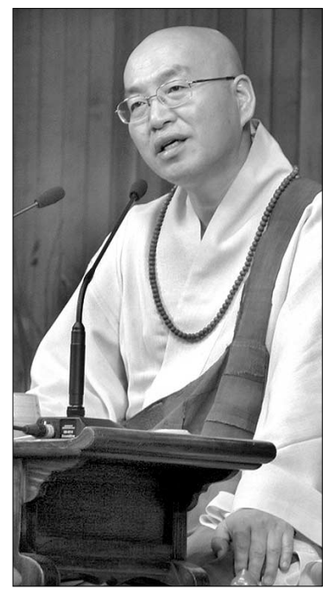
일상에서의 행복 見道에 달렸다

법륜 스님 '일상에서 행복찾기' 강연 요지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자. 그때그때 깊이 생각하고 결정해서 선택한 것들이 지나고 보면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나타나는 일들이 적지 않다. 행복을 위한 선택이 불행의 근원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는 늘 갈등하고 괴로워한다. 자식 때문에, 사업 때문에, 고부갈등 때문에, 친구 때문에…. 벗어나려고 발버둥치지만 그럴수록 갈등만 더해간다. 그 모든 괴로움의 원인은 무엇이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법륜 스님(정토회 지도법사)은 일상에서의 수행이 그 열쇠라고 단언한다.

10월 17일 대구 정토회관에서 열린 법륜 스님의 '현대인을 위한 깨달음의 강좌—일상에서 행복찾기' 두 번째 강좌 '괴로움이 없는 삶—수행' 강의 내용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법륜 스님은 수행을 하기 전에 먼저 '견도'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괴로움의 원인

괴로움의 원인은 모두 나의 밖에서 온 것이다. 돈 때문에 그렇고, 병 때문에 그렇고, 자식이나 아내, 형제, 직장 동료 때문일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나'를 괴롭힌다. 이것들이 바뀐다면 내 괴로움은 없어질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뜻대로 안된다. 이게 인간세상의 일이다. 그래서 인간보다 한 발 더 나간 존재인 신에게 빌게 되고, 이런 생각에서 종교행위가 비롯됐다. 하지만 종교도 이런 고뇌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고뇌를 해결해야 한다.

■ 불교로 고뇌를 해결할 수 없나

불교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다. 다른 종교들과 마찬가지로 '종교'로서의 의미가 있고, 다른 하나는 '진리로서의 불법'이라는 의미가 있다. 다시 말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서의 '불교'요,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불도'요, 진리의 법이라 해서 '불법'이라 부른다. 불법은 무조건적인 믿음을 강요하지 않는다. 자신의 식견으로 분별하고 판단하도록 한다. 따라서 불교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 '자신'에게 있음을, 그리고 그것이 깨달음임을 가르친다. 그래서 마음의 눈을 뜨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빌고 바라는 종교적 행위와는 근원적으로 다르다.

■ 수행이란

꿈 속에서 강도를 만난 사람이 구하는 행복은 강도로부터 도망가는 것이다. 하지만 꿈을 깨면 강도는 없다. 강도로부터의 괴로움은 꿈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꿈속에서 강도를 쫓아줄 도움을 바랄 것이 아니라 꿈을 깨면 된다.

문제의 원인은 안(나)에 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눈을 뜨는 것이다. 수행이란 빌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을 뜨는 반복적인 노력이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놓친 것이 있다 하더라도 놓쳤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면 된다.

이렇게 10번이고 100번이고 반복하다 보면 좌절할 수도 있다. 하지만 좌절해서는 안 된다. 될 때까지 하는 것이 수행이다.

■ 어떻게 수행해야 하나

수행은 이치를 찾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지를 확연히 아는 것이다. 그래서 '도를 본다'고도 하는데, 이것이 바로 '견도'다. 견도 없이는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 자리를 틀고 앉아 참선을 한다고 해도 견도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쥐가 쓰레기통을 뒤지다 냄새도 좋고 빛깔도 좋은 음식을 발견하고 덥석 물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생전 처음 먹었지만 쥐는 죽었다. 쥐약을 먹었기 때문이다. 이 때 쥐는 신을 원망해야 하는가, 아니면 내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됐다고 한탄해야 하는가. 그도 아니면 팔자라고 해야 하는가. 쥐가 죽은 것은 쥐약인 줄 모르고 먹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모든 괴로움은 무지에서 생기는 것이다. 지금 자신이 먹고 있는 것이 쥐약인 줄도 모르면서 수행을 한들 깨달음에 이를 수 있겠는가. 쥐약을 먹고 안 먹고는 자신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쥐약을 쥐약인 줄 아는 것이 견도다. 견도를 해결하고 수행해야 한다.

■ 견도를 여는 방법

법문을 많이 듣고, 경험하고, 닦고, 알아차려야 한다. 법문을 듣고(쥐약이라는 말을 듣는 것과 같이) 이치를 깨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문혜(聞慧 · 들어서 아는 지혜)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문을 듣고는 깨친 것 같다가도 등만 돌리면 다시 어리석음을 반복한다. 어리석은 행위가 오랜 습관이 돼 있기 때문이다.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것이 알아차리는 것이고, 이런 지속적인 노력이 닦는 것이다.

지금 깨우쳐야 행복해진다. 어떤 문제든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스스로 책임지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내 뜻대로 산다는 의미가 아니다. 무지를 깨뜨려야 괴로움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정리 · 사진/대구=배지선 기자

괴로움 벗어나는 길 '자신'에게 있어
'무지' 확연히 알아차림이 바로 수행
'마음의 눈' 뜨려면 꾸준히 노력해야



법륜 스님의 '일상에서 행복찾기 강좌'는 '화단의 꽃들은 서로 달라서 조화롭다'(11/1) '현대인의 어리석음 : 탐 · 진 · 치 삼독'(11/8) '평화로운 세상 만들기 : 갈등하는 사회, 화쟁하는 미래'(11/15) '진정 행복한 삶 : 경쟁없는 삶은 가능한가'(11/22)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11/29) 주제의 다섯 차례 강좌가 더 진행된다.

강좌는 전국 9개 정토회 법당에서 영상으로 들을 수 있다. (02)587-8994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바타 센터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154-1
전화 010-6230-2113 · ☎ 02)396-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석가모니불 · 사리불 · 아란존자 진신사리 친견법회
구원겁 전에 성불하시고도 중생제도라는 일대사 인연을 성취하기 위하여 사바세계에 오신 석가모니부처님!
지혜제일 사리불존자!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까지 25년간 부처님을 시봉하신, 그래서 가장 부처님의 법문을 많이 들어 다문제일 아란존자님의 진신사리 삼탑을 장엄하게 조성하고 있는 천호산 백운사에서는 평생을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에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이 시대 한국불교의 참 지도자이신 태공 월주 대종사님을 모시고 다음과 같이 대법회를 봉행한 후 마지막으로 진신 사리를 대중이 함께 친견한 후 사리탑에 봉안하오니 모두 오셔서 부처님을 친견하는 선근인연을 맺으시고 복덕과 지혜를 구족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일 시 : 10월 29일(음 9월 8일) 일요일 오후 2시
◆ 장 소 : 천호산 백운사 (☎ 063-836-8047)
◆ 증명법사 : 태공 월주 대종사(전 조계종 총무원장)
◆ 참고사항
1. 사리친견은 법회 당일만 가능합니다.
2. 오시는 길은 호남고속도로 익산 인터체인지로 나와 여산으로 오시다가 여산 송씨 문중산으로 오세요.
3. 부처님 진신사리탑은 8각 9층 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천호산 백운사 주지 우성 합장

'사찰 순례' 100배 잘 하려면?

상세한 정보 · 나만의 원칙을 가져라

기업은행 구로서지점 안재운(52 • 청봉) 거사와 불광출판사 남동화(47) 국장 부부는 요즘 절에 가서 108배를 할 때마다 머리맡에 108개의 사찰 이름이 적혀 있는 도표를 놓는다. 한 배 한 배 할 때마다 도표를 보며 절 이름 하나씩을 외면서, 그 절에서 본 부처님 얼굴을 떠올린다.

이 부부는 삶의 의미를 되짚어보고 신심을 높이기 위해 108사찰순례를 결심하고 지난 2004년 1년 동안 매주 주말, 연휴, 휴가를 통해 108사찰을 순례했다. 꼬박 1년을 이렇게 다니다보니 불교에 대한 지식은 물론이고 신심이 깊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순례 전에 해당 사찰 관련 자료를 파악하고, 가는 사찰마다 108배도 했다. 절을 제대로 하기 위해 순례 전에 절 수행으로 이름난 청견 스님에게 절하는 법도 배웠다. 정신이 산란할 때면 지갑 속에 보관하고 있는 작게 만든 108사찰 도표를 꺼내 들고 절 이름을 외며 순례 당시의 발심을 되새긴다.

대구 관오사 108사찰 순례단원들은 평일과 일요일에 떠나는 사찰순례 때 절에서 나누어 준 '순례 노트'를 꼭 챙긴다. 자신이 순례한 절에서 그 절 이름이 새겨진 도장을 받기 위해서다. 순례단원들은 도장이 하나 둘 늘면서 도장의 의미를 새기며 신심을 다진다. 또 순례 노트에는 순례 사찰에 대한 자료도 수북이 쌓인다. 어떤 신도들은 그 노트를 아이들 교육에 활용하기도 한다.

전국교사불자연합회 울산지부 향운 거사는 인터넷 지부 카페에 지난 6월 둘러봤던 울산의 망해사 • 청송사 • 운흥사 순례기를 올려놓았다.순례기에는 망해사의 창건설화를 보여주는 벽화와 청송사터 삼층석탑, 운흥사지 돌수조와 석축 등 37장의 사진과 함께 이에 대한 설명과 감상이 곁들여져 있다. 누가 보더라도 절의 역사와 문화재 등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한 번의 사찰순례는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 한 권의 책이 사람의 인생을 바꾸듯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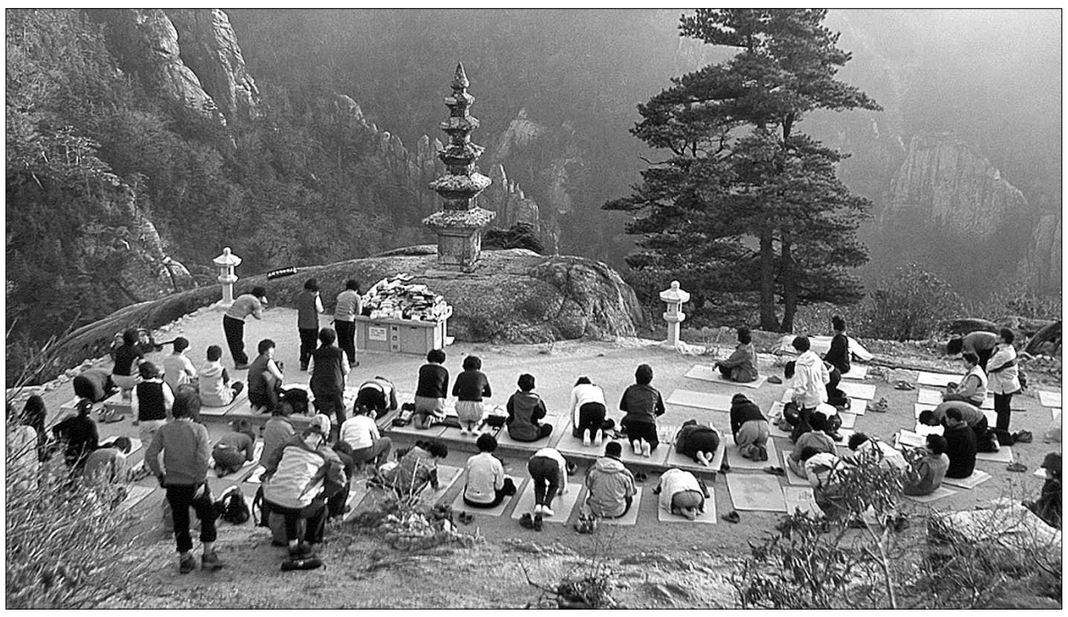
일상에 파묻혀 있던 몸과 마음을 꺼내 들고 떠나는 사찰순례. 아름다운 자연, 오랜만에 만나는 부처님, 가보고 싶었던 사찰에 온 기쁨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여기서 만족한다면 의미는 반감된다. 사찰순례는 소풍이나 관광이 아니다. 불교를 공부하고 신심을 다지는 본래의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한 번쯤은 편안하게 마음먹고 발 길 닿는 사찰에 들르는 낭만과 휴식. 이것이 아니라면 사찰순례는 제대로 준비하고, 제대로 보고,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가장 필수적인 것은 사전에 순례 사찰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인지하는 것이다. 다녀와서는 순례기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또 원칙을 정해놓고 이를 실천하겠다는 결심도 필요하다. 가족단위의 여행이 늘고 있는 요즘, 계획적인 사찰순례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10월 13~14일 봉정암 순례에서 탑 앞에서 절을 하며 발원을 하고 있는 조계사 신도들. 사진제공=모동신(조계종 포교사)

▶ 사전 공부가 더 중요

대구 관오사 108사찰순례단을 담당하고 있는 김경란씨는 "모르고 가는 것과 알고 가는 것과는 천지 차이"라며 "신도들끼리 그 절의 문화나 역사적 인물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아무 것도 모른 채 사찰순례를 가는 것은 관광에 가깝다. 가기 전에 순례 사찰에 대한 정보를 인지하면 실제로 가서도 보고 듣는 느낌이 다를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공부가 된다. 그리고 이렇게 준비하면서 모아 둔 자료는 훌륭한 도반이 될 수 있다.

▶ "이것만은 지키겠다"

'이것만은 꼭 지키겠다'는 원칙을 정하는 것은 사찰순례를 자신을 다듬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꼭 필요하다.

예를 들면 순례 전 반드시 목욕을 한다거나, 사찰에 가서는 예불을 반드시 한다거나, 한 가지 잘못을 참회한다거나, 108배를 반드시 하겠다는 등의 원칙을 세워놓으면 사찰순례 자체가 곧 수행이 될 수 있다.

▶ 순례기를 작성하자

성지순례를 다녀와서 순례기를 작성하는 것은 신행은 물론이고 불교공부에도 큰 도움이 된다. 감상을 모아도 좋고, 문화나 역사나 사찰 특징 등 특정 주제를 정해 순례기를 작성해도 좋다. 많은 사찰이 적어도 1년에 5~6번은 성지순례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몇 년 정리해 놓으면 훌륭한 자산이 될 것이다.

매달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사찰순례에서 신도 인솔을 맡고 있는 조계사 김선희 구도부장은 "관심 있는 테마에 대해 집중적으로 자료를 모아 정리하고, 이것을 신도들끼리 돌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 지역별 · 테마별 등 연간계획 세워라

요즘에는 가족끼리, 또는 부부끼리 사찰순례를 하는 경우도 많다. 이럴 때는 연간 계획을 세워 지역별 · 테마별 · 사찰 특성별로 진행하면 좋다. 지역(도 단위)을 나눠 순례하고 이를 정리하면 지역별 사찰 지도를 그릴 수 있게 되고, 그 지역의 특징과 불교문화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다.

계절별로 꽃이 좋은 사찰, 숲이 아름다운 사찰, 유서깊은 문화재가 있는 사찰 등 테마별로, 또는 적멸보궁, 기도도량, 선수행처 등 사찰 특성별로 계획을 세워 순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부산 혜원정사 정수현심 보살은 "우리 절에서도 가족이나 부부, 또는 손자와 함께 사찰 순례를 하는 신도들이 많다"며 "사찰순례는 불교를 배울 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간에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일터가 도량입니다

"관내 주민 모두가 가족이예요"

천안 병천 · 동면 파출소 유남조 소장

민중의 지팡이 경찰. 하지만 언론을 통해 늘 뭇매를 맞는 것도 경찰이다. 열 번 잘하다가도 한 번 잘못하면 호된 비판을 받는다. 낮은 보수와 열악한 근무환경에 시달리는 것은 참을 수 있지만 명예가 훼손되는 것은 더 참기 어려운 일. 그래도 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경찰제복이 주는 사명감에서다.

천안 병천 · 동면 파출소 유남조(54) 소장. 병천면과 동면 2개 면 9천여 주민의 치안을 맡고 있는 유 소장 역시 사명감 하나로 경찰 생활 30년을 보냈다. '조직에 누가 되지 않으며, 임무에 충실하자'는 것이 좌우명.

"경찰도 서비스업 종사자와 마찬가지로 친절해야 합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경찰이 아니라 국민의 심부름꾼이 돼야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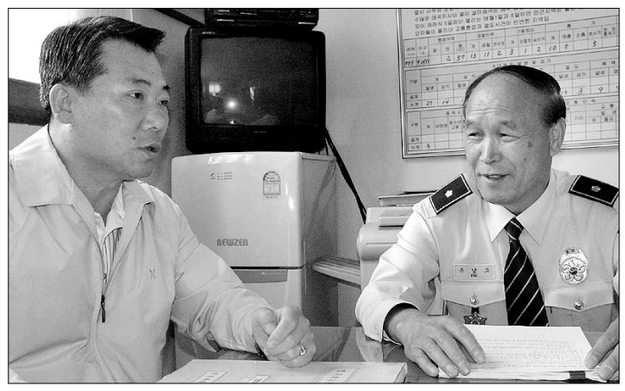
'지당하신 말씀' 이지만 쉽지 않은 일이다. 유 소장이 이런 생각을 실천하기 위해 끊임없이 되새기는 것이 있다. 바로 '하심'이다. 직원들에게도 늘 주민에게 친절할 것을 강조하며 '공무원 신분'을 잊지 말라고 당부한다.

'친절'과 함께 유 소장이 중요시 여기는 또 한 가지는 '범죄예방'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보다는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튼튼히 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어느 곳보다 방범활동에 비중을 두고 있다. 그러다보니 직원들은 힘이 들 수밖에 없다. 관할 지역이 넓다보니 순찰 한 번 도는데 3~4시간 걸린다. 직원들의 수고도 덜고 민생을 돌아보기 위해 유 소장은 순찰을 직접 도는 경우도 많다.

"그래도 우리 관내는 도시지역보다는 편한 편입니다. 시골이다 보니 강력사건이 별로 없고, 주민들도 순박해서 공권력을 우습게 알지도 않고요. 주민들에게 고맙죠."

유 소장이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또 한 가지는 지역주민과의 유대관계다.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파출소 생활안전협의회와 자율방범대와 한 가족처럼 지내기 위해 자주 만나 대화를 나눈다.

한동근 생활안전협의회장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유 소장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깊은 존경을 표하고 있다"며 "유 소장이 불자라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한다.



유남조(사진 오른쪽) 소장은 '다가가는 경찰'의 이미지를 심기 위해 자주 주민들과 대화한다. 유 소장이 한동근 생활안전협의회장과 관내 행사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유 소장이 불교와 인연을 맺은 것은 사촌형이 출가하면서부터다. 스님인 사촌형을 만나면서 불교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고, 본격적으로 불교공부를 시작했다. 전임지인 천안 두정지구대에서 근무할 때에는 휴무 때마다 각원사 불교대학을 다니며 공부했고, 천안 경찰서불자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작년 7월부터는 회장 소임도 맡았다.

"경찰생활 30년 동안 별다른 흠 없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후배 경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 소장은 지역주민과 부하직원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다고 했다. '하심하는 경찰', 유 소장은 오늘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

글 · 사진=한명우 기자

제7회 불교전통문화

팔관회 및 수륙공천도대재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는 팔관회에 동참하셔서
계를 받아 팔재계를 실천합시다"

八關會 水陸空薦度大齋

10.29(일) ▶ 30(월)

광안리해수욕장

※ 10.29(일) 오후 5시 팔관회대법회 (고산큰스님)
※ 10.30(월) 오후 2시 수륙공천도대재
오후 7시 축하공연 (설운도, 함중하, 장미화 등)

※자비실천 방생법회는 29,30일 이틀간 광안리 해상법당에서 봉행됩니다.
※팔관회는 FM89.9MHZ 부산불교방송에서 생중계됩니다.

팔관회와 수륙공영가천도대재 및 방생법회에 관한 동참은 가까운 사찰에 문의바랍니다.

주최 :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051)867-0501 http://www.bba.or.kr

■ 특별후원 : 문화관광부, 부산광역시 ■ 후원 : 부산광역시불교신도회, 부산불교실업인회, BBS부산불교방송, 불교TV부산방송, 민락회촌상가번영회, 민락어촌계, 교계 각 언론사

禪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43> 마음이 선정에 있으면 모든 것을 안다

'맑고 깨끗한 부처님의 지혜[淸淨慧]'는 모두 선정에서 생겨난다. '어리석음'은 번뇌로써 밝은 세상을 어둡게 하여 중생의 고통을 가져오나, 밝은 지혜는 맑고 깨끗한 빛으로써 어두운 세상을 타파하니 행복이 가득한 부처님의 세상을 장엄한다. 이것은 깨달음으로서 맑고 밝은 거울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환하게 드러내니 '이 세상 모든 것을 아는 지혜[一切種智]'를 성취한다. 마음이 선정에 있으면 깨달음이니 세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저절로 알게 되는 것이다. <선가귀감> 43장에서 말한다.

心在定則 能知世間生滅諸相

마음이 선정에 있으면 세간에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모든 모습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 설해지는 <불유교경(佛遺敎經)>에서 따온 글이다. 이 단락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 내용을 소개해 보겠다. "그대 비구들이여, 마음을 챙기는 사람은 마음이 선정에 있다. 마음이 선정에 있으므로 세간에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모든 모습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부지런히 모든 선정을 닦아야만 하니 선정을 얻은 사람은 마음이 어지럽지 않다. 비유하면 마치 물을 아끼는 사람이 물둑을 잘 관리하듯 수행자도 그러하다. 수행자가 지혜를 위하므로 선정을 잘 닦아서 지혜를 잃지 않게 하는 것, 이를 일러 선정이라 하느니라[汝等比丘 若攝心者 心則在定 心在定故 能知世間生滅諸相 是故汝等 常當精勤修習諸定 若得定者 心則不亂 譬如惜水之家 善治堤塘 行者亦爾 爲智慧水故 善修禪定 令不漏失 是名爲定]"

'선정(禪定)'에서 '선(禪)'은 범어 dhyāna의 음역이고 '정(定)'은 범어 samādhi의 의역이다. 선(禪)과 정(定)은 대체적으로 모두 어떤 한 대상에 마음을 집중하여 조금도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데, 이 선(禪)과 정(定)을 합쳐 선정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진다.

계율 지키는 삶 살면 고요한 선정 드러나고
걸림없이 생활하는 참다운 지혜가 생긴다

간화선(看話禪)이란 방편도 화두를 챙기는 사람이 화두라는 대상에 마음을 집중하여 선정의 힘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화두라는 대상에 마음이 집중되면 어떤 딴생각도 일어날 수가 없어 마음이 고요해진다. 화두와 하나가 되어 어떤 딴 생각도 일어나지 않을 때 비로소 선정에 드는 것이며 그 마음은 조금도 때가 끼지 않은 맑고 밝은 거울처럼 환해진다. 이 마음에 세간의 모든 모습이 비추어져 저절로 드러나니, 세간에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모든 모습을 그 마음에서 알게 되는 밝은 지혜가 생긴다.

선정에서 생긴 지혜로 얻는 이익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기신론>과 <월등삼매경>에서 말하는 것을 열 가지로 간추려 보겠다.

첫째,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과 보살들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고 살아간다. 둘째, 어떤 마군이나 나쁜 귀신들도 다가와서 겁을 주지 못한다. 셋째, 그 마음이 부드럽고 온화하여 잘난척하는 마음을 버리게 되니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죽이려는 생각이 없다. 그러므로 주변 사람들과 모두 함께 어울려서 온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

넷째, 부처님의 법을 함부로 헐뜯지 않으므로 전생에 지었던 무거운 죄들이 차츰 소멸되어 행복한 생활을 한다. 다섯째, 법에 대한 모든 의심과 나쁜 견해가 사라져 올곧게 수행한다.

여섯째, 보고 듣는 경계가 고요하고 지혜로워 바깥 경계에 집착하지 않으므로 어리석은 번뇌들이 생겨나지 않는다. 일곱째, 용맹스럽게 공부하여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니 근심과 회한을 벗어난다. 여덟째, 선정에서 생기는 희열로써 이 몸을 지탱하는 약이나 음식으로 삼으니 의식주가 부족하더라도 늘 기쁜 마음을 지니고 산다. 아홉째,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리석은 세간의 삶에 집착하지 않으므로 지옥, 축생, 아귀와 같은 삼악도에 떨어지지 않는다. 열째, 바깥 인연의 온갖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의 위엄을 갖게 되니 뒷날 반드시 성불한다.

선정에 있으면 어떤 경계가 오는지 서산 스님은 말한다.

虛隙日光 纖埃擾擾 淸潭水底 影像昭昭

밝은 창 빈틈 사이 화사한 햇살 속에 가는 티끌이 고물거리고, 맑은 호수 물속에 모든 형상이 환하게 비친다.

마음이 선정에 있으면 그 마음은 밝은 햇살이나 맑은 호수와도 같아서, 가는 티끌 같이 고물거리는 미세한 번뇌의 움직임이나 그 모습을 그대로 알 수 있다. 서산 스님의 이 말은 선교일치(禪敎一致)를 주장했던, 중국 당나라 규봉(780~841) 스님이 대중을 떠나 산중에서 10여년 참선 수행을 하고 난 뒤에 자신의 선정 체험을 <도서>에 써 놓은 글에서 따온 것이다. 이 글의 앞뒤 내용을 소개해 보겠다.

"10여년 수행을 하니 고요한 마음 상태에서 미세한 번뇌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빠짐없이 환하게 알게 되고, 인연 따라 차별화 된 법과 이치가 벌어지는 것이 텅 빈 마음에 남김없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밝은 창 빈틈 사이 화사한 햇살 속에 가는 티끌이 고물거리고, 맑은 호수 물속에 모든 형상이 환하게 비치는 것과 같으니, 이와 같은 선정과 지혜를 어찌 부질없이 침묵만을 고수하는 '어리석은 선(禪)'이나, 문자나 파고드는 '광기의 지혜'들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본디 자신의 마음을 앎으로써 모든 가르침을 분별하는 것이므로 간절한 뜻을 '선종'에 두었고, 또 모든 가르침을 올바르게 분별함으로써 마음 닦는 법을 이해하는 것이므로 정성어린 마음을 '부처님의 가르침'에 두게 된 것입니다."

맑고 아름다운 삶이 계율이고, 이 계율을 통하여 마음이 고요한 선정이 만들어지며, 이 선정에서 세상의 모든 일을 알기 때문에 걸림 없이 생활하는 참다운 지혜가 생긴다. <선가귀감> 38장에서 43장까지 수행을 말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계율, 선정, 지혜를 강조하는 것이 무엇 때문이겠는가?

계율, 선정, 지혜 이 세 가지야말로 부처님의 모든 것을 배우는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기 때문이다.

■원순 스님(송광사 인월암)

I Love Buddha

용정운(www.buddhaillust.org)

마음닦기



한입에 쏘옥~ 불교 상식

'땡추'

우리 일상에 녹아든 용어 중에는 불교를 비하하는 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어느 소장 불교학자는 그 원인을 놓고 "조선시대 500년 억불 정책이 낳은 시대적 업보"라고 쓴 소리를 하더군요. 일리가 있는 분석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흔히 스님같지 않은 사람을 빗대 '땡추'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주색잡기나 하면서 사기나 치는 나쁜 스님이란 뜻입니다. 심지어 스님네들 사이에도 농담반 진담반으로 이 말을 자주 쓰고 합니다.

어떻게 하다가 땡추라는 말이 생겨났을까요? 원래 땡추는 '당취(黨聚)'라는 점잖은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글자 그대로 '무리 당(黨)', '모일 취(聚)'이니, 스님들의 비밀결사를 이르는 말이었습니다. 사회적 약자였던 스님들이 스스로의 자구책으로 만들었던 공동체였습니다.

이들 스님들은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목소리도 냈습니다. 조선후기 사회가 혼란해짐에 따라 민중반란에 개입하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억불정책을 유지하던 조선시대에서 볼 때, 당취에 모인 스님들은 당연히 역적이 됐겠지요. 그뿐이었겠습니까? 천민 신분이던 스님들에 대한 일반 대중들의 어리석은 비난도 제법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당취란 의미는 타락과 속화(俗化)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본래의 뜻과 멀어진 안타까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감입니다.

말은 그 시대를 거울 같이 반영합니다. 당시의 곡해된 말로 오늘날을 말하면 안 됩니다. 비하된 불교 용어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중요한 까닭입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118)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2부 64강 12장 자심(自心)의 수지독송(受持讀誦)

금강경은 어디 있는가?

11장 무위복승분(無爲福勝分)은 무엇이라 했던가. 갠지스강의 모래알같은 은하계들을 다이아몬드로 도배한다해도, 그 보시 복덕은 '이 경전'의 글귀 하나 들려주는 공적에 까마득히 못 미친다고 했다. 이어 지금 12장 존중정교분(尊重正敎分)은 "대체 이 경전의 한 구절이 그토록 위대한가?"라는 의문에 대한 응답 혹은 해명이다. 내용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1)이 경전의 글귀가 있는 그곳에, 육도의 상승에 위치하는 존재들, 즉 천상과 인간은 물론, 아수라들까지 우르르 일어나 찬탄의 노래를 부르고, 다투어 꽃과 음식으로 공양을 올릴 것이다. 흡사 차이티야, 붓다의 탑묘가 있는 성스러운 곳을 경배하듯이….

(2)한 구절만 해도 그러할 진대, 이 경 전체를 수지독송(受持讀誦)할 수 있다면, 그 성취의 크기는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는 '최고의, 희귀한 진리의 성취자'가 될 것이다.

(3)'이 경전'이 있는 곳이 곧 부처가 있는 곳이며, 위대한 제자들이 거주하는 곳이다.

물어보자. 여기서 말하는 '경전'은 <금강경>의 문자 혹은 책인가? <금강경>의 한 구절을 읽어주는 것으로 일체의 천인 아수라들이 다투어 공양을 하며, <금강경> 전편 32장을 펼쳐 독송하는 것으로 최상의 희유한 진리를 성취하게 된단 말인가? 이 물음은 '문자'와 '진리' 사이의 변증을 대표적으로 상징하고 있는 영원의 화두이다.

<금강경>, 위대한 경전

<금강경>은 신비로운 경전이다. 한자의 난해로 인한 아득함에, 서방 인도의 인물들과 사건들이 주는 이그조티시즘(exoticism), 거기에 반복되는 역설의 어법이 겹치면 <금강경>은 지극히 신비로운 위광을 띠게 된다.

반복되는 역설이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수보리야, 내가 말하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한다… 수보리야, 내가 말하는 지혜는 지혜가 아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이름을 얻었다… 수보리야, 내가 말하는 위대함은 기실 위대함이라 할 수 없다. 바로 그런 까닭에 내가 위대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상식은 이들 기이한 어법을 납득하지 못해 저만큼 달아나거나 비난했고, 종교적인 사람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이 이 경전 앞에 큰 절을 올렸다.

그러나 여기 유의할 것이 있다. "이 경전이 있는 곳에 곧 부처가 있으며, 그곳은 일체의 천인 아수라가 지극한 공양을 올린다"고 했다. 물어보자. 그럼 '이 경전이 있는 곳'이란 대체 어디인가.

저쪽에 모셔져 있을 때, <금강경>은 다른 여느 잡지나 교과서와 별로 다를 바 없다. 하여, 여기서 말하는 '이 경전이 있는 곳'이란 <금강경>의 메시지가 알려지고, 체화되고, 전달되는 그 어디쯤일 것이다. 그 공간은 <금강경>이라는 문자를 '통해' 보여지긴 하지만, 종국 <금강경>이라는 문자를 떠난, 선가의 비유를 들면 활발발(活潑潑)한 지점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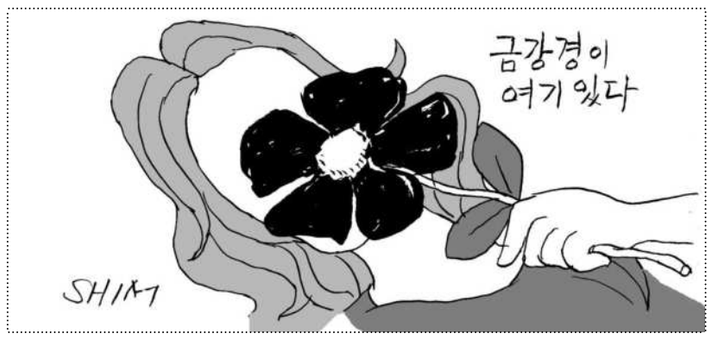
'이 경전이 있는 곳'

지금 찌를 질러놓자면, <금강경>이 계속 "-는 -가 아니다. 그래서 -라고 한다"라는 어법을 줄기차게 강조하는 것도, 그리고 그 유명한 '뗏목의 비유'도 <금강경>의 책자의 권위만 믿고, 정작 중요한 메시지의 습득을 소홀히 할까 싶어 우려한 경계의 말씀이다. 그 노파심의 극단에서, 불립문자, 교외별전의 선이 발흥했다는 것은 다들 잘 아시는 사태이다. 만해 또한 그 전통을 따라 "<금강경>은 먹으로 쓰여진 책 위의 문자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선의 중흥자이자 실질적 창시자인 육조 혜능은 문자를 버리지 않고, 그 취지를 장악하는 방법을 권유했다. 예컨대, 소승과 대승에 대한 그의 정위는 이렇다. "소승(小乘)은 아직 문자의 숲에서 헤메는 사람이고, 중승(中乘)은 문자의 취지를 대강 캐치한 사람, 그리고 대승(大乘)은 바로 그 자각에 따라 사는 사람을 가리킨다. 그럼 최상승(最上乘)은? 그는 바로 그런 노력조차 필요없는 사람을 가리킨다." 혜능의 분류대로 하자면, 소승에서 대승, 그리고 최상승으로 올라서는 바로 그곳이 '이 경전이 있는 곳'이다. 다시 혜능의 비유를 빌리자면, "<금강경>에 휘둘리지 않고, <금강경>을 굴리는" 자리가 바로 '이 경전이 있는 곳'이라 하겠다.

<금강경>의 수지독송

진정한 수지독송은 <금강경>을 나침반으로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말한다. <금강경>의 취지를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수용하여, 거기 따라 삶을 영위해나가는 것이 진정한 수지독송일 것이다. 혜능이 말한다.



所在之處, 如有人卽說是經, 若念念常行無念心, 無所得心, 不作能所心. 說若能遠離諸心, 常依無所得心, 卽此身中有如來全身舍利, 故言如佛塔廟. 以無所得心說此經者, 感得天龍八部, 悉來聽受. 心若不淸淨, 但爲名聞利養而說是經者, 死墮三途, 有何利益. 心若淸淨而說是經者, 令諸聽者除迷妄心, 悟得本來佛性, 常行眞實, 感得天人阿修羅, 人非人等皆來供養持經之人.

"주변에 혹시 누가 있으면, 이 경전을 설해 주라. 념념이 언제나 무념심(無念心)을 살라고…. 무소득심(無所得心), 아무것도 얻으려 하지 않고, 얻을 것이 없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부작능소심(不作能所心), 내 욕심과 편견으로 세상을 가르고, 사람을 차별치 않는 마음으로 살라고… 마음의 둔탁한 찌끼들을 제거하고, 무소득의 마음을 토대로 살 때, 이 하찮은 몸에 여래의 전신 사리가 가득차게 된다. 그래서 지금 (경전이 이 사구게를 지니는 자리가) '부처의 탑묘와 같다'고 말하는 것이다.

"무소득의 마음을 가진 자의 설법은 천룡 팔부를 감격시키고, 그들이 다투어 이 위대한 가르침을 듣도록 만든다. 하나, 청정치 않은 마음으로 이름과 이익을 노리고 이 경전을 설하는자, 그는 죽어 세 악도에 떨어지니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청정한 마음으로 이 경전을 설하는자, 그는 듣는 이들로 하여금 미망심(迷妄心)을 제거케 하고 본래의 불성을 깨닫도록 하며, 늘 진실(眞實)을 행케 하고, 천인 아수라를 감격 격동시키는 신비한 힘을 행사한다. 그래서 사람이건 사람이 아니건 모두 와서 이 '경전 가진 자'를 공양하고 경배하는 것이다."

아이디어는 무성한데, 실행이 없다면 그것을 어디다 쓸 것인가. 5%의 실천으로 기업의 흥망이 결정된다는 얘기들 들었다. 외기만 하고, 취지를 모르는 소승의 삶, 취지는 알되 그대로 실천하지 않는 중승의 삶으로는 진정 삶을 변화시킬 수 없다.

몸으로 읽는 <금강경>

혜능이 그 '체득'을 다시금 강조한다.

自心誦得此經, 自心解得經義, 更能體得無著無相之理, 所在之處 常脩佛行, 念念無有間歇, 卽自心是佛, 故言所在之處卽爲有佛

"내 마음으로 이 경전을 외워 얻고, 내 마음으로 이 경전의 취지를 이해하여 얻고, 다시 능히 무착(無著)과 무상(無相)의 이치를 몸으로 체화하여 얻는다. 서 있는 자리에서 늘 붓다의 행동을 닦음에, 한 순간도 틈이 지지 않을 때, 자심은 곧 부처가 된다. 그래서 '서 있는 곳이 곧 부처가 있는 자리'이라 했던 것이다."

<금강경>의 수지독송은 다시 말하지만, 경전의 취지를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받아들인 다음, 그것을 몸에 새겨 기억시켜 나가는 자심(自心)의 작업이다. 그 체득을 위한 고투의 현장이 바로 '이 경전이 있는 곳'이다. 그 땀과 피를 향해 인천 아수라들이 머리를 숙여 경배하고 꽃을 흩뿌려 공양할 것이다.

혜능은 여기서도 돈교의 진실을 거듭 강조해 마지않는다. 그때 "너는 진정 부처이다(自心是佛)!

■한국학중앙연구원

'글쓰기'가 고민이라면 늪에 빠져보자

시인 철학자 최재목 교수의 인문학적 철학적 글쓰기에 관한 사유



펜을 들면 글쓰고 싶은 욕망이 금새 사라져 버린다. 왜 그럴까 ? 바로 시적 · 생태적 생명적 상상력의 근원이 약하기 때문이다. '온갖만물을 받아들여 맑고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 내는 '늪'. '늪'은 더러운 것을 맑고 아름답게 정화하는 공간이다. 죽으면서 살아있고, 끊임없이 질서를 만들며 파괴되고 생성되는 곳이다.

시인이자 철학자인 영남대 철학과 최재목 교수는 글쓰기를 고민을 하는 사람들에게 '늪'을 보면서 사색과 글쓰기를 생각하라고 말한다. 왜 늪일까? 늪은 온갖만물들을 받아들여 맑고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어 낸다. '늪'은 더러운 것을 맑고 아름답게 정화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죽으면서 살아있고, 끊임없이 질서를 만들며, 파괴되면서 생성되는 곳이다.

그가 통합 · 통섭의 의미로 사용하는 '늪'은 긍정적인 맥락에서 다시 발굴하여 인문학, 철학, 글쓰기, 문화 등의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용어이다.

<글쓰기와 상상력의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늪>은 일반적이고 교과적인 글쓰기 지침서와 다르다. 최 교수가 오랫동안의 사색을 통해 지향해온 불교 · 인문학적 사고와 철학에 바탕한 글쓰기에 대한 동기부여와 방법을 엮은 책이다.

저자가 말하는 글쓰기 방법인 '늪'의 본질은? 바로 나와 모든 생명이 함께한다는 '연기적(緣起的)'이며 세계를 관계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화엄적(華嚴的)' 글쓰기다. 쉽게 말하면 내가 세상의 모든 생명과 더불어 함께 하는 마음을 갖는 글쓰기라는 것이다.

또 '나'와 '글'이라는 어떤 실체(實體)에 집착하는 것이 아닌 나를 철저하게 '관계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연기적 관점의 글쓰기를 말한다. 이것은 서로 의존하고 서로 침투하는 상즉상입(相卽相入), 원만히 하나가 되어 걸림이 없는 원융무애(圓融无涯)의 글쓰기라고 최 교수는 주장한다.

늪의 글쓰기, 연기적 글쓰기는 최 교수의 시 '봄날'에 잘나타나 있다.

걸었던 길들에게 미안하다
꽃피지 못하는 저 풀들의
뿌리에게 미안하다
언 돌과 굳은 흙 위로 무심히 내딛던 내 발길,
네 영혼을 너무 아프게 했구나
그래서 미안하다
가만히 홀로 있어도, 난
너의 곁에 너무나 가까이 닿아 있었구나

이 시를 보면 결국 심신이 존재하는 한 타자들의 영혼을 너무 아프게 하고 있다는 성찰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미안하다는 자비심의 발현, 이런 미안한 글쓰기는 결국 시적 모성적 자비적 글쓰기와 같은 이른바 따뜻한 글쓰기를 가능하게 한다. 이는 인문학 철학이 계몽이라는 허구의식에서 벗어나 화해와 자비의 길을 새롭게 열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듯 최 교수의 글쓰기 방식은 '정의'보다 '표현'이 우선한다고 말한다. 인간의 글쓰기가 '나'를 알리기 위해 표현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란다.

최 교수는 글쓰기가 높은 학문적 장르의 통합, 여러 학문 영역간의 대화에 하나의 모형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일(一)에서 다(多)로, 다(多)에서 일(一)로 라는 근거를 찾을 수 있는 이른바 인문학적 상상력의 유비쿼터스(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네트워크에 접속)이기 때문이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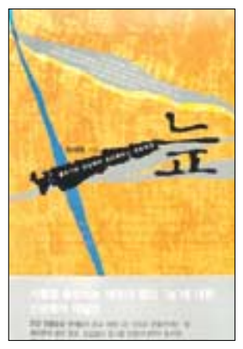
그래서 최 교수는 '온몸으로' '온갖 사물과 지식을 총동원한' 글쓰기와 상상력 증진은 물리적 공간에 펼쳐진 각종 공간의 사물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의상 스님의 '화엄일승 법계도'나 위아래 어느 방향으로 읽어도 뜻이 통하는 '선기도(璇璣圖)'의 발상법 읽어낼 수 있다고 말한다.

최 교수는 불교에서 인문적 지성의 흔적과, 혼돈과 질서를 겸비한 삶의 방식을 찾는다. 그는 사람, 동물, 식물 뿐 아니라 돌, 물, 파도에 밀리는 모래알의 말없는 아픔까지도 늪에서 발견하는데 이를 철학, 글쓰기, 문화 등의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유비쿼터스 지식이나 문화로 재통합, 재구축하고자 한다.

나아가 생명의 미학, 발우공양의 미학, 미와 예술지향인 '건달'의 재발견, 편집개념의 재해석 등도 수록하고 있다.

"모든 것을 살려나가는 것이 생명과 깨침의 글쓰기"라고 강조하는 최재목 교수는 "통합(統合), 통섭(通攝), 융합(融合), 융즉(融卽)인 유비쿼터스(Ubiquitous) 형태로 문화나 지식이 재통합되고 재구축되어감으로써, 글쓰기와 발상법이 회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 com



글쓰기와 상상력의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늪
최재목 지음
영남대출판부 | 1만원

네티즌 강추

매 순간 원더풀이라고 외치며 살고 있습니까



원더풀 울라 카린 린드크비스트 지음, 유정화 역, 노블마인

그녀, 울라 카린 린드크비스트는 스웨덴의 유명한 방송 앵커로서 그녀의 삶은 승승장구였으며, 늘 힘이 넘쳤고 완벽하게 모든 일을 소화해냈다. 끊임없이 깨어있으려고 노력했으며, '자신'이라는 별이 지나가는 길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사람이었다. 그러던 그녀는 어느 날 갑자기 '루게릭' 병에 걸린다.

병이 진전됨에 따라 마음의 변화를 겪게 되고, 바빠서 돌아볼 수 없었던 소중했던 주위를 되돌아보게 되고, 어린 시절을 추억한다.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고 그녀는 비로소 하늘에 있는 별들이 지나가는 길을 마음으로 느끼게 된다. 둘 중 어느 것이 더 낫다는 얘기가 아니다. 그녀가 온 힘을 다해 자신의 삶에 오롯이 충실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그녀에게 삶은 죽는 순간까지도 '원더풀'이었다. 매 순간순간이 삶이었으며, 그 삶에 충실했다. 그랬기에 그녀의 죽음은 보는 이들에게 더 안타깝고 아름답게 느껴진다. 그녀의 어린 아들 구스타프의 말처럼 1초마다 한 번씩 산다. 그 1초마다 '원더풀!!'이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면서 만들어갈 수 있을까? (waytogohr, lifelog.blog.naver.com/waytogohr)

내면의 나를 찾아 떠나는 만다라 여행



만다라를 통한 내적치유
김영미 지음, 해와달을 그리는 사람들

우리는 모두 상처 없는 삶을 원한다. 그렇다면 상처를 주거나 받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내안을 돌아보아야 하지 않을까?

내안의 마음상한 체험들 계속 덧나는 그 염증 부위를 치료하여 나를 해방시켜야 한다. 나의 망가진 자존감 때문에 본의 아니게 또 다른 사람의 자존감을 부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김영미 교수의 만다라 300여점이 수록된 이 책은 너무나도 다양한 종류의 그림을 직접 채색해 볼 수 있다.

하나의 원속에 만다라(원상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 누구나 자신의 내면속으로 여행을 시작하거나 내면 탐색을 시작할 수 있는 것 같다

마음이 가는대로 발걸음 가는 대로 내안의 여행을 해보는 것이 좋다. 동적으로 하는 여행보다 정적으로 해보는 만다라 그리기 여행은 더욱 안정적인 심리상태로 집중적인 힘으로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같다

몇가지색으로 만날런지 누구도 알수 없다. 나를 찾아 떠나는 향기 가득한 만다라 여행을 즐겨보자. (장현숙, c-painting.com/sub/care.htm)

책속의 밑줄긋기



○… 칭찬거리는 칭찬하는 사람의 안목에 달려있는데 여기에 요청되는 것이 창의성이다. 창의성이 뛰어난 사람은 상대방에게서 쉽게 드러나지 않는 숨어 있는 가능성을 찾아내어 상대방의 특성이나 행동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 칭찬에 이런 창의성이 적용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칭찬을 할 수 있다. 창의성은 훈련과 연습에 의해서 계발될 수 있다. 고정관념을 탈피하여 현상을 다르게 보려고 애를 쓰며, 사태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려는 노력을 하다보면 점차 사고에 유연성이 더해지고 창의적인 칭찬거리를 찾아내게 된다. 창의적으로 칭찬거리를 찾아내는 방법 중에서 야단거리를 칭찬거리로 바꾸는 연습을 몇 가지 해보자. 예를들면 머리는 좋은 놈이 공부를 안 한다→ 공부를 안 하고도 성적을 그 정도 유지하니 대단하다. 친구들을 무시하고 잘난 척 한다→ 친구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담임이 이끌어 가는 학급상담> 본문 53쪽에서, 박성희 지음, 학지사

불서구입은 www.yosiamun.com

전선(케이블) - 찬덕연등에서 시공한 사찰 (대한불교천태종 광수사 법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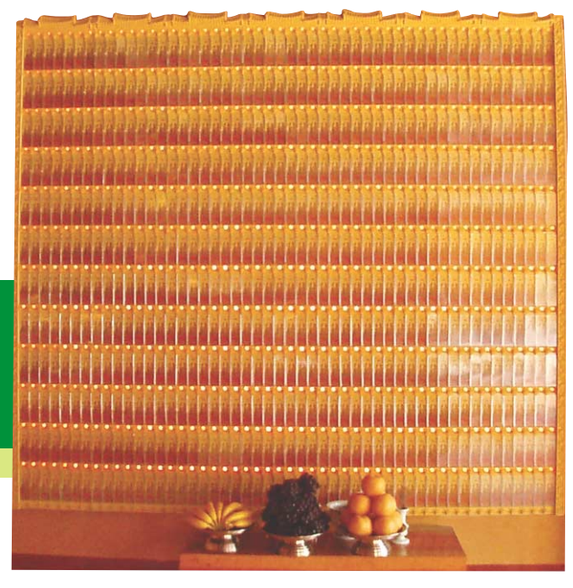

자동 승강 장치(등표 조정 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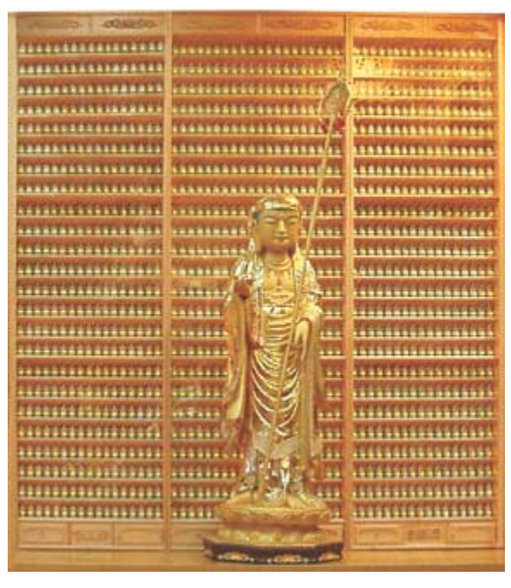

연등 자동 승강장치 작동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아름다운 등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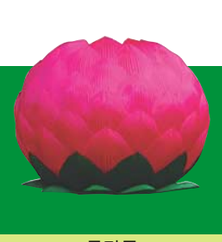





종 등



팔각봉축접등


공단등



주름등(만월봉축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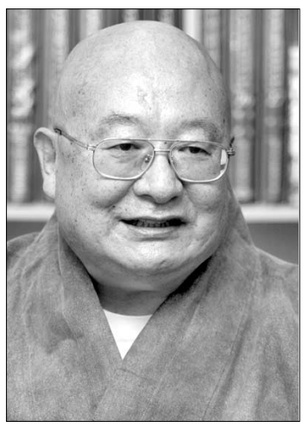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찬덕연등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법당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interview 임종 · 죽음서 3권 출간한 송암 스님

"죽음은 또하나의 삶의 면목"



"죽음은 혐오스럽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자연현상의 일부일 뿐입니다." 〈떠나는 자의 노래(불교 임종학)〉〈우리는 어디로 가는가〉〈죽음은 신의 질투인가〉등 임종과 죽음에 관한 책을 연이어 3권이나 출간한 송암 스님(울산 기도암 주지 · 사진).

도서출판 부다가야에서 펴낸 스님의 죽음학 해설서 3권은 불교의 입장에서 바라본 죽음의 의식세계와 함께 죽음을 앞에 둔 우리들에게 죽음이 결코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이 될 수도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울산대 평생교육원에서 '불교의 생사학'을 강의하고 있기도 한 송암 스님은 1949년 부산에서 출생하여 중앙대 사범대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김해 한림중학교 교사를 지냈다. 이어 통도사로 출가한 뒤 영산 어산범패를 해룡 스님에게 사사받고 동국대 불교대학및 동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임종과 죽음'을 주제로 책을 출간하게 된 연유는?

-죽음에 대한 서적중에서 정말 한국적인 정서에 부응하는 서적을 찾기란 쉽지 않았다. 또 실제 존재하되 존재를 부인하고 싶은 죽음의 존재를 논리적으로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이러한 부족한 점과 의문 그리고 대학원에서 호스피스 임종학을 배울때 서양의 유일신 관점에서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 이 분야를 연구한 뒤 책을 펴내게 됐다.

▲책의 주요 내용은?

-죽음을 불교적 입장에서 바라보게 한다. 즉 불교적 사상에서 접근하고 있다. 불교만큼 인간의 죽음과 영혼의 문제에 대해 깊이있게 접근하고 있는 종교도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적 입장에서의 죽음에 대한 현대적 연구가 드문 것은 불교가 죽음을 삶과 동일하게 바라보는 세계관에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죽음과 삶을 별개의 세계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오류를 바로잡았다. 그래서 삶 속에서 죽음을 발견하고 현재의 삶을 보다 진지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불교에서의 죽음은? '불교의 죽음학'은 생소한 단어가 아닌가.

-불교에서의 죽음은 삶의 마지막 성장이 끝나는 시점을 말한다. 또 날숨을 내쉬고 들숨을 들이 쉴 힘이 없을 때를 말한다. 그런만큼 불교의 죽음학은 신체의 죽음학이라고 보면 된다. 불교에서는 삶과 죽음을 별개의 것으로 보지 않고 삶속에 죽음이 존재하고, 죽음속에서 새로운 삶을 창조하는 도식이 있음을 보았다. 그것은 죽음을 두렵고 외로운 삶의 종착이라 생각하는 이론과 달리 죽음속에서 희망찬 내일을 알게 해준다.

▲죽음을 어떻게 보고 받아들여야 하나?

-죽음이야말로 누구나 당연히 가야하는 또 하나의 삶의 면목이며 동반자인데도 사람들은 죽음을 외면하고 질시한다. 또 두려워 한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자기라는 아상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들은 욕망이 있다. 또 자기 것을 남에게도 주고싶어하지 않는다. 나에 대한 집착이 강할 수록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커지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마음을 바로 보아야 한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인간의 가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다. 특히 죽음의 세계를 창조하는 곳이 바로 인간의 삶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삶과 죽음을 모두 소중하게 인식하고 살아야 한다.

▲앞으로의 계획은?

-최근 우리나라 사람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잘살고 잘 죽을 것인가이다.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도 그 만큼 중요하다는 것이다. 죽음은 삶의 단면이며 규정하기 어려운 실체적 사실이다. 올해말에 불교의 생사론에 관한 서적을 발간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불교 죽음학에 대해 깊이 연구하고 싶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달라이 라마 앞에서 눈물 쏟은 老철학자

황필호, 달라이 라마를 만나다 황필호 지음 | 운주사 | 9000원





황필호: 한국은 마지막 남은 분단국가입니다. 우리는 통일을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달라이 라마: 한반도는 남북간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더 강한 결의, 인내심을 갖고 희망을 잃지 않는 동시에 꾸준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달라이 라마가 2005년 12월 17일 접견실에서 종교철학자 황필호(강남대 신학부 · 사진) 교수와 장장 2시간 20분 동안 진행한 대담 내용의 일부이다.

대화후 폭포수 같은 눈물을 쏟은 원로 종교철학자 황필호 교수는 "달라이 라마를 초라한 접견장에서 막 봤을 때부터 눈가에 이슬이 맺히기 시작했다"며 "난생 처음 큰 소리로 소리치며 '폭포수 눈물'을 쏟아냈다. 슬퍼거나 기뻐서가 아니었다. 지극한 영혼의 떨림이었다"고 말했다.

이 책은 세계적 영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를 만나기 위해 암투병으로 피폐해진 70노구를 이끌고 달라이 라마 만나러 인도의 다람살라까지 간 황 교수의 인터뷰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대화내용은 황 교수의 주 관심사인 종교철학, 한국의 현실, 환생, 페미니즘 등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나눈 대화를 8개의 주제등이다. 또 달라이 라마를 친견했을 때 감회와 지은이가 여러 악조건을 무릅쓰고 그를 찾게 된 동기를 자신의 삶과 관련시켜 서술했다. 마지막으로 황우석 사태와 관련된 생명공학에 대한 견해, 한반도의 제반 문제에 관한 달라이 라마의 생각을 옮겼다.

저자 황필호 교수는 서울대 문리대 종교학과를 졸업하고 오클라호마 대학 철학과에서 종교 철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덕성여대 교양학부 교수를 거쳐 동국대 철학과 교수를 지냈다. 현재 한국철학회 종교철학연구회와 사단법인 생활철학연구회 회장으로 재임 중이다. 주요 저서와 역서로는 〈비교종교학 및 비교종교철학 시리즈〉(전10권) 〈사회정치철학 시리즈〉(전3권) 등이 있고 철학과 종교, 문학, 생활에 대한 여러 권의 에세이를 펴냈다.

김원우 기자

詩와 만난 금강경, 무한 상상력의 보고

有相有求俱是妄(유상유구구시망)
無形無見墮偏枯(무형무견타편고)
堂堂密密下曾間(당당밀밀하승간)
一道寒光燦太虛(일도한광삭태허)

상이 있고 구함이 있으면 미망이요.
형상이 없고 볼 수 없다고 하는 것도 고루한 데에 떨어진다.
당당함과 비밀스러움이 어찌 간격이 있으며
한 줄의 찬 빛이 빛나는 허공이다.

야보 선사의 〈천로금강경〉을 주해한 전기철(숭의여대, 문학평론가 · 시인) 교수는 이 시를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부처는 상(相)이 없어 욕심을 내서 구한다고 구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상이 없다고 하는 것도 잘못이며 볼 수 없다고 하는 것도 편협한 생각이다. 부처는 당당히 존재하면서도 비밀스럽게 깨달은 자에게만 보이므로 보이면서 보이지 않고, 상과 비상(非相) 사이에 어떤 간격도 없다. 태초의 큰 허공은 하나일 뿐이다. 빛과 허공을 구별하는자 따귀를 쳐라.'

이 책 〈천로금강경〉은 송나라의 뛰어난 고승 야보도천(冶父 道川, 생몰연대 확실치 않음, 임제스님 6세손) 선사가 〈금강경〉을 시로 풀이한 것이다.

야보 선사는 시의 경지가 뛰어나 〈금강경〉의 무궁무진한 상상의 세계를 잘 보여준다. 또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불교의 이심전심의 비법도 경전을 맛깔스럽게 해준다. 따라서 〈천로금강경〉은 시라고 하는 감성의 세계를 통해서 불교적 진리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해준다고 할 수 있다.



천로금강경
야보도천
전기철 주해
도서출판 다시
9000원

특히 〈천로금강경〉은 〈금강경〉의 해설이기도 하지만 시로서의 독립적인 세계를 지니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는 야보선사가 당송의 문장을 꿰뚫고 있어서 시문을 인용하거나 차용하여 자신의 시로 환골탈태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책의 구성은 야보 선사의 시 원문을 맨 위에 실어놓고, 그 아래 해설과 '주'가 딸려있다. 또한 제 2부에는 〈금강경〉 원본과 해설을 덧붙여 놓았다.

전기철 교수는 "고승 야보선사가 〈금강경〉을 시로써 해설한 것은 경전의 구절구절에 얽매이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가깝고도 먼 반야심경 해설



스님도 모르는 반야심경
김종수 편저
우리출판사 | 9000원

불교를 처음 접하거나 신행생활을 지속하는 동안 늘 독송하고 그 뜻을 음미하는 경전 가운데 하나가 〈반야심경〉이다. 다른 방대한 경전과 달리 겨우 260 자(字)에 불과한 짧은 〈반야심경〉은 10만 송에 이르는 대반야경의 핵심이며, 대승불교 교리의 근간인 공(空)사상을 설명한 경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반야심경이 올바르게 읽혀지고 또 배운 바대로 신행활동에 적용되고 있는가의 물음에는 선뜻 '그렇다'고 답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카페 '수신선양(修身善養)'(cafe.daum.net/susinsunyang)을 개설하여 인터넷 포교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 김종수씨가 펴낸 〈스님도 모르는 반야심경〉은 시중에 나와 있는 반야심경 관련 해설서 대부분이 왜곡된 관념만 만들고 있다고 일갈하고 있다. 부처님의 근본설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반야심경〉이 '정각(正覺)을 얻은 이가 바른 수행의 길을 일러준 경'임을 알고, 스스로 반야심경이 요구하는 정법수행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설명해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저자는 반야심경의 각 구절마다 그 해설을 뒷받침할 논거로써 아함경의 가르침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별도의 해설을 덧붙이지 않음으로써 저자의 주장을 내세우는 대신 독자들에게 판단의 기회를 주고 있다. 김원우 기자

日 불교학자 스즈키의 禪강연집



선이란 무엇인가?
스즈키 다이세쓰 지음
이목 역
이론과실천 | 1만5000원

19세기와 20세기에 걸쳐 1세기에 가까운 95세를 일기로 삶을 마감한 세계적 불교학자 스즈키 다이세쓰.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인 〈선이란 무엇인가?〉는 '경험'과 '신비주의적 체험'을 강조하면서 선불교의 역사와 일화 그리고 선불교의 여러 개념들을 이야기하듯 들려준다.

1927년부터 오사카의 산사에서 총 10회에 걸쳐 진행된 스즈키 다이세쓰의 강의는 '종교 경험으로서의 선'과 '불교에서 차지하는 선의 위치'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제1회 '종교 경험으로서의 선'에서는 종교 경험과 불교 생활 등 선과 종교 경험의 관계를 역설한다. 그는 불교는 지적인 경향이 농후한 종교로 계-정-혜를 수득하지 못하면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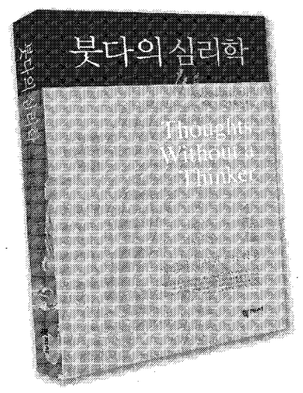
제2회 '불교에서 차지하는 선의 위치'에서는 종교 경험의 여러 요소와 형태를 분석하고 있다. 인간에게는 고-집-멸-도라는 사제가 있어 괴로움이 있어야만 자신의 위치를 자각할 수 있다고 말한다. 김원우 기자

yosiamun.com 추천도서

- **마음이 곧 부처** 해안스님, 밀알, 1만2000원
- **꽃을 들어 보여라** 금하광덕, 도피안사, 1만5000원
- **하루 108배 내몸을 살리는 10분의 기적** 김재성, 아름미디어, 1만원
- **과학과 불교의 만남** 황의현, 하늘북, 1만2000원
- **내면으로의 여행** 산트타카르싱, 한국에디션나암, 1만1800원

도서주문 (02)2004-8219

세계적인 프로젝트, 불교와 정신치료의 통합



붓다의 심리학

Mark Epstein M. D. 저 | 전현수 · 김성철 외 공역 | 신국판 | 304면

붓다의 가르침과 서양 심리학 통찰의 조화로운 만남

불교를 통해 정신치료나 상담의 한계를 보완해 줄 가능성을 살피고,
모든 정신은 명상적 자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책은 서양 정신치료와 불교 명상 양쪽에서 20년간 경험한 결과입니다. 〈붓다의 심리학〉은 치료자들에게 유용한 통찰을 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진전된 연구를 하게 하고, 치료자들과 명상적 길을 따르는 사람들과의 상호 협력을 자극시킬 것입니다.

- 달라이 라마 추천사 -



완전한 자기 구현을 위한 마음챙김 명상법
마음챙김 명상과 자기치유 上, 下
존 카밧진 지 · 장현갑 외 공역
384/352면 | 신국판 | 반양장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아 자기 극복을 하기 위한 길잡이
마음이 지닌 치유의 힘
소얀 보리센고 외 공저 · 장현갑 외 공역
272면 | 신국판 | 반양장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요가 수련을 소개하는 실습지침서
요가 첫걸음
산드라 앤더슨 외 공저 · 조옥경 외 공역
252면 | 국배변형판 | 반양장

"학지사는 깨끗한 마음을 드립니다."

학지사 TEL (02)326-1500 | FAX (02)324-2345 http://www.hakjisa.co.kr

엉터리 빙의 이야기가 난무하는 시대에 전하는 따끔한 일침!!!

" 빙의 이젠 제대로 알자! "

귀신에 관한 최고의 참고서

빙의의 시대



지은이/ 일광(逸廣)
신국판/ 312쪽/ 9,500원

무당이 되기 전에 앓는 신병(神病)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
무당하기 싫은 분, 귀신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신경통이나 좌골신경통으로 오래동안 고생하시는 분,
스님이나 무당으로부터 귀신이 몸에 있다고 하여 고민하시는 분은 반드시 이 책을읽고 상담하여 주세요.

출생의 비밀 윤회는 왜 하는가?
여성상위시대와 빙하기는 왜 오는가?
150년후 일본은 침몰하고 없어진다!
전국에서 이름있는 도사를 모셔 조상의 묘를 썼는데 왜 발복이 없는가?

서울출판 Tel. 02-313-5047 Fax 02-393-9696 전국 서점에서 판매 중

추사 150주기 기념행사 풍성

각종 전시 · 강연 이어져



추사 김정희의 제자 허련이 그린 추사의 초상화.

추사체의 대성, 불교, 금석학, 고증학, 실학, 시문학, 문인화의 대가 추사 김정희(1786~1856). 서거 150주년을 맞아 김정희를 새롭게 조명하는 다양한 전시가 열리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02-2077-9000)이 '김정희 명품 콜렉션'을 표방한 '추사 김정희 학예(學藝) 일치의 경지'는 10월 3일 개막한 이래 관람객들의 인기를 얻으며 11월 19일까지 계속 된다. 국보 제180호인 세한도가 10m에 이르는 발문까지 완전 공개된다. 90여 점의 추사 유물을 선보이는 전시와 함께 11월 1일에는 이완우 교수(한국학중앙연구원)가 '추사 김정희의 서풍(書風)'을 강의한다.

간송미술관(02-760-0442)은 10월 15일부터 단 2주간 '추사 150주기 기념특별전'을 열고 있다. 10월 19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 '조선말기 회화전'을 여는 삼성미술관 리움(02-2014-6901)은 추사실을 별도로 만들어, 보물 제547호 <반야심경> 등을 공개하고 있다. 11월 25일에는 '추사 김정희의 삶과 예술'에 대해 유홍준 문화재청장이, 12월 16일에는 '다산 정약용과 추사 김정희'를 주제로 이태호 명지대 교수가 특강한다.

과천시민회관(02-504-7300)이 9월말부터 전시하고 있는 '추사 글씨 귀향전'은 추사 연구의 선구자인 일본 학자 후지즈카 치카시로부터 기증받은 추사 관련 자료 2700여점 가운데 추려낸 110점을 11월 8일까지 전시한다.

추사 김정희가 이 자리에 있었다면 불자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 작품들에 비치는 추사의 마음을 통해 추사가 불자들에게 보내는 가상의 편지를 띄운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불이선란도'에 하늘의 본성을 담았습니다

(不二禪蘭圖)

가상 편지 / 추사 김정희가 불자들에게 띄웁니다

사바세계와 등진지 150년이 흐른 지금 그 옛날 가졌던 볼심을 되살려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어떻게 불심을 키우고 계신지요.

예전에 저는 마음의 안정을 구하기 위해 수시로 <반야심경>을 써왔습니다. 세상의 더러운 때가 묻은 몸으로 <반야심경>을 쓴 것은 불 속에서 연꽃이 피기를 바라는 마음이요, 더러운 곳에 살면서도 늘 청정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호법금강에게 비웃음 사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썼지요.

그렇게 쓴 <반야심경>을 절친한 도반이자 학문적 동반자였던 초의선사에게, 조용히 독송하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보내기도 했습니다. 제가 초의선사에게 써 보낸 사경 가운데는 <열반경>도 있었지요.

초의선사가 서른이 되던 해 처음 알게 돼 평생을 교류했어요. 제가 유배지에 있을때도 수시로 서간을 띄워 차도 보내달라 하고, 경전도 요청하고 그랬답니다.

출가하기 전 과천에 머무를 때 송의 고승 대혜선사의 공안 하나를 남김없이 다 타파했습니다. 어찌나 기쁘던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 기쁨을 전하며 초의선사에게 당나라 도세 스님이 편찬한 <법원주림>과 송나라 영명연수스님이 편찬한 <종경신편어록>을 고증하는 것은 어떠냐고 추천하기도 했지요.

초의선사에게 보냈던 17편의 편지들은 <나가묵연(那迦墨緣)>이라는 이름의 편지첩으로 현재 남아있기도 합니다. 이 가운데 11편은 <완당전집> 권5 서독에 실린 편지 37편 중에 포함돼 있는 것이고 6편이 <나가묵연>에만 남아 있는 편지예요.

제 속에 녹아든 불교를 가장 깊게 표현한 작품은 <반야심경> 사경도, 사찰 현판도 아닌 '불어선란도(不二禪蘭圖)'라 감히 자부합니다. '불이선란도'는 거칠게 흩어진 메마른 난초를 그렸어요. 거친 난초잎사귀 한 편에는 꽃도 한 송이 달렸지요.

제가 지향하고 있는 이상적인 난초 그림의 경지를 실현한 작품입니다. 학계 전반에서 지금까지 '추사 김정희의 학문과 예술이 서화와 함께 일치해 있고 화품과 인품이 맞닿아 있는 불세출의 작품'이라는 평을 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불이선란도'는 20여년 만에 그린 그림입니다. 하늘의 본성을 그려냈다는 자부심을 느낄 정도로 오랜 마음공부끝에 나온 작품입니다. 문을 닫고 깊이 깊이 찾아든 그 경지가 바로 유마의 불이선이었을 겁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라고 누구라도 강요한다면 저는 마땅히 비야리성에 살던 유마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것처럼 침묵으로 대답을 대신하겠습니다.

제주도에서 9년, 북청에서 2년, 두 번의 유배생활 끝에 과천에 돌아온 저는 출가를 결심했습니다. 예순 여덟 나이에 봉은사를 찾아가 구족계를 받고 승복을 걸쳤습니다.



서예기법에 따라 '난'을 그린 '불이선란도'는 추사 김정희를 당대 최고의 문인화가로 만들었다.

열 여섯 살에 어머니를 여읜 제가 여머니 품으로 삼았던 곳이 집안의 원찰 예산 화암사입니다. 그래서 화암사 현판도 쓰고, 대웅전 뒤편 바위에 글도 새겼지요.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염주가 지금은 보물이 되어 있더군요.

초의선사와 함께 제 벗이었던 이가 백파 긍선 대사입니다. 백파대사는 제 학문적 동반자이기도 해요. 백파가 열반한 후 제가 비문 '화엄종주백파대율사대기대용지비(華嚴宗主白坡大律師大機大用之碑)'를 썼지요. 이 비문의 글씨는 제 만년의 걸작중의 걸작이라고 세간에선 말하고들 있습니다.

저는 가끔 백파대사에게 서간을 보내 불교에 유교와 세상속설을 끌어들여 합리화하는 전통적인 사고를 탈피하지 못하는 것을 경계하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 땅에서 학문을 하기 위해서는 불경과 유가경전을 병행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유불회통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불교 안에서도 선은 선 자체고, 화엄은 화엄이며, 반야는 반야로 존재해야지 그것을 뒤섞어서는 안되는 것이죠.

> 속진에 물들지 않고 부처님 품안에서 여생을 보냈습니다. 괴로움을 돌려 즐거움으로 삼게 된 것은 제가 불교 공부를 하고 수련을 했기 때문일까요.

저는 유교는 유교만의 장처(長處)를 지니며, 불교는 불교만의 장처를 지닌 엄연한 독립체라고 생각합니다. 섞이기 보다는 오히려 주변을 엷애고 군더더기를 버려 다시 나눌 수 없을 때까지 나눠 결국 자체의 제법실상이 드러나기를 희구해야 합니다.

깨달음의 길은 멀고도 험합니다. 참선을 한다하여 교학공부를 게을리 한다면 득도의 난관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금강경오가해> <능엄경> <유마경> <관음경> <화엄경> <법화경> 등을 읽으며 공부했어요. 경전을 사경하는 것도 훌륭한 수행방법으로 제가 자주 했던 수행입니다.

<전등록> <법원주림> <종경전부> 등을 읽으며 화두 수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스승인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외손자이자 제 수제자인 금계 윤종진에게 석가모니 진신사리를 구하고 싶다는 서간을 띄우기도 했지요.

정쟁으로 아버지를 잃고 유배생활을 하는등 거대한 세파와 마주해 싸워야만 했던 저에게 불교는 진정한 안식을 주었습니다. 속진에 있을지라도 속진에 물들지 않고 남은 여생 부처님 품안에서 보냈던 것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지요. 괴로움은 본래 지은 업에 반연해서 나왔다 사라지곤 하므로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괴로움을 돌려 즐거움으로 삼은 것은 제가 얼마간이나마 불교 공부와 수련을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가 썼던 선시로 편지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수락산사(水落山寺)

아견일여월(我見日與月) 나는 저 해와 달을 쳐다볼 때
광경각상신(光景覺常新) 광경이 늘 새로움을 깨닫게 되네.
만상각자재(萬象各自在) 만 가지 상이 각각 다 그대로라.
찰찰급진진(刹刹及塵塵) 끝없는 나라와 나라
수지현곽처(誰知玄廓處) 누가 알리 어둑어둑 텅 빈 곳에
차설동차인(此雪同此人) 이 눈이 이 사람과 함께 한 것을
허뢰착위우(虛籟錯爲雨) 빈 소리는 빗소리로 착각하고
환화불성춘(幻華不成春) 환화는 끝내 봄을 못 이루도다.
수중백억보(手中百億寶) 손 가운데 백억의 보물은
증비걸지린(曾非乞之隣) 이웃에서 빌리는 게 아니라네.

"이름 대사전"

아직도 이름을 짓고 계십니까?

작명을 하는 데는 우선,

- 수리가 좋은 획수로 구성되어야 하고,
- 상생의 원리를 따르고,
- 수리구성에 의한 수리오행과 삼원오행 및 원(元), 형(亨), 이(利), 정(貞)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 작명에 쓰지 않는 글자들은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 한 글자가 두가지 음으로 소리나는 글자는 쓰지 않고,
- 장남과 차남을 구분해야 하며,
- 오행이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상기와 같은 기본을 완벽하게 적용하여 우리나라 **약 320여**개의 성씨 별로 **약 2000여**개의 최고의 이름들을 선택해서 이름풀이까지 완벽하게 갖추고 있으며, 언제 어디서나 **사람이름, 법명, 상호, 기타** 이름이 필요한 모든 분야에서 완벽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 작명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이 책만 있으면 최고의 작명가가 될 수 있습니다.

효 타 암 주지 원공 합장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효타암 전화 051)524-9406

◆ 정가 : 50,000원 ◆ 농협 121076-56-092613 (예금주:손선미)

수제화로 제작 滿 가득할 만 行 행 靴 화

상표등록 : 614981호

■ 소재특징 : 방수 극세사 원단, 논스립 미끄럼 방지, 특수 우레탄 소재

사계절 단화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흑
(키높이 특수제작)

최고의 선물

방한용 털신



• 가격 : 6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흑

건강 슬리퍼



• 가격 : 60,000원
• 규격 : 225-285mm
• 색상 : 회색, 흑색

좋은 점

만행 포행시 단정함 유지, 색상에 따라 사부대중의 선택, 발 건강을 위한 3cm 굽 높이로 만들어져 발로 인한 몸 건강에 도움을 주며 특히 지압식 '발바바' 깔창은 특수 항균 실리콘 고무로 만들어져 불교의 예절에 절을 많이 하시는 사부대중님의 발관절에 도움주는 특수 지압식 인솔입니다. 어떠한 신발에도 지압 인솔을 착화하시고 걷는 것만으로도 발바닥을 지압하여 운동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 및 주문전화 : 02)927-5715 / 011-9000-5715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 보시 하실 분 상담 환영

전국매장
•부산 : 원광사 051)636-7019 •대구 : 연꽃세상 053)426-7300
•광주 : 불교서원 062)226-3056 / 화신승복 062)228-2870
•대전 : 불교백화점 042)274-3727 •서울 : 부산승복 02)738-8407 •제주 : 김윤경승복 064)724-7999



正宇 천연 무공해 황토방 시공

스님들의 수행공간이나 침실방을 화확물질이 첨가되지 않는 천연 순100% 황토로 황토방을 信心으로 시공하며 순 100% 천연황토가 아니면 시공비를 전액 받지 않겠습니다.

1. 황토방은 노화방지 및 혈액순환 촉진 스트레스 해소 만성피로회복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2. 황토방은 신경통 요통 아토피질환 알러지 비염 기관지 천식에 효과적입니다.
3. 황토방은 원적외선 온돌효과로 난방비가 절감되며 인체내의 나쁜 과산화지질을 중화시키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4. 천연황토는 실내공간의 악취제거와 습도조절에 효과적입니다.
5. 황토방은 건축물의 개 보수 및 사후관리가 용이합니다.



황토방. 인테리어 시공전문
正宇 정우천연황토산업
대표 정우철 합장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96번지
전 화 062)226-4445
팩 스 062)234-1286
핸드폰 011-607-9828
email : bestceo12@naver.com



'경전수행을 통한 깨달음' 10대 강백 초청
봉선사 강설대법회

봉선사·현대불교 공동 주최 / 지상 중계 4
응각 스님(수덕사 강주) / 아함경(10월 14일)

'나'는 영원한가? 무상 알아야 해탈


응각 스님은 불교의 기본골격이라 할 수 있는 삼보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함경(阿含經)>은 얼마전까지는 전통 강원의 커리큘럼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열심히 공부하는 스님이나 불자들이 접했을 뿐이지요. 그것은 <아함경>이 '소승불교의 경전'이라는 잘못된 폄칭 때문입니다.

'아함'은 산스크리트어의 'āgama'를 음역한 것인데, 전해 내려온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아함경>은 아함부에 속하는 4아함 또는 5아함의 총칭으로 불교의 중심사상인 사성제, 팔정도, 12연기, 오온, 삼법인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 <아함경>은 <장아함경> <중아함경> <잡아함경> <증일아함경> 등 북방의 한역장경(漢譯藏經)에 남아 있는 4아함과 남방의 <장부> <중부> <상응부> <증지부> <소부> 등 5부가 팔리어로 된 남전장경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함경>은 남방과 북방에서 서로 다른 대접을 받습니다. 태국 베트남 스리랑카 등 남방과 달리 중국으로 전해진 북방에서는 천태 지의대사에 의해 소승이라는 낙인이 찍혀 폄칭 됐습니다.

중국 천태 지의(538~597)대사는 부처님이 설하신 시간적 · 교의적 차이에 따라 오시팔교(五時八敎:화엄시, 녹원시, 방등시, 반야시, 법화열반시)로 경전을 분류했습니다. <아함경>은 녹원시(鹿苑時)에 속하는데, 부처님이 깨달은 직후 설한 화엄시(華嚴時)에 이어 12년간 설해졌습니다. 21일간 설해진 화엄시의 뜻을 알아듣는 중생이 적어 중생의 근기에 맞추어 녹원시를 설하게 된 것이지요. <아함경>이 소승불교라 하여 낮은 지위를 갖게 된 것도 낮은 경지의 교법이라는 지의대사의 분류 탓입니다.

중국을 통해 불교를 받아들인 우리나라에서도 지의대사의 교상판석(敎相判釋)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고려시대 체관 스님은 <천태사교의(天台四敎儀)>에서 "천태대사는 오시팔교로써 동쪽에 전해진 부처님 일대의 성교(聖敎)를 남김없이 판석(判釋)하였다"고 찬탄했지요.

오늘날 뜻있는 스님들과 상당수 불교학자들이 부처님이 설한 원초적 모습을 하고 있는 경전으로서 아함경을 중요시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함경>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장 원본에 가까운 '원조(元祖)격' 가르침이며, 팔만사천 경전의 원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팔만사천 경전이라는 거대한 강물도 그 시작은 조그만 샘물에서 비롯됐기 때문입니다. <아함경>은 바로 그 샘물과 같은 경전이라 할 수 있지요.

<승만경> <반야경> <능엄경> 등 대승경전은 <아함경>과 비교하면 창작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된 것으로 보입니다. 살을 전혀 붙이지 않은 <아함경>과 달리 대승경전은 살을 붙이고 곱게 화장을 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지요. 대승경전이 시기적으로 뒤늦게 결집된데다 중국으로 전해진 경전에는 많은 고침과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 부처님 육성 담긴 팔만대장경의 원천 '삼보' 자세히 밝혀

<아함경>에는 참 훌륭한 가르침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불교의 골격이라 할 수 있는 삼보(三寶)에 대해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삼보를 모르는 불자들은 아마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이 불 · 법 · 승이라고만 알고 있을 뿐, 경전에서는 어떤 분을 부처님이라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어떤 이를 부처님과 같은 자리에 가겠다는 출가제자라 설명하고 있는지 아는 이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왜 석가모니를 부처님이라고 하는가. 모든 것을 깨달은 사람, 다시 말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번뇌를 끊어 자유자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러한 경지에 오를 수 있도록 이끌 수 있습니다.

경전마다 그 표현과 해석이 다르게 나오는데, <아함경>에서는 부처를 여래 응 정등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모든 번뇌를 끊은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부처님은 훌륭한 의왕(醫王)과 같아서, 생 · 로 · 병 · 사, 원증회고(怨憎會苦), 애별리고(愛別離苦), 구부득고(求不得苦), 오음성고(五陰盛苦) 등 세상의 여덟가지 고통(八苦), 즉 실존적인 고통의 원인을 알고 치료한다고 하였어요.

부처님은 <잡아함경> '389경'에서 "비구들이여, 저 세간의 양의는 생 로 병 사 우비 고 뇌의 원인을 진실 그대로 알아 치료할 줄 모른다. 그러나 여래 응 정등각인 나는 진실 그대로 알아 치료할 줄 알고 근원을 진실 그대로 알아서 치료한다"라고 불타관을 열어 주었습니다.

부처님이 <아함경>에 남긴 가르침은 불교의 근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연기법과 사제, 팔정도, 삼법인 등 불교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이지요.

<아함경>에 담긴 사상은 부처님이 깨달은 교의를 간단명료하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멸하므로 저것이 멸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봤지요? 바로 연기법입니다.

<아함경>에서는 연기법을 세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과법과 인연화합법, 상의상관법이 그것인데, 인과법은 인간과 세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고, 인연화합법은 사물이 생겨나고 변천하고 또 발전하고 소멸되는 관계를 설명한 것이지요. 또 상의상관법은 존재와 존재는 서로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잡아함경> '299경'에서 비구가 "연기법은 누가 만드셨습니까"하고 물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고, 이 법은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시든 안 나오시든 세상에 항상 머물러 있다."

이 연기법은 12가지 인연의 관계의 다른 표현인데, 괴로움과 해탈이 중생세계에 항상 머물러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12인연을 바탕으로 해서 괴로움을 끊는 실천적인 가르침이 사성제입니다.

<중아함경> '분별성제경'에 이르기를, '사성제는 삼세 모든 부처님께서 중생에게 바른 행위를 닦게 하는 가르침'이라고 했습니다. 사성제는 고(苦) · 집(集) · 멸(滅) · 도(道)를 말합니다. 고성제는 괴로움의 범위와 괴로움이 어떤 것인가를 말하는 것인데, 팔고가 이에 해당합니다.

> 사성제 · 연기법 등 우주의 본질과 '참나' 실현의 삶 분명히 제시

집성제는 무엇인가. 괴로움의 원인이지요. 내 몸뚱이를 위주로 해서 내 마음이 주위의 모든 것을 취하려는 갈구와 집착을 말하는 것입니다. 멸성제는 목마르게 구하는 것을 떨쳐버리는 것입니다.

도성제는 고를 없애기 위해 필요한 실천적인 가르침입니다. 다시 말해 팔정도인데, 바른 견해(正見), 바른 사유(正思惟), 바른 말(正語), 바른 행위(正業), 바른 생활(正命), 바른 노력(正精進), 바른 기억(正念), 바른 선정(正定)을 말하는 것이지요. 팔정도를 잘 수행해 나가는 사람이라야 비로소 올바른 지혜를 지니게 됩니다.

삼법인은 무엇인가. 제행무상(諸行無常), 제법무아(諸法無我), 열반적정(涅槃寂靜)이지요.

<증일아함경> '증상품'에 "모든 존재와 현상은 영원하지 않은 것이요, 모든 존재와 현상은 괴로운 것이요, 모든 존재와 현상에는 실체가 없으니 나가 없고 번뇌를 다 멸하면 열반이라는 진리를 깨달으리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존재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은 항상 그대로인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하기를 원하지요. 아무 병 없이 근심 걱정 없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아요. 요즘 나이가 70, 80 되신 분들도 이혼을 합니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겠다' 싶으면서도 부처님법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앞섭니다. 제행이 무상이라는 것을 알면 그렇게 판단하지 않을텐데 말이지요.

모든 현상은 변해가고 바뀌는데 내가 목마르게 구하는 것이 안될 때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아끼는 몸뚱이도 차츰 변해가서 죽고 말지요. 그러니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부처님은 삼법인에서 '제법무아'라고 했는데, 부파불교에서는 '나'라는 주체를 고집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다음 생까지 이어져 윤회한다고 보고 있지요.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에서의 '나'입니다. 거짓된 나, 망아일 뿐이에요.

정신은 이지적, 감정적, 의식적 작용을 합니다. 영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령의 고하, 지식의 많고 적음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지지요. 시간시간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법문을 듣는 이 순간에는 정신은 온통 부처님을 향해 있습니다면, 일주문을 나서면 금방 달라집니다. 본래 마음은 그게 아닌데, 중생의 마음이라 그렇습니다.

감정적인 작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뻤다가 성냈다가 슬펐다가 즐거운 것이 과연 '진실한 나'입니까? 감정적으로 보는 것으로도 진실한 나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옳다 그르다 착하다 못됐다 하는 의식적 작용이라고 예외는 아니지요. 우리가 옳고 착한 것만을 좇습니까?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좇게 되지요. 허물을 짓는 마음과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마음을 '진아'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진아'가 진실한 나라면 왜 순간순간 변해서 악해지는 걸까요. 그래서 악한 나든 착한 나든 '진아'가 아닌 것입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제자는 수발타라라는 120세의 바라문이었습니다. <잡아함경> '979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수발타라가 부처님에게 진정한 출가수



그가 주먹으로 눈물을 훔치며 산을 벗어날 때 공기를 타고 날아온 부처님의 목소리가 꽃향기처럼 그의 귓가를 스치었다. '너는 나를 버리고 가는 것이 아니다. 나 역시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먼 훗날 나의 일을 도울 날을 위해 너는 지금 고통의 길을 떠나는 것이니라. 그날이 오면 아니루다여, 너는 나의 가슴 뜰 위에서 천만의 사람들에게 거대한 종을 울리리라.'
-이천오백년의 회한 中에서-

전생의 막역한 도반으로써...이 생의 임무를 서약한 친구로서...원효는 그에게 어느 세상의 아버지보다 더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었고 설총 역시 자신의 사명을 무의식 속에서는 잊지 않고 있었다. 원효는 어쩌 보면 설총을 자식 이라기보다는 친구로서 대하고 있었다. 그와의 인과를 알고 있었기에...
-파계승의 노래 中에서-

파란만장한 전생과 중음의 삶을 지나 그렇게 아기도인은 태어난 것이다. 구선이 그 의식을 살펴보니 바라밀은 날 때부터 2선정(禪定)의 경지였다.
아기는 놀랍게도 4개월 동안 울지 않았다.
-아기도인 바라밀 中에서-

권 오임은 처음으로 구선을 보는 순간-깜짝 놀라고 말았다.
'언젠가 뵈었던 분이야! 먼...옛날부터..난 이 분을 알았었어...!'
그녀는 설법을 들으면서 더욱 확신할 수 있었다.
'이 분이다! 이 분이야말로...내 긴 수행여정의 종착역이다!'
그것은 수십 년을 수행해오면서 얻어진, 거의 본능적인 직감이었다.
-수행의 미로 中에서-

스승이 다녀간 후에 치선은 서예의 목적이 생겼다.
아니, 인생의 존재목적이 생긴 것이다.
붓글씨로써-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내리라...
-마음길을 담은 노트 中에서-

중관(中觀) 가관(假觀) 공관(空觀)
3관(三觀)의 법-
2000년 대승불교,
최상의 법(法)을 공개한다.



한치선 지음
각 권 11,000원

"네가 보현이라고? 지운큰스님의 후생이라는 보현이가 너였어?"
정오는 놀라움과 반가움에 어쩔 줄을 몰라 했다.
그녀는 보현의 가녀린 어깨를 부둥켜안고 토닥이며 조그맣게 속삭였다.
"스님...이렇게 또 뵙게 되는군요...진작 말을 하지 그랬어...요... 내가 지운스님이었던 보현이라고..."
-소녀로 돌아온 옛 스승 中에서-

'연화사는 숲이로구나...새도 와서 지저귀고 승냥이도 와서 쉬어가고...사람도 와서 열매를 따는구나. 천 가지 벌레소리가 아늑도 하구나....그렇게 더불어 끌어안고 가는 품이...나의 품보다 훨씬 더 넓은 것이로구나.'
-마음빗장을 열어라 中에서-

그의 가슴 중심에는 그러한 비젼의 씨앗이 움트기 시작했고, 무색계의 신명들이 이미 광대한 호응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생명을 사랑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장엄하려는, 빛과 소금 같은 사람들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그들이 깊은 잠의 행성인 지구를 깨우러 올 것이다.
-금강삼매경의 인연 中에서-

그것은 구선에게 주어진 엄청난 선물인 동시에 엄청난 숙제이기도 하였다.
'아! 이것은 참으로 고귀한 수련법이로구나! 어찌해서 이런 법이 여태껏 인간세계에 봉인 된 채로 드러나지 않았던 것일까...'
-태백산용신과 옴수련법 中에서-

중심....근본...
아무렇지 않다...
그 순간에는 버스도 사람도 시영도 도로도..천지도 아무렇지 않을 뿐...그 어떤 것도 그를 흔드는 것은 없었다.
-어둠의 끝을 본 눈 中에서-

그 죽음의 시간 언저리에서-
아들인 시우의 전신은...지금의 아버지의 전신에게 씻기 어려운 불만을 가지게 된 것이다.
'당신의 판단은 옳지 않았어요! 우린...당신 때문에 죽게 된거야...!' 라고.
-지옥에서 만난 인연 中에서-



봉선사·현대불교 공동 주최 / 지상 중계 4

응각 스님(수덕사 강주) / 아함경(10월 14일)



'경전수행을 통한 깨달음' 10대 강백 초청

봉선사 강설대법회

행자에 대해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게송으로써 답하였습니다.

"나이 29세에 출가하여 옳은 도 같아서도 이루어 지금에 이르기까지 50여년 지났나니 삼매와 명행 갖추고 늘 깨끗한 계 닦은 이 길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거기에 출가수행자는 있을 수 없노라. 바른 가르침과 계율에서 팔정도를 얻지 못하면 역시 초사문도 얻지 못하고 제이사문, 제삼사문, 제사사문도 얻지 못한다. 수발타라여, 그러나 만일 바른 가르침과 계율에서 팔정도를 얻으면 초사문, 제이사문, 제삼사문, 제사사문을 얻을 수 있다. 이를 제외하고 외도에는 출가수행자는 있을 수 없나니 만일 있다면 그것은 단지 외도의 스승이요, 빈껍데기 출가수행자나 사제일 뿐이다." 수발타라는 이 게송을 듣고 아라한과를 얻었습니다.

부처님은 또 열반에 들기 전, "자기를 등불로 삼고 가르침을 등불로 삼을 일이지 남을 등불로 삼지 마라. 자기에게 귀의하고 가르침에 귀의할 일이지 남에게 귀의하지 말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불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지 분명하게 길을 제시해 준 것입니다.

부처님은 수행하는 사람은 수행에 의지해서 생사를 떨쳐버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출가수행자를 네 종류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부처님이 입멸에 앞서서 다시 장소를 파바성으로 옮기시어 거기서 만난 노예계급 주나의 공양을 받았는데, 주나가 출가수행자에는 몇 종류가 있느냐고 묻습니다. 부처님은 "출가수행자는 네 종류가 있나니 그 뜻하는 바 다른 것을 분별해 알라. 첫째는 도를 행함이 뛰어남이요, 두 번째는 도의 이치를 잘 설명하는 이요, 세 번째는 도를 의지해 살아가는 사람이요, 네 번째는 도를 가장해서 더러운 짓 하는 사람이다"라고 한 것이지요.

<아함경>에서의 출가수행자와 수행자세에 대한 관점은 매우 엄격합니다. 그러니 수행자들은 이를 가슴에 새겨 수행의 채찍으로 삼을만 합니다.

부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길을 가다가 불이 활활 타오르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을 자리에 앉히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에게서 설법하는 것은 배우는 출가수행자로 하여금 수행자의 도를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위없는 청정행을 성취하려는 자는 차라리 불꽃을 튀기며 타오르는 큰 나무더미를 끌어안거나 그 위에 앉거나 누워라. 그러면 이로 인해 고통을 받거나 죽을지언정 목숨을 바친 뒤 악처에 이르러 지옥에 나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부처님은 계행에 무척 엄정했습니다. 그런데 대승경전에서는 계를 약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쌀 한톨이 만들어지기까지 여든여덟 번의 손이 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쌀 한톨에 깃든 정성과 노고를 간과하기 쉽습니다. 우리 큰스님들도 시주받은 음식에 대해 매우 엄정했어요.

요즘처럼 물질이 풍부한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소중함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작은 것 하나라도 고마운 마음으로 사용하고 먹는 것이 곧 불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출가수행자가 지녀야할 도리에 대해서도 각별히 당부했습니다.

"청정하게 계를 완전히 갖추고 좌선하는 일을 중지하지 말고 사람 사는 곳과 멀리 떨어진 고요한 곳에서 마음을 반조하고 닦으라. 또 탐욕이 있으면 탐욕을 끊고 노여움이 있으면 노여움을 끊으며 미움이 있으면 미움을 끊고 남을 가르치지 않는 태도가 있으면 그런 태도를 끊으며 번뇌가 있으면 번뇌를 끊고 아낌이 있으면 아낌을 끊고 질투가 있으면 질투를 끊고 아첨이 있으면 아첨을 끊고 속임이 있으면 속임을 끊고 자기 양심 앞에서 부끄러워할 줄 모르면 그것을 끊으며 나쁜 욕심이 있으면 나쁜 욕심을 끊으며 바르지 않은 견해를 지녔으면 바르지 않는 견해를 끊는 등 계를 성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깨달음에 이르는 것이 출가수행자의 도리이니라."

<아함경>은 부처님의 열반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불교의 근본교의는 물론 출가수행자를 비롯해 불자, 나아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가 근본으로 삼아야할 이치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사부대중은 삼보를 단순히 불·법·승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부처님은 어떻게 살았고 가르침은 어떤 것이며 그 법에 의지해서 수행하는 스님들과 불자들은 어떠해야 하는지 깊이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야 바르게 수행하는 구도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정리=박봉영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참나'를 밝히는 불자가 되라고 강조하는 응각 스님의 강설을 경청하는 불자들의 모습에서 진지한 구도열을 느낄 수 있다.

질의

"'깨닫지 못한 생각'이 죽은 후 이어져 윤회"



현봉 스님(포천 보현사 주지)

[질문1] 선수행을 위주로 하는 한국불교에서는 삼법인과 마찬가지로 '무아'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열반경>에서는 상락아정(常樂我精)이라고 하여 '진아(眞我)'를 열반의 네가지 덕 가운데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응각 스님] <아함경>에서 부처님이 삼법인 중 제법무아를 설하실 당시 우둔하고 몽매한 대중들에게 실체로서의 참다운 나인 '진아'라고 말할 수 없었지요. 제법무아라고만 말씀하시고 훗날 대중들의 지혜가 성숙된 후 대승경전인 <열반경>에서 진상, 진락, 진아, 진정의 열반사덕(涅槃四德)을 설했습니다. 또한 '진아'는 <반야심경>에서 말한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원리를 깨치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그리하여 범부는 물론 대소승의 성자까지도 망아(妄我)나 소아(小我)에 대한 인무아(人無我;사람은 일정한 '아'가 없음)의 원리를 깨쳐서 아집을 버리고 아공(我空)을 얻고 나면, 자아의 존재는 물론이요 자아 밖에 있는 만유제법도 일시적 가합(假合)에 불가하므로 법무아(法無我;법에는 일정한 '아'가 없음)의 원리를 깨쳐 법집(法執)을 버리고 법공(法空)을 얻게 됩니다. 즉 아공, 법공의 원리를 통달하여 구경열반에 도달하여 비로소 법신, 반야, 해탈의 삼덕이 구족한 진아의 본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구름이 흩어지면 달이 드러나는 것과 같이 망아의 꺼풀을 벗어버리면 진아의 묘체가 드러나는 것이지요.

[질문2] 제법이 무아라면 윤회할 것이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아와 윤회의 관계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응각 스님] 소승 독자부(犢者部)에서는 외도의 십육지견 가운데 하나인 보특가라(補特伽羅人=數取趣, 衆數者)를 아의 별명이라 내세워 윤회의 주체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부파불교인 독자부, 정량부(正量部), 경량부(輕量部)에서는 태어나서 죽어가는 주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승기신론에 보면, 일체중생을 깨달은 부처라 할 수 없는 이유는 깨닫지 못한 생각들이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생멸을 반복하여 끊지 못하는 까닭이라고 했습니다.

이 깨닫지 못한 마음이 죽은 후에도 이어져 상속된자, 즉 윤회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불교는 근본불교와 이후 발달된 사상 다 포함



박경준(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장)

[질문] 대승경전은 소승경전과 비교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많이 벗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불자들은 대승경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응각 스님] 근래에 들어 소승불교라고 낮춰보던 <아함경>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고 <아함경>의 중요성에 대한 갖가지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본불교의 입장에서 보면 후기의 대승불교는 일종의 이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승경전에서 설하는 바는 근본불교의 입장과 많이 다르거나 심지어 상반되는 논리를 보이는 상황까지 있기 때문이지요.

불교의 특성인 이단에 대한 관용적인 태도를 바탕으로 하여 '만유가 다 부처님이 설하는 가르침'이라는 <금강경> 구절의 본 뜻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방편법이라는 편리한 용어를 써가며 불교를 호도하는 스님이나 재가불자들이 실제로 포교현장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승은 불설이 아니다' 또는 '소승이 알 바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서로가 공격하는 공방전이 있기는 하나, 오늘날 흔히 '불교'라고 하면 근본불교를 비롯해 그 후에 발달되어 흡수되고 포용된 모든 사상을 포괄하여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에 대해 포용력을 발휘하는데 기본으로 삼아야 할 한계지침으로서 '삼보가 지닌 가장 기본적인 최소한의 성격'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정리=박봉영 기자

강설대법회 동영상
buddhanews.com과
bongsunsa.net에서.
셔틀버스 매주 토요일 낮12시
조계사앞 출발 (왕복 1만원)

설악산 동해사 법우광명 기념

봉영산대재행

일 시 : 불기 2550년(2006년) 10월 29일
(오전 11시 - 오후 4시)
장 소 :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학포리 156번지 동해사
전 화 : 033)672-2900



● 주최 : 의륜 문도회
● 주관 : 동해사
● 후원 :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연합불교방송 · 전통의식교육원
● 협찬 : 불탑사 상원사 정각사 청정사
자비사 효심사 광진사 혜명사
천도암 백화사 서련사 삼성암
소림사 서원사 송암정사 봉황사
법성사 성락사 와불사 천왕서원
구인정사 인천혜명사 용천사

도자기 불상 조성 전문 기업 경 동 요

천불 · 삼천불 · 만불

불상크기 : 1자
재질 : 도자기(개금)



지장 보살님



관음 보살님



지장 보살님(여의주)

경동요는 삼보에 귀의 하는 마음으로 도자기 불상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인정신으로 뭉쳐진 경동요는 20여년의 전통을 바탕으로 대덕스님들 께서 원하시는 불사에 맞추어 불상을 조성해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오며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대표 천우경 합장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고척1리 329-1번지
● 전 화 : 031)638-4531 (주간)
031)637-8789 (야간)
● 휴대폰 : 011-765-4531

불상크기 : 7치
재질 : 도자기(개금)



석가모니부처님



지장 보살님

우리집에선 '물' 마시듯 '차' 마셔요

우리 가족 식수, 어떤 차가 좋을까

건강한 삶을 꾸려가는 데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물'이다. 해마다 차 음료 시장이 급성장을 거듭하는 이유도 '마실거리'에 대한 현대인들의 관심이 높아진 탓이다. 우리 가정에서는 어떤 물을 마시고 있을까? 가족 건강을 챙기는 식수로 사용하기 좋은 차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본다.



최근 백화점이나 마트 등에는 녹차 코너가 따로 마련될 정도로 녹차가 대중화됐다. 특히 녹차를 기호음료로서 뿐만 아니라 식수로 활용하는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찬물에 잘 우러나는 녹차' '식수용 녹차' 등 식수용 티백녹차가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다. 특히 녹차의 폴리페놀 성분은 어린이들의 충치를 예방하는데도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도 있으므로,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연하게 우린 녹차를 식수로 이용해 보는 것도 좋다.

물을 끓여 잠시 식힌 후 녹차 티백을 넣고 우려낸 후 상온에서 식혀 두고 수시로 마신다. 물을 끓이기 번거롭다면 물통에 물과 가루녹차를 넣고 흔들어 섞어 마시는 것도 방법이다. 녹차의 떫은맛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현미가 함유된 현미녹차가 좋다. '현미녹차' '발아현미녹차' 등 현미의 구수한 맛을 더한 녹차티백도 시중에 많이 나와 있다.

감잎차는 차 중에서 비타민C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감잎의 비타민C는 열에 잘 파괴되지 않아 차로 마시면 감기 예방과 피부 미용에 효과가 있다. 단, 변비가 심한 사람은 감잎차를 많이 마시는 것이 좋지 않다.

가을이면 생각나는 차 중에 하나가 바로 국화차다. 은은한 향이 코끝을 감싸는 국화차는 오래 복용하면 간장이 좋아지고 머리와 혈기를 맑게 한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오장의 건강을 돕고 사지를 고르게 하며 이뇨작용을 돕는 효과도 있다. 카페인이 없으므로 하루 중 어느 때나 마셔도 상관없다.

연하게 우려 물 대신 음용해도 좋다. 처음 마시는 사람은 물 1ℓ에 국화 7~8송이 정도를 넣어 연하게 우린다. 너무 진하게 마시면 진한 향 때문에 오히려 머리가 아픈 느낌이 들기도 한다.

한국인이라면 가장 친숙한 식수인 보리차. 최근 보리차가 음료시장에도 진출했다. 최근 대기업들도 보리를 이용한 보리차음료를 속속 선보이는 등 보리차 시장은 현재 100억원대에 이른다고 한다. 구수한 맛에 익숙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인기를 끈 탓이다. 보리차는 흔히 큰 신경을 쓰지 않고 끓이거나 식혀 먹게 되는데, 제대로 만들려면 팔팔 끓는 물에 보리를 넣고 물이 넘치지 않도록 중간 불 정도에서 색깔이 우러나도록 끓이는 것이 좋다. 약한 불로 졸이듯 끓이게 되면 보리 속의 전분질 성분이 녹아 나와 맛이 좋지 않게 된다. 식힐 때도 그대로 두어 실온에 두기보다 찬물이 담긴 물통에 주전자를 담가 식히면 보리차 특유의 향을 간직하게 된다.

눈(目)을 밝게 해주는 결명자차도 가정용 식수로 즐겨 애용되는 차 중 하나다. <본초강목>에서는 결명자가 눈에 출혈과 통증이 있으며 눈물이 나는 증세에 효과가 있다고 적혀 있다. 결명자는 음력 10월 10일에 씨를 채취해 그늘에서 100일 동안 말렸다가 약으로 쓸 때는 살짝 볶아서(微炒)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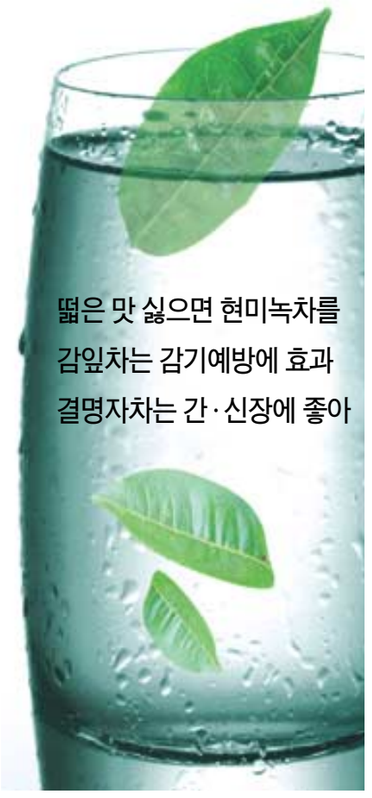
간장과 신장의 기운을 돕고 입술의 혈색을 좋게 한다. 특히 변비 증세가 있는 사람이라면 매일 결명자차 500㎖를 2~3회에 나눠 마시면 효과가 있다. 하지만 결명자의 성질이 약간 차므로 혈압이 낮은 사람은 삼가는 것이 좋다.

茶 대중화 되며 식수로 활용하는 가정 늘어
어린이 충치 예방 효과 연구 결과도 한 몫

두충차는 일명 '살 빼는 차'로 많이 알려져 있다. 강장효과가 있어 몸을 튼튼하게 하는 데 주로 사용한다. 혈액순환을 도와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이뇨작용이 있어 몸의 부종을 예방하며, 혈중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 비만에 좋다. 녹차보다 많은 비타민C를 함유하고 있어 피부에도 좋다. 물 1ℓ에 두충잎 20~30g 정도를 넣어 연하게 끓여 수시로 마신다.

한방에서 '황정'이라고 불리는 둥굴레차는 구수한 맛이 일품이다. 특히 <동의보감>에서는 둥굴레 뿌리 자체에 칼로리가 있어 배가 고플 때나 공복시에 먹으면 배고픔을 덜어준다고 전한다. 또 신진대사 촉진과 항산화작용 효과도 있다. 식수로 마실 때는 물 1ℓ에 둥굴레 40~50g 정도가 적당하다.

가을철 비듬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라면 메밀차를 끓여보자. 메밀은 성질은 차가우나 위장의 습기와 열기, 종기의 부기를 빼는 데 효과적이다. 또한 노화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활성산소의 생성을 막아주고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며, 모세혈관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강원도 평창의 메밀차가 가장 유명한데, 메밀을 사서 볶아둔 후 보리차처럼 끓여 마시면 된다.



옥수수차나 옥수수수염차도 친숙한 맛으로 인기를 끈다. 특히 옥수수수염은 몸의 불필요한 수분을 제거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므로 얼굴이 붓는 등 부종에 의한 비만에 매우 효과적이다. 이뇨효과 외에도 혈압을 떨어뜨리는 작용을 한다. 옥수수수염과 결명자, 국화차 등을 섞어 은근한 불에 오래 끓여 두고 마시면 좋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세계 각국 다법' 수강생 모집
5개월간 매월 4차례씩 진행

한국차인연합회 석정원차회(원장 선혜)는 10월 31일까지 '한국 전통 차례와 세계 각국 다법' 수강생을 모집한다.

강의는 5개월간 매월 4차례씩 진행되며 ▲한국의 차례와 세계 각국 다법 ▲한국의 차 전례와 세계의 차문화 ▲세계의 차례와 예절 ▲각종 차 종류와 차 달이는 법 등으로 구성된다. 수업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과 수요일 오후 7시에 이뤄진다. 수강료는 5만원. (02)732-2068

보이차 전문점
瑞榮普洱
진년보이·진년오룡·철관음·오룡차
대홍포·화차·인삼오룡 外 40여가지의 茶
■ 조계사 건너편 TEL 02)722-0855
H.P 017-411-0882

인류 문화속의 茶

12. 신비의 음료

⑪ 일상속의 커피

커피는 사람들의 의식과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예술과 철학, 정치와 경제뿐 아니라 동·서양의 음료 문화에 새로운 이슈를 만들었다. 중세에 알코올에 취해있던 유럽을 깨어나게 했고 신대륙의 사람들에게 활기를 불어넣었으며 부의 축적을 가져왔다.

이런 문화적인 변천과 산업화를 거쳐 온 커피는 우리 생활 속에 일상화 되었다. 언제부터인가 회의 때마다 돌려지는 커피, 밥을 먹은 뒤 마시는 커피, 건물에 어김없이 서있는 커피 자판기 등 어디에서나 접할 수 있는 이 음료는 우리의 일상 속에 자리 잡은 필수품이 되었다.

식품을 첨가해서 마시는 것 등은 커피를 마시기 시작한 초기 시대나 대중화를 이룬 지금이나 어느 정도는 일치하는 면이 있다.

하지만 지금은 정교한 커피 맛을 위한 다양한 커피머신과 바리스타가 있어 커피의 풍미를 더해 주기도 한다. 호젓한 노상 카페에서 풍겨나는 커피 향과 생음악의 노래 가락에서 옛 추억의 푸근한 기억을 떠올리기도 하며, 힘겨웠던 하루의 피로를 잊기도 한다.

이처럼 커피는 물질문명의 발달과 함께 다양한 의미를 간직하였으며 인류에게 새로운 의미의 의식을 부여하기도 한다. 즉, 자판기 앞에 선 사람들, 찻잔을 마주한 연인들, 회의석상의 한 잔의 커피 앞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일이 잘 되게 해 주세요" 하고 마음속으로 기도를 할 것이다. 이런 무의식적인 행위는 누구에 의해서도 아니며 거대한 커피산업과 기업들의 마케팅에 의해 이루어졌다고도 할 수 없다. 바쁜 일상 속에서 이루어진 문화의 형태이다.

커피-산업화·근대화 거치며 빠르게 일상화
차-정신문화·수행음료로 '웰빙음료' 주도


에디오피아 한 마을의 전통 커피 세레모니

사회에서 음료 즉 커피를 마시는 행위는 단순히 물을 대신하는 습관만은 아닐 것이며 커피가 가지고 있는 약리성, 그리고 더 나아가 대인관계의 매개체로서의 의미를 넘어 특별한 상징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

커피를 마시고 난 후 점을 치기도 하고, 커피를 가지고 의식을 행하는 부족도 있다. 이들은 커피나무를 재배하는 것으로부터 껍질을 벗겨 원두를 볶고, 원두를 찧으며, 이마에 커피 가루를 찍어 바르고 달콤한 우유에 커피가루를 넣어 마시면서 사람들과 함께 기도문을 암송한다. 이런 의식을 통해 사람들은 영적인 권능을 부여받는다고 여겼다. 이들에게 커피는 부자가 되게 하는 재물신이며 악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수호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처럼 복잡한 의식을 통해 커피를 마시는 부족이 있는가하면 버튼만 누르면 종이컵에 간이 맞추어 나오는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도 있다. 이것은 지역의 풍토성과 민족의 전통에 따른 문화의 다양성을 말해준다.

물론 '먹을거리'로서 원두를 볶아 가루를 만들어 밀크에 타서 먹는 것, 빵과 함께 먹는 것, 계피나 다른 식품을 첨가해서 마시는 것 등은 커피를 마시기 시작한 초기 시대나 대중화를 이룬 지금이나 어느 정도는 일치하는 면이 있다.

돌이켜 볼 때 커피는 이슬람이 서방세계의 침략과 함께 전파 된 것으로 진취적이며 이성적인 음료로서 세계인의 음료가 되었고, 우리에게도 커피는 19세기 후반의 외세의 침입으로 인한 혼란기에 유입되어 일제강점기와 근대화라는 물결 속에 정신없이 보낸 역사 속에 많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차(茶)는 우리의 오랜 전통과 선인들의 정신문화 속에서 광채를 발휘하고 있으며 자기실현을 위한 음료로 수행(修行)과 함께 시작되어 동양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세계 3대 음료중의 하나인 기호품이 되었다. 이처럼 차와 커피는 음료로서 많은 이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커피의 역사를 문화사적 측면에서 살펴보았으며, 다음 호부터는 차 문화사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한다.

■ 이창숙(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 연구원)

바로보인의 책들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저 / 조계종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 5권 출간>

과학도 밝히지 못한 태초와 우주탄생의 비밀,
더불어 웅장한 우리의 고대사를 밝혀놓은 환단고기.
근본성품으로부터 비롯하여 전우주, 지구촌으로 이어온
광대무변의 역사와 진리를 천강대선사의 인가제자인
대원 문재현 선사님께서 일체종지를 통달한
명안종사의 안목으로 밀밀하게 바로보였다.
<선(禪)을 묻는 그대에게 1, 2권 출간>

선(禪)을 묻는 그대에게는 대원 문재현
선사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답한
선수행 문답집이다.
깨달아 사무친 경지에 대한 이렇게 밀밀한
점검과, 오후보림에 대한 이토록 구체적인
수행법 제시와, 최초의 무명과 우주생성의
원리까지 온전하게 통달하여 낱낱이 설한
이러한 법문은 여태까지 없었다.
바로보인
☎02-522-0122 www.zenparadise.com

소중한 인연을 위한 정성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몸에 좋은 조청으로 심신을 새롭게 한다
전통 비법으로 산사에서 스님께서 직접 만드신... 山寺 조청
♣ 山寺조청 은 공해시대, 무엇을 먹어야 안심할까 고민하는 당신에게 참 좋은 인연입니다.
♣ 山寺조청 은 산천 초목의 뿌리 잎, 줄기, 열매의 영양소를 고스란히 뽑아내어 우리전통의 조청으로 고아낸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입니다.
♣ 山寺조청 은 비구니 스님들의 청정심과 지극한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옻이 오르지 않는 山寺 참옻 조청 1.2kg
어혈, 냉증, 위장장애, 피로 독소, 적체의 해소, 신경조율, 항암, 원기회복등에 기여
山寺 야도라지조청 1.2kg
기관지, 천식, 기침, 거담, 배농작용, 폐기능, 호흡기질환, 피로회복등에 기여
국민건강을 생각하며 100% 천연으로 만들었습니다
山寺조청 웰빙 자연당
● 각종 요리, 무침, 조림 등 반찬 만드실 때
● 떡, 빵, 과일 드실 때 ● 고추장, 김치 담그실 때
1100g×2병 = 18,000원
옛날 방법 그대로 만든 순수한 맛,
이제는 물엿 대신 산사조청 웰빙 자연당을 쓰십시오.
● 주문 및 문의 : 대한불교조계종 금융사
054)372-3166
● 입 금 처 : 농협 727077-52-056761(현순희)
맑은 마음 깊은 정성 山寺 조청원



좋은 책, 향기로운 삶
茶道 월간 다도 과월호를 판매합니다
문의전화 | 02)722-7777
과월호의 권당 가격은 5,000원

가을철 별미 부각 맛·영양 부각되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김부각, 감자부각, 산초부각, 생강나무부각, 자소부각, 우엉잎부각, 방아부각.

가을철 햇볕이 길어지면 주부들은 겨울철 먹을거리 준비에 손길이 바빠진다. 이즈음, 산사의 공양간도 '부각'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부각은 김이나 다시마·깻잎·고추 등에 찹쌀풀을 발라 튀긴 것으로, 채식을 하는 스님들의 열량 부족을 해결해주는 식품이다.

기름에 튀긴 음식이 그다지 발달하지 않은 우리나라 전통음식 중 튀각과 부각은 기름기를 보충할 수 있는 중요한 음식이다. 재료에 찹쌀풀을 묻혀서 튀긴 것을 부각, 재료 그대로를 튀긴 것을 튀각이라 한다. 주로 깻잎, 고추, 감자, 가죽나무순, 우엉잎 등 야채류와 김, 다시마, 미역 등의 해조류가 이용된다. 콩이나 죽순 등도 쓰인다. 부각은 찹쌀풀을 발라 말렸다가 필요할 때마다 기름에 튀겨 먹기도 한다.

부각과 튀각은 예로부터 사찰에서 주로 만들어 먹었는데, 특히 송광사에서 만드는 감자부각과 고추부각, 통도사 가죽튀각, 해인사의 산동백잎부각, 구례 화엄사의 참죽부각, 여수 향일암의 김미역부각, 등이 유명하다. 송광사 고추부각은 삭힌 찹쌀풀과 고추를 함께 빻아 간장으로 반죽한 후 물에 삶아 건져 말린 다음 기름에 튀겨 만드는 것으로, 일반적인 고추부각 만드는 법과 차이가 있다.

부각을 보관할 때에는 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밀폐된 용기에 넣어두거나 종이상자에 담아 건조한 곳에 두는 것이 좋다.

기름기 보충 해주는 전통음식
송광사 감자·고추 부각 유명
찹쌀풀 입혀 가을볕에 말린 후
겨우내 바로바로 튀겨 먹어

글=여수령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도움말: 선재사찰음식연구원장 선재 스님, 한국전통사찰음식연구원장 적문 스님

만·드·는·법

찹쌀 일주일 이상
물에 담가놓고 써야
튀길때 잘 부풀어

찹쌀 삭히기: 부각용 찹쌀풀을 만들 때는 일주일 이상 담가놓은 찹쌀을 써야 튀겼을 때 잘 부푼다.

찹쌀풀쑤기: 삭힌 찹쌀을 먼저 믹서에 간다. 간 찹쌀을 냄비에 넣고 오랫동안 나무 주걱으로 저으며서 꽈리가 생길 때까지 조금 되직하게 풀을 쑤어 식힌다.

찹쌀풀 발라 말리기: 찻잎 산동백, 깨송이 등 부각 재료에 찹쌀풀을 발라 서로 겹치지 않게 체에 널어준다. 처음에는 쟁반에 비닐 랩을 깔고 부각을 널어 서로 붙지 않도록 여러 번 떼어내 주고 어느 정도 마른 후 채반에 옮겨 말린다.

튀기기: 기름이 완전히 달궈진 후 재료를 넣어 튀긴다. 기름에 넣자마자 찹쌀풀이 부풀어 오르므로 곧바로 건져낸다.



▷ 김부각

김 10장, 찹쌀가루 1/2컵, 소금 약간, 물 1/3컵, 참깨 1작은술, 식용유

① 김은 두꺼운 것으로 선택해 잡티가 없도록 손질한다.
② 찹쌀가루에 물을 넣고 소금으로 간을 해 풀을 쑤어 식혀 둔다.
③ 찹쌀풀이 차게 식으면 김에 얇게 펴서 바른 다음 다시 한 장을 포개고 그 위에 찹쌀풀을 골고루 펴서 바른 다음 참깨로 고명을 해서 그늘에서 말린다.
④ 부각이 바삭바삭하게 마르면 140℃의 기름에서 빨리 튀겨낸다.



▷ 고추부각

고추 300g, 찹쌀가루 1/2컵, 소금 약간, 설탕 1작은술, 물엿 1큰술, 통깨 1큰술, 식용유

① 고추는 연한 것으로 선택해 꼭지를 떼고 씻는다.
② 물기를 덜 뺀 고추에 찹쌀가루를 묻혀 찜통에서 4분 정도 찐다.
③ 햇볕에서 바삭하게 말린 후 170℃의 기름에서 튀긴다.
④ 냄비에 물엿을 넣어 불에 녹인 후 튀긴 고추를 넣고 살살 버무리면서 설탕과 통깨를 뿌린다.



▷ 다시마부각

다시마 100g, 찹쌀가루 1/2컵, 소금 약간 식용유

① 다시마는 얇은 것으로 선택해 젖은 행주로 깨끗이 닦아 먹기 좋은 크기로 손질해 둔다.
② 찹쌀가루에 물과 소금으로 간을 해 풀을 쑤어 식혀둔다.
③ 다시마에 찹쌀풀을 골고루 발라 말린다.
④ 찹쌀풀이 바삭하게 마르면 160℃의 기름에 튀겨낸다.

체험! 사찰음식 현장

KBS 1TV '체험 삶의 현장' 서 적문 스님, 탤런트 이정섭씨에 사찰음식 노하우 전수

한국전통사찰음식연구원장 적문 스님이 10월 29일 오전 9시 방영되는 KBS 1TV '체험 삶의 현장'에서 탤런트 이정섭씨에게 사찰음식 노하우를 전수한다.

'체험 삶의 현장'은 사회 저명인사들과 연예인이 다양한 일터에서 직접 일해 봄으로서 이웃들의 노고를 되새겨보는 프로그램. 이정섭씨는 그동안 KBS TV '이정섭의 요리쇼'를 진행하고 <이정섭의 맛있는 우리음식> 등의 요리책을 펴낸 것은 물론 직접 한식당을 운영할 정도로 요리에 조예가 깊어 '사찰음식'에 도전하게 됐다. 10월 11일 경기도 평택 수도사 내 전통사찰음식 학습체험관에서 진행된 촬영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려 8시간에 걸쳐 마무리됐다.

적문 스님은 "최근 '웰빙'이라고 해서 사찰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단순한 조리법이 아닌 사찰음식에 담긴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리는데 주력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사찰음식연구소는 개원 14주년 기념 '겨울철 전통사찰음식 강좌'와 사찰음식 체험 템플스테이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강좌는 60여 가지의 겨울철 사찰음식을 배워보는 프로그램으로 11월 2일부터 3개월 동안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수도사에서 진행된다. 선착순 25명, 수강료 50만원. 사찰음식 템플스테이는 10월 28~29일 1박 2일 동안 사찰에 머물며 직접 가마솥으로 밥을 하고 단감김치 등 다양한 사찰음식을 만들어 보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참가비 5만원. (031)682-3169



적문 스님(왼쪽)이 탤런트 이정섭씨(왼쪽에서 두번째)에게 사찰음식을 설명하고 있다.

마산 중리복지관, 28일 종교단체 바자회

마산 중리종합사회복지관은 10월 28일 마산 삼계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더불어 함께 사는 행복한 마을장터' 바자회를 개최한다. 이번 바자회는 중리종합사회복지관과 자비정사, 호계성당, 호계문창교회 등 지역 종교단체들이 종교를 떠나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다. 의류·학용품·생활잡화 등의 재활용품과 파리바게트가 협찬한 제과류 등이 판매될 예정이며, 먹거리장터와 사물놀이·즉석 장기자랑대회·재활용 발명품 만들기 등의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055)231-8017

인드라망생협, 친환경 무농약쌀 판매

인드라망생활협동조합은 10월 30일까지 지리산 실상들에서 친환경농법으로 지은 무농약 햅쌀을 판매한다. 햅쌀 가격은 현미 백미는 20kg에 6만원, 찹쌀은 7만원. (02)576-1882

※ 기사넘쳐 이번주 '5000원으로 만드는 사찰음식'은 쉽니다.

절 수행 삼매 체험 건강비법 노하우 완전공개
절을 氣차게 잘하는 법 호흡에 맞춰 절하는 법
절할 때 흡흡호 호흡법은 저절로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가장 완벽한 비법으로, 절하고 일어설 때 마다 가슴차크라가 열리고 단전이 뚫리면서 가슴 막혔던 지독한 업장덩어리의 팔자가 고쳐지고, 병고액난의 병 덩어리가 녹아내리는 기적 같은 신비로운 일들을 수시로 체험하게 됩니다.
⊙ 허리, 무릎, 발목, 발바닥에서 땀이 나며, 냄새 지독한 노폐물의 병독이 엄청나게 빠져나가며 두한족열이 되어지는 진짜 건강법의 절로, 머리는 얼음처럼 시원하고 몸은100% 따뜻해짐
⊙ 팔다리 가슴에 털이 많거나, 손가락 발가락마디, 무릎, 허리, 목이 까맣거나, 등허리 피부가 검고 지저분한 반점에서 병고액난의 많은 노폐물과 나쁜 기운이 빠져나가며 맑고 깨끗한 몸이 됩니다.
⊙ 붉은 얼굴, 여드름, 아토피, 대머리, 백발, 고혈압, 당뇨, 심장병, 화병, 상기병, 만성피로, 혼침, 졸음, 골치 아픔, 가슴 답답함을 일으켰던 성냄의 화독이 입과 코와 온몸에서 빠져나가며 얼굴은 환하게 밝아지고, 몸은 새털처럼 가벼워지고, 마음은 언제 환희심 삼매를 체험합니다.
▶수련일시
서울 군자법당 :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오후 7:30
부산 금정법당 : 매주 화요일 오전 10:30, 오후 2시
준비물 : 기도포, 수건, 두꺼운 면양말, 법복바지
불교신행단체에서 수행비용 일체를 후원해줍니다.
※ 절 하는 법 교육받을 시간이 없으신 분은 특별수련시간을 조율 받으십시오.
※ 절을 잘하시는 분의 99.999%는 흡흡호 호흡법의 비법테크닉을 배우고 전수받은 수행자입니다.
백만불자 108배 만일결사 수행중심교육도량 **법왕정사**
청견스님 011-9088-9449
서울군자법당 02)456-0035 / 부산금정법당 051)583-7886
http:///cafe daum.net/sorisan(절하는 법 동영상 참고)

스님이 직접만든
원주 생식
● 현미를 비롯한 17종의 곡류 31.56%
● 녹색채소, 담색채소, 황색채소 22종 31.9%
● 버섯류, 한약재, 해조류 10종 26.3%
◀ 1일 1끼 40g 1포×60포 60,000원
★청국장 분말 (우리콩) 1Kg 20,000원
★청국장 환 (우리콩) 1Kg 25,000원
▣치료식
▣건강식
▣발아생식
당뇨환자 전화상담
무상사 053-958-5921
우체국 703314-01-001873 예금주 무상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1동 산28-3 무상사
생산물배상책임보험(동양화재해상보험) ISO 9001 품질인증업체
유통기한중 이상있는 제품은 구입처에서 교환해 드립니다.

'장애청소년과 함께 떠나는 주말 가족 산행'
참가자 모집 공고
서울근교 지역의 산으로 일요일 총 4회에 걸쳐 부모-자녀, 장애청소년이 가족을 이루어 전문산악인과 숲 해설가, 청소년지도사와 함께 떠나는 산행봉사 활동에 학부모님과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모집구분

	날 짜	산행지	인 원	활 동 내 용	
1회	10월29일(일)	북한산	가족단위로 선착순접수 중 고등학생 매회 3~4인 가족	오 전 09:00 ~ 12:00	① 입소식, 장애·비장애 가족구성 ② 라포 형성 및 안전지도 교육 ③ 산행지 출발 ④ 산행지 안내 활동, 즉석사진촬영
2회	11월05일(일)	도봉산			
3회	11월12일(일)	수락산		오 후 1:00 ~ 5:00	· 점심(도시락) · 소감 나누기, 설문지 제출 · 장애인 시설까지 배웅
4회	11월19일(일)	불암산			

◑ 유의사항
산행 봉사활동에 참여시 반드시 사전교육 1회 이상 참석 후 가능
1차) 2006. 10. 28(토) / 2차)11. 11(토) 10:00 ~ 14:00
◑ 접수기간
2006. 10. 23(월) ~ 11. 3(금) 선착순 마감
◑ 제 공 ※ 자원봉사 확인증 발급
등산용 긴팔셔츠, 간식, 도시락, 수건, 배낭대여, 사진, CD앨범
◑ 주 최 사)대한불교청소년연합회
◑ 후 원 국가청소년위원회
◑ 신청문의 사무국 02)735-8165 / 733-5138
사) 대한불교청소년연합회(부설 청소년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www.yeba.or.kr / E-mail : yeba@chol.com
※ 전화접수 /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서 작성
사단법인 **대한불교청소년연합회총재**

어르신을 모시는 사회
편안한 노후생활-천혜의 자연과 함께 아름다운 삶을 보낼 수 있는 곳
거 북 마 을
실비노인요양시설
(경기도 파주 소재)
태봉산에 위치한 약수암이 운영하는 거북마을은 어르신을 내 집 내 부모처럼 편안히 모시며 여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마을입니다
[입소비용] 저렴한 비용, 안락한 시설, 최상의 서비스

입주보증금	월생활유지비	비 고
4,000,000 (상담 후 결정)	568,000	치매,중풍 등 중증어르신 모심

[입소상담 및 문의] 안경주 부원장 010-4874-4732
"자비의 마음으로 어르신의 포근한 보금자리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거북마을 원장 신 선 기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346-1
TEL 031)953-4805, FAX 031)953-4806
WWW.YOUNGTOP.OR.KR
한국불교태고종 약수암



석가모니

만화로 본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

이 책 <석가모니>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에서 출가, 열반에 이르기까지의 일대기를 만화로 쉽고 재미있게 꾸민 것입니다.

인도 카필라 왕국의 왕자로 태어난 싯다르타는 사람이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에 대해 고민하다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명예와 부를 버리고 출가합니다. 그리하여 오랜 수행 끝에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어 부처님이 됩니다. 부처님은 그 뒤 수많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고통에 허덕이는 중생들을 제도하다 열반하셨습니다.

이 책은 삶 자체가 가르침인 인류의 위대한 스승 부처님의 일생을 통해, 어린이들이 잠되고 올바르게 사는 방법을배우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

글구성 · 그림 이범기/4×6배변형판/320쪽/값9,600원
도서출판 능인



부자보다는 잘 사는 사람이 되라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에게 법상스님이 들려주는 이야기

단순히 돈 많은 부자가 되지는 말라. 마음이 부유한 참된 부자가 되라. 못 사는 부자가 되지는 말라. 돈은 없어도 마음이 풍요로운 부자, 이웃과 나눌 줄 아는 부자, 부유함이 언젠가는 떠나갈 것을 아는 부자, 깨어 있는 부자, 최선을 다하는 부자, 그런 부자가 되라.

법상 지음/신국판/279쪽/값9,500원
도솔



만화로보는
진본서유기 1-6권

동양의 판타지 고전 문학 <서유기>를 진본 그대로 만화로 재구성한 『만화로 보는 진본 서유기』

<서유기>는 언제나 마음속에 있는 번뇌 때문에 괴로워하고 주저앉는 사람들에게 뚜렷한 목적과 신념만 있다면 번뇌를 극복하고 바라는 것을 성취할 수 있음을 알려주면서, 세상을 살아감에 꼭 필요한 지혜를 제시한다.

이 책은 동양 최고의 판타지 고전「서유기」를 진본 그대로 만화로 엮었다. 위대한 고전은 시간이 흐를수록 빛을 발하는 법. 이 작품은 어려운 고전을 쉽게 읽을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 될 것이다.

오승은 원작 조태호 그림/신국판/각권 222쪽 내외/각권 값 9,800원
맑은소리

밀리언셀러 《화》의 저자 틱낫한 스님의 2006년 신작

prayer 기도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것을 지키는 힘

기도는 종교의 전유물이 아니다.
기도는 우주가 인간에게 선사하는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선물이다.



출판의 名家 명진출판



창간 12주년
인터넷 불교 종합 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서울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02) 737-0695

현대불교신문 및 책방여시아문 12주년 기념이벤트

지면에 나온 출판연합서적 구입시 사은품을 드립니다.
- 2만원이상 구매고객 : 불교평론 합본 CD (총 200개)
- 3만원이상 구매고객 : 설선대법회 법문 CD (총 100개)
- 10만원이상 구매고객 :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테입세트 (총 50세트)









아름다운 절 아름다운 스님

산사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서른세분의 스님 이야기

내가 만난 스님들은 고집쟁이들이었다. 주위의 시선에 아랑곳없이 묵묵히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외골수들이었다. 융통성과 재주와 재치가 판치는 세상에서 아직도 원칙과 상식, 도덕을 받드는 자유인들이었다. 어느 상황이 닥쳐도 훌훌 털어버리는 홀가분함, 앞뒤 재지 않는 무대책, 명분이 서지 않으면 낭떠러지인 줄 알면서도 발길을 옮기지 않고 꼿꼿하게 길을 가는 채우기보다는 버림을 선택하는 버리기 도사들. 성향과 방식은 다르지만 모두 자유인들이다. 그래서 통쾌하고 시원했다.

이연정 지음/신국판/320쪽/값 12,000원
민족사

현대고승법어(現代高僧法語) 총서

알기쉬운 법어(法語)와 정신적, 사상적 가치 정립을 위한 불교의 길라잡이



1.경봉(鏡峰) 큰스님 14,000원
문빗장을 만져 보거라
2.경산(京山) 큰스님 14,000원
넉넉한 마음으로
3.청담(靑潭) 큰스님 9,000원
마음에서 마음으로
4.구산(九山) 큰스님 12,000원
머물며 흘러가며
5.혜암(慧庵) 큰스님 12,000원
길을 묻는 그대에게
6.해안(海眼) 큰스님 12,000원
마음이 곧 부처
7.청화(靑華) 큰스님 12,000원
순간에서 영원으로
8.관응(觀應) 큰스님 9,000원
화엄의 바다
9.묵담(默潭) 큰스님 10,000원
모든 것은 흘러간다

도서출판 밀알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5권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을 파헤치다!

웅장한 우리의 고대사와
과학도 밝히지 못하는
우주탄생의 비밀을
밝혀놓은 환단고기.
천강대선사의 인가제자인
대원 문개현 선사님이
명안종사의 안목으로 바로보였다.

☎ 02-522-0122
www.zenparadise.com



방거사 어록 강설

"신통이니 묘용이니 무엇을 말하는가(神通幷妙用)? 물 긷고 나무 나르는 일 바로 그것인 것을(運水與搬柴)".

'중국의 유마거사라고 불리는 방거사. 간화선의 주창자인 대혜 스님이 「서장(書狀)」에서 방거사의 임종게 「臨終偈」를 극찬한 까닭은 무엇일까? 임제선의 정맥을 잇고 있다고 주장하는 한국불교에서 왜 1,200년 동안 「방거사어록」을 통해 한번도 간행하지 못했을까?

이책에서 강설을 맡은 혜담지상 스님은 「방거사어록」을 통해 방거사와 당시의 선풍이 우리시대와 한국불교사에 올바로 조명되기를 조명하였다.



혜담지상스님지음/신국판/양장본 328쪽/값15,000원
불광출판부
www.bulkwang.org



까말라씰라의 수습차제 연구

-쌈예(bSam yas)의 논쟁 연구-

인도의 고승 까말라씰라가 대승불교의 아름답고 심오한 길을 자상히 들려준 법어를 모은 수습차제를 연구한 책으로, 그동안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티베트불교를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안내서다.

이 책은 티베트에 인도불교가 전해진 과정, 티베트에서 중국의 선불교가 자취를 감추게 된 쌈예의 논쟁, 중국의 선불교에 대한 티베트 스님들의 비판 등을 상세하게 설명한 후에 까말라씰라의 불교수행관이 고스란히 들어 있는 수습차제를 상세한 주석을 곁들여 번역, 소개하고 있다. 역설적으로 우리의 선불교를 굳건히 하는데 기여를 하는 책이다.

중암 지음/신국판/516쪽/값20,000원
불교시대사



의상대사이야기

의상대사는 원효대사와 함께 우리나라를 대표한 세계적 고승이다. 신라 화랑의 최고 지도자인 안함스님에게 출가하여 자장율사에게 계를 받았으며, 원효스님과 함께 낭지스님의 지도를 받았다.

당나라에 머무르면서 지엄으로부터 화엄을 공부한 것은 8년 동안의 일이며, 의상이 터득한 화엄사상은 넓고도 깊이 있는 것이었다. 674년 경주의 황복사에서 표훈 · 진정 등의 제자들에게 <화엄일승법계도>를 가르쳤고 이후 우리나라에 화엄사상이 전개되어 있었지만, 화엄사상이 크게 유포되기 시작 한 것은 의상으로부터 비롯되었다.

현고추천 · 근일 감수 · 활안 편저/신국판/284쪽/값 10,000원
불교정신문화원



불일 보조국사와 조계산 송광사

이 책은 크게 두 편으로 조직되어 있다. 제1편에서는 보조국사의 생애와 사상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제2편에서는 송광사의 역사를 간략히 정리하여 중근세 한국불교의 실상을 엿볼 수 있게 하였다.
보조국사 지눌은 고려 중기 승려로 한국 선종의 중흥조이다. 8세 때 종휘에게 나아가 승려가 된 뒤로 당시의 종파대립적인 교육을 지양하고 모든 이에게서 배운다는 트인 자세로 정진하였다.
1182년(명종 12) 승과에 급제하였고, 90년 뜻을 같이하는 이들을 모아 정혜결사를 맺고 취지문을 선포하였다.

현고 · 활안 편저/신국판/449쪽/값 12,000원
불교정신문화원



관세음보살의 기도

12세기 초부터 세상에 소개된 관세음보살 성도기

중국의 흥림국 묘장왕의 셋째 딸이 왕의 반대에도, 불법을 믿고 수행하다가 마침내 왕궁을 떠나 출가하여 향산에서 쉰세음보살로 성불한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신비와 전설에 둘러싸인 비전으로만 전해지다가 12세기 초부터 세상에 소개된 이 이야기의 원전은 <관세음보살본행경>, 혹은 <향상보권>으로 불린다.
관세음보살이 인간으로 현신하였다가 갖은 고통과 박해를 견뎌내고 향산에서 자비의 보살로 성불한다는 성도기다.

"계율을 닦아야만 삼악도(三惡道)를 벗어나며, 선정을 닦아야만 여섯 가지의 욕심(六欲)을 벗어나고, 반야의 지혜를 얻어야만 삼계를 자재하니라"

정찬주 편역/신국판변형/164쪽/값9,800원
솔과학



생각이 열리는 지혜의 샘
만화 백유경

이솝우화보다 재미있는 부처님 말씀 60가지

인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 오는 98가지 이야기를 엮은 <백유경>에서 60가지 이야기를 선별해 만화로 구성한 책. <백유경>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불교 교리에 비유를 곁들여 구성한 책으로, 비유문학의 대표적인 경전이다.

이 책은 당장의 이익에 눈이 멀어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들의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를 통해 삶의 지혜를 일깨운다. 또한 불교의 사상을 은연 중에 알게 하는 해학적이고 해박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 쉽고 재미있게 불교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는 책이다.

김장열 글 그림/4×6배판변형/249쪽/값10,000원
솔바람



마음 탓 이다

홀로 깨치고 더불어 나누는 지수 스님의 마음공부

당신 안의 행복을 일깨워주는 책!
마음속 화는 태워버리고
마음속 미움은 흘려보내라.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에 눈 멀지 말고, 진정 오늘을 살아라. 아, 그대 마음이여.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건만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항상 더불어 사는 이 불생불멸의 마음, 마음, 마음이여, 마음 탓이로다.....

지수 스님 지음/신국판/258쪽/값9,500원
시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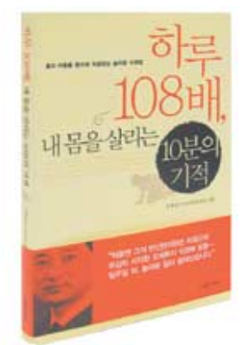
새 벽 향 기

영혼을 정화하는 맑은 차 향기 같은 글

메마르고 삭막해져 가는 군대에 전한 『새벽 향기』. 전라남도 장성 상무대 무각사 주지 스님인 저자는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새벽마다 군인들에게 메일을 보낸다. 낯설기만 한 군대에서 자칫 몸과 마음이 피폐해질 수 있는 군인들과 삶의 의미는 물론, 정서의 풍요로움을 공유하기 위해서다.

이 책은 저자가 군인들에게 새로운 깨달음의 계기를 부여하기 위해 새벽마다 보낸 메일을 모은 것으로, 군인들 뿐 아니라 바쁘게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선물처럼 기쁜 오늘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화두를 넌지시 던지고 있다. 또한 매일을 의미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한다.

이정우 지음/4×6판 양장본/269쪽/9,500원
씨앗을 뿌리는 사람



하루 108배, 내 몸을 살리는 10분의 기적

몸과 마음을 동시에 치료하는 기적의 수련법!

이 책에서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절'을 바쁜 현대인에게 가장 적합한 운동으로 소개하고 있다. 막역한 친구가 당뇨로 쓰러진 후 108배로 건강을 되찾는 과정을 지켜본 저자는 한의사로서 '절'이 가진 운동의 효과와 의학적 치료성에 주목한다. 108배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10여분. 이 10분이 병든 몸과 마음에 끼치는 기적 같은 힘을 자신은 물론 환자들을 통해 확인한 저자는 절하는 방법을 바꿔가며 운동법으로서 가장 좋은 절 동작을 연구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이 절에 108배 운동이라는 이름을 붙인다.

김재성지음/신국판/237쪽/값10,000원
아름미디어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스님

각자 여러분의 뿌리를 진짜로 믿어야!

(지난 호에 이어서)

▲질문자1(남): 스님의 귀한 설법에 감사 올립니다. 저는 부산에 가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주대학교 법정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스님께서 혹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달 전에 저의 딸애가 부모와의 인연을 끊고 세상을 버렸을 적에 스님께서는 저희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 주시고 슬픈 마음을 위로해 주시며 사람이 태어나서 만나는 인연법, 윤회법을 가르쳐 주시고 저희 가정이 새로 출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다시 거듭해서 그 높으신 은혜에 감사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평소 스님의 설법에 항상 감복하고 깨달은 점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생활 참선 혹은 관법에 대해서 몇 가지 의정을 갖고 있는데 소박한 마음으로 이 궁금증에 대해서 큰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몇 가지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스님께서는 늘 말씀하시기를 관법을 잘 익히라고 하십니다. 일반 승가에서는 조주 선사의 '무(無)' 자 화두나 '이 뭣고?' 화두를 들고 정진하는 경향에 비해서 스님께서는 다른 화두는 일체 주지 않으시고 오직 주인공만을 화두로 삼으라고 하심이 곧 생활 참선이요 관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평소 생활하는 가운데 주인공을 믿고 일체 그 자리에 맡기고 지켜보자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과연 이것이 제대로 잘하는 것인가?' 하는 의심을 가끔 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침 받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보통 우리 일반 불자 가정에서는 한마음 공부를 더욱 돈독히 하기 위해서 카세트 테이프나 혹은 비디오테이프를 통해서 설법을 듣거나 혹은 불경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아침에 카세트로 설법을 듣고 출근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하루 일과를 매우 충실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바쁘다 보면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 하고 그냥 뭐 대충 듣기도 하고, 마음자리에 관하지 않고 건성건성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텔레비전을 틀어 놓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과 이렇게 귀한 진리의 목소리를 틀어 놓고 듣지 않고 지나가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우리들 마음속에는, 아까 스님께서 설하시기를 생명 있는 모든 의식들이 다 주인공의 지휘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했는데 혹시 나는 의식이 그 설법에 마음을 두지 않았지만 다른 의식들이 그 설법만큼은 어떤 감응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소박한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도 스님의 큰 가르침이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님: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선생님께서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럴 것이고 저렇게 생각했다면 저럴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한테 '꼭 마음공부를 하셔야 된다. 각자 여러분의 뿌리를 진짜로 믿어라. 마음으로는 그 몸을 다스리면서 행동하셔야 되고 안으로는 믿고 가셔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바깥으로 카세트를 놓고 듣는 것은 물리를 틔우고 지혜를 얻고 모든 그 사물의 이치를 완전히 넓히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가 듣고 누가 지금 살림을 하고 누가 다니고 있습니까? '누가 보고 누가 듣고 있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듣는 놈은 누구고 보는 놈은 누구고 하는 놈은 누구고, 아니다 하는 놈은 누구고 그렇다 하는 놈은 누구입니까? 바로 각자 여러분입니다.

▲질문자1(남): 스님, 감사합니다.

▲스님: 그리고 또 아까 화두 얘기 하셨는데, 옛날에는 화두를 주면 그냥 마음으로 직결해서 들어갔는데 지금은 안방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통해 세계를 내다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이 화두를 줬다, 어느 스님이 화두를 주셨다 이런다면 벌써 그 스님한테서 화두를 받았다는 생각부터 앞섭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으로 완전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두가 진짜로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항상 겉으로 화두가 끊어질까 봐 애를 쓰면서 쩔쩔매고 오히려 더 겉돌아요. 자기가 이 세상에 나온 게 화두인데 남한테서 또 화두를 받아 가지고 한다면 그 화두가 겉돌지 않습니까? 그러니 공부는 아예 하기 틀렸죠.

▲질문자2(남): 이렇게 좋은 날 먼 길을 왕림하시어 부산 불자들을 위해 감로법을 설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저는 질문에 앞서 스님께 부탁 아닌 부탁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달마 조사께서는 280세, 단군 할아버지께서는 117세를 사셨다고 합니다. 히말라야 성자 바바지께서는 600세를 사셨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 히말라야 산맥 주변에 거주하는 성자들은 500세 이상을 생존해 계시면서 중생들을 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님, 무시무종이라고 합니다만 심봉이 바로 서지 못해 정신세계의 맛을 올바로 보지 못하고 있는 저로서는 스님께서도 현 법체를 500세 이상 유지하시면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철부지 어린애가 떼쓰는 것 같을지라도 한마음 내 주시면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오로지 저희들을 위해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스님: 하이구! 우리가 말입니다,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영원히. (대중 박수) 삼천 년 전의 석존이 되든 단군 할아버지가 되든 누가 되든 여기 이 자리에 여러분이 계신 한 여러분이 다시금 변장하고 다시 나온 것이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죽었다 하는 것이 죽는 게 아니라 바로 옷을 빨아 입으려고 벗어 놓고 다시 새 옷을 입는 거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돌아갑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대중 박수)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요. 참, 형제같이 아주 절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스님이 되고 한 사람은 사회에서 그냥 살았는데, 사회에서 사는 사람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더랍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 좋은 데로 천도나 좀 시켜 달라고 그 친구 스님을 불렀더랍니다. 그러니까 친구 스님이 와서 하는 말이 "에이, 오지나 않았으면 가지나 않을 것을…." 그러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른 쉽게 말해서 '아니, 살지 않았으면 죽지나 않을 걸….' 하는 소리와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 그 말을 한번 거꾸로 생각을 해 본다면 영원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죽는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자기가 한 대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현실에 다시 나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허탈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가게에 물건을 사러 갈 때 반드시 돈을 주고 물건값에 해당하는 거를 사 옵니다. 그런데 내가 돈을 줬다고 하며 또 그쪽에서는 내게 물건을 줬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내가 받은 새가 없고 너도 나를 준 새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진리라는 것은 그렇게 정확하고 그렇게 아주 빈틈이 없는 것이며 생활인 것이며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니 무시무종 이 자체가 바로 그대로 우리가 지금 하고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 오시느라고 걸어오셨겠죠? 그런데 누구를 봐도 발자국을 모아서 걸머지고 온 분 하나도 없네요? (대중 박수)

▲질문자2(남): 이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허허허….

▲질문자2(남): 스님, 오늘 설법 도중에 이미 해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만 준비해 온 질문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한마음선원에 오게 되면 다른 사찰과는 여러 가지 다른 점이 눈에 띕니다. 우선 법당부터가 불상 한 분만 모셔져 있고 장엄물이 적습니다. 또 관음재일 지장재일이니 하는 기도나 금강경 강의나 다른 경전 강의 하는 것을 못 봤고 오직 한마음 주인공을 관하라고만 하십니다. 이 차이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스님: 만약에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아버지가 둘 셋이라면 그거 참 골치 아프겠지요? 허허허…. 어머니가 둘 셋이라도 골치 아픈 일인데 아버지가 둘 셋이라면 얼마나 골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은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이 바로 하나일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만사가 하나로 돌아갑니다. 삼천대천세계 우주 삼라만상이 전부 하나로 돌아가며 그 하나마저도 공했다 했습니다. 아까도 '내가 나라고 내세울 게 하나도 없다. 내면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하나도 내세울 게 없다.' 했죠? 그러니까 모두 내면으로도 나 아님이 없고 외부적으로도 나 아님이 없는 것입니다. 왜? 보십시오.

어떤 회사를 경영하는데도 직원이 없으면 사장이 없을 것이고 사장이 없으면 직원이 없을 것입니다. 직원과 사장이 어떻게 둘입니까? 네? 이게 없어도 아니 되고 저게 없어도 아니 되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생명이 없어도 아니 되고 마음내는 게 없어도 아니 되고 육신이 없어도 아니 됩니다. 마음내는 게 없으면 목석이고 생명이 없으면 무효고, 육신이 없으면 보이지 않으니 말입니다. 또 손가락 하나도 없어서는 아니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지금 뭐라고 했는데 내가 이런 말을 하죠? 하하하…. (대중 웃음, 박수)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지금 이 말을 하고 가죠?

▲질문자2(남): 우리 한마음선원 법당에는….

▲스님: 네, 그래요! 참, 그렇군요. 하하하! 그래서 모두가 아주 쉽게 인식하고 가게 만들려면 아버지 하나면 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면 족하듯이 바로 부처님은 하나이지 둘이 아닙니다. 수천수만 분이 깨쳤다 하더라도 평등공법 봉, 봉에 같이 모든 마음이 한마음이 돼서 주둔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따로 부처가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높고 낮음이 없이 한마음으로 공생 공용 공체 공식화 하고 돌아가고 평등하다는 그 뜻으로 바로 여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몸 한 체 한 체가 여래의 집입니다. 바로 이 속에 있는 모든 자생중생들이 화하게 되면, 바로 제도가 되면 그 여래 집 안의 여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나 아님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깨치면 그냥 여래지요, 여래의 집이고요. 그리고 또 외부로 따진다면 따로따로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같이같이 맞물려서 모두가 같이 돌아가지요. 생각을 해 보세요. 세상을 내다보세요. 하나나 혼자 살 수 있는 세계인가. 독불장군으로 혼자 사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북하면 무시무종이라고 했을까요.

▲질문자2(남): 감사합니다.

▲질문자3(여): 스님, 감사합니다. 오분향 설명을 하실 때에 스님과 부처님께 누가 되게 하지 말라고 가르치셨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부끄럽게 생각한 것을 오늘 스님 법문 자락을 붙들고 좀더 정진하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7월 말에 봉정암에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첫길인데다가 듣기로는 일곱 시간이 걸린다, 뭐 너무 힘들다, 깔딱 고개가 어떻다 이래서 '갈 수 있을까?'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그래서 '아, 이게 내가 가는 게 아니고 주인공이 가는 거 아니냐. 주인공이 가자! 근데 주인공 그 자리에서 축지법은 못 쓰더라도, 벌써 왔나 하는 정도의 마음으로 갈 수 있을 거다. 주인공이 해!' 이렇게 하고 백담사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가면서 제 나름으로 의문이 생기길 '봉정암에 사리를 친견하고 무슨 복을 달라고 기도하러 가는 것은 아닐 거고 주인공이 가기는 가는데 나에게 무엇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내 나름으로 의문을 삼았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6월인가 7월 셋째주 법회 때 스님께서 '제발 직코스로 들어가라' 하신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래, 주인공! 직코스로 들어가자. 오늘 직코스로 들어가서 내가 봉정암 사리탑에 가면 사리를 친견하는 것이 아니라 삼천 년 전 부처님의 마음을 보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 마음을 볼 수 있게 해! 주인공이 가르쳐 줘!' 이렇게 하고

☞30면으로 계속

> 삼천대천세계 우주 삼라만상이
> 전부 하나로 돌아가며
> 그 하나마저도 공했다



그림 · 최주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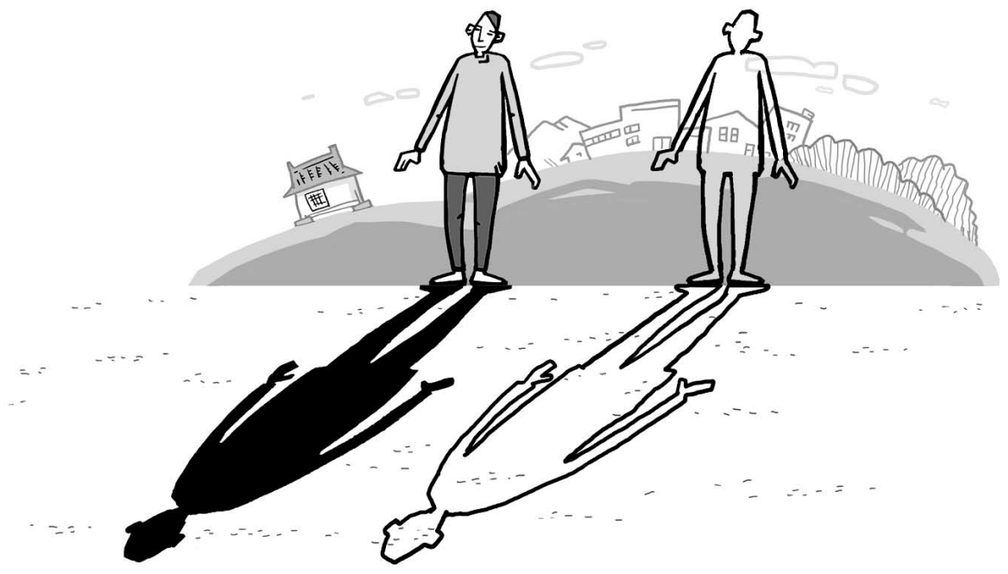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여러분의 몸 하나 하나가 여래의 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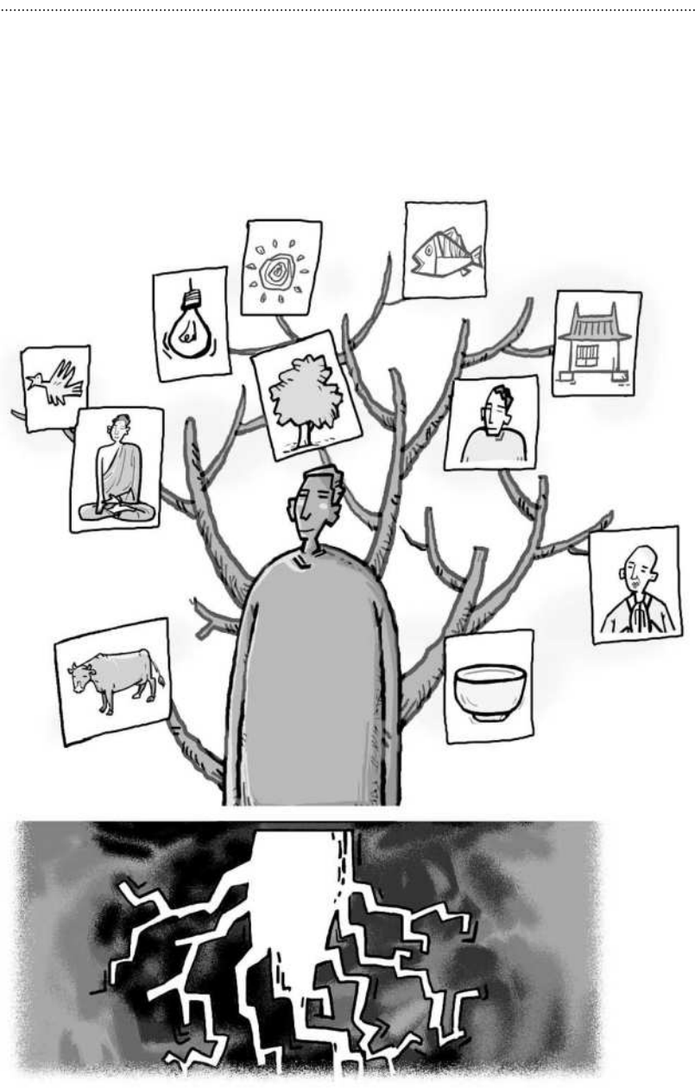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29면에서 계속

올라갔습니다. 계속 '직코스로 들어가자, 주인공!' 하면서 갔는데 정말로 아직 더 남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모퉁이를 도니까 다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아하, 이거였구나! 축지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쉽게 올라올 수 있었고 뜻밖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오늘 가져온 의문을 풀 수 있지 않을까. 주인공이 나한테 가르쳐 줄 것!'

그런 생각을 하면서 법당에 들어가서 삼배를 하고 탁 돌아서 나오는 순간에 마침 풀숲에서 다람쥐 한 마리가 쪼르르 올라왔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에 '그래, 삼천 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이 오늘 이 부처님과 다름이 없고 모두 한마음 주인공이라면 너하고 나하고도 둘이 아닐 것이 아니냐, 주인공. 다람쥐, 너들 나하고 다르겠느냐. 한마음이라면 네 얼굴 한번 보자.' 이렇게 제 마음속으로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다람쥐가 가다가 탁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그 등에 대고 '그래, 보여 줘. 정말로 한마음이라면 보여 줘. 네 얼굴 한번 보자.' 이렇게 하니까 다람쥐가 얼굴을 탁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람쥐를 보면서 '아, 그래 고맙다. 가르쳐 줘서 고맙다.' 이렇게 하는 순간에 다시 다람쥐가 숲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한마음이라는 것, 그러니까 스님께서 말씀하신 풀 하나라도 둘이 아니라는 그런 것이구나 하고 제 나름대로 이제 환희심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한 1주일쯤 지난 뒤에 꿈을 꾸는데 꼭 이와 같이 제가 마이크를 들고 스님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스님, 제가 봉정암에 갔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지금 한 이야기를 이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을 믿는다 믿는다 하면서도 제 생각에 '정말 내 주인공에 관한 것이 직통으로 통했을까?' 하는 못 믿는 구석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제가 스스로를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마침 질문의 기회가 있어 스님 말씀을 한번 듣고 싶어서 제가 경험했던 이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아마 제가 믿는다 하면서도 혹시라도 못 믿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

▲스님: 이거 보세요. 지금 우리가 작년에 수박을 심어서 먹고 씨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 수박씨를 심어서 수박이 또 됐습니다. 근데 작년 수박하고 올 수박하고 다릅니까? 그게 다르지 않습니다.

▲질문자3(여): 예.

▲스님: 바로 아버지가 아들을 낳아서 다르다는 거와 같이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씨가 그 씨고 그 수박이 그 수박이니까요. 삼천 년 전 부처님의 마음이나 지금 현재의 여러분의 마음이나 둘이 아닙니다. 바로 마음은 체가 없어서 우리가 지금 금방 이 자리에 앉아서 집에 갔다 오시라면 갔다 오실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앉아서도 뭐가 어디 있고 뭐가 어디 있고 통장은 어디다 뒀고, 하하하…, 밥통은 어디 있고 똥통은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듯이 마음은 체가 없어서 그렇게 묘하게 지구 밖을 벗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물주머니에서 나와서 물주머니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물주머니에서 살고 있다는 거는 어항 속에서 살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다 이 소립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의 모든 자생중생들을 제도하고 위로는 이 어항 속에서 벗어나고, 일체제불의 마음과 내 마음이 둘이 아니게 항상 찰나찰나 서로가 통하고 이렇게 삶을 살면 우린 작년이 따로 없고 올이 따로 없고 내년이 따로 없습니다. 모습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날이 가고 해가 가고 세월이 흐르면서, 변하고 화하고 또 변하면서 이렇게 자꾸 바뀌 가며 살고 있습니다. 별성도 또 자기 몸을 바꿔 가면서 이렇게 살고 있고 우리도 역시 자꾸자꾸 바뀌 가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생각을 어떻게 하고 행동을 어떻게 하고 말을 어떻게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미래의 오늘에 오는 그 모습은 짐승의 모습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사람의 몸으로 살다가 짐승의 몸을 가져올 수도 있고 짐승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가 사람의 모습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마음과 마음을, 항상 자기를 잘 이끌어 가는 채찍이 돼야 된다는 얘깁니다.

아까 그 다람쥐 얘기를 하는데요, 한번 벽을 치면 봇장이 울리듯이 '삼천 년 전에 있는 부처님의 마음을 알려 다오.' 그랬으니 그 다람쥐가 보였다 하더라도 살았다는 걸로 아셔야 됩니다. 지금도 살고 계시다는 거를 말입니다. 네? 그 다람쥐의 모습을 보지 말고 다람쥐가 움죽거리고 살았다는, 지금도 현적(顯跡)하게 부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

▲질문자4(남):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한 시간 내 주셔서 정말, 오늘 여기 오신 신도님들을 대표해서 다시 한 번 감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신도님들은 법문을 굉장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서는 그 실천 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들을 때는 깊은 감명 감동을 가지면서 '아, 그렇구나!' 하고 듣고 갑니다. 그러나 돌아서 나가면 그 행이 이루어지질 않고 저버려집니다. 그래서 우리 신도님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자세를 가지는 것과 아울러 가정생활을 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실천이 되고 지속적으로 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말씀해 주셔서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게끔 가르쳐 주십시오.

▲스님: 절에 많이 다니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하나도 안 해 주고 만날 그저 이 말 저 말 끌어다 대서 말을 한다고 그러실는지도 모르지만, 부처님께서 전자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지금 현재의 용어로 바꿔서 얘기해 드린 거지 그게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시고, 지금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부터 아셔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삼천 년 전에 그러셨고 사대 성인들도 그러셨어요. "너부터 알라." 했습니다. 달마 대사도 그 소리 했다고 약사발을 받고 소크라테스도 약사발을 받았습니다만 내막을 본다면 그분들만 그렇게 약사발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 육신이 나무라면 뿌리는 그 나무 밑에 있다. 그러니 나무 밑에 있는 뿌리한테 믿고 맡겨 놔라 이겁니다. '해 주시오'가 아닙니다. '할 수 있다'라고 해야 합니다. '해 주시오' 하면 벌써 둘이 돼요. 그러니까 '너만이 낫게 할 수 있다.' 이런다면 금방 약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게 화합니다. 그래서 나투어 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로 인해서 관한다면 관세음이 돼 주고 신장이 돼 주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여러 가지로 나투어 주십니다. 그러면 안에서 자생중생이 화해서 그렇게 보살의 나툼으로 응신이 돼 주십니다. 그러면 안에서 깨달음도 있고 물리도 터지고 지혜도 생기고 또 생활하는 데도 이익하게 돌아가고, 얼마나 좋은 법입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자기 주인공을 진짜로 믿어서, 자기 뿌리를 믿지 않고 딴 뿌리에다 들이대고 기도하지 말고 내 뿌리에다 들이대고 '너만이 할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안에서 일어나는 것, 외부에서 다가오는 것, 모든 것을 '너만이 할 수 있고 너만이 낫게 할 수 있고 너만이 화목하게 할 수 있고, 너만이 이끌어 줄 수 있고 너만이 물리가 터지게 할 수 있고 너만이 네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할 수 있고….' 하고 맡기세요. 모두 거기다가 맡겨 놓으시고 '너만이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믿는다면 아주 그냥 밝아지지요. 생활이 윤택해집니다.

그렇게 알아야 모든 일체제불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골수도 알 수가 있고 일체 중생들의 마음도 알 수가 있고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님도 알 수 있고, 이 세상을 모두 내 마음대로 자유자재할 수 있다 이 소립니다.

> "모든 것을 근본에다 맡겨 놓고
> 진실로 믿는다면 아주 그냥 밝아집니다
> 그리고 생활이 윤택해집니다!"

※위 법문은 1993년 10월 10일 부산대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거룩한 만날 800회 특집
나누는 마음, 아름다운 세상

1991년 4월 첫 방송이래 16년을 한결같이 자비행을 실천하신 애청자여러분,
감사합니다.
거룩한 만남이 800회를 맞아 감사의 자리를 마련합니다.
2006년 11월 6일 월요일 오후 2시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뵙겠습니다.

www.bbsfm.co.kr 서울 FM 101.9 Mhz

BBS 불교방송

부산 89.9 Mhz / 광주 89.7 Mhz / 대구 94.5 Mhz / 청주 96.7 Mhz / 춘천 100.1 Mhz / 안동97.7 Mhz / 포항 105.5 Mhz

인연을 짓다 (하)

황해성(군산시 지곡동)

아주머니는 수술 후 며칠 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난 며칠 전처럼 초조하거나 불안하지만은 않았다. 초조한 마음이 들면 이내 주인공을 찾았다.

"주인공 너만이 할 수 있어" 그렇게 주인공에게 계속해서 말기고 또 말겼다. 그러면서 틈틈이 <삶은 고가 아니다>를 몇 번이고 읽어 내려갔다. 처음 읽었을 때와 달리 힘들고 고단한 스님의 삶은 내 심장을 아리게 만들어 눈물을 훔치게 했고, 당당히 걸으신 구도의 이야기는 감사하지 못하고 오만했던 내 삶을 뒤돌아보게 했다.

며칠 후 난 다시 신기한 꿈을 꾸었다. 빛 하나 없는 깜깜한 바다 속으로 의식을 잃은 채 난 끝없이 가라앉고 있었다. 한도 끝도 없이 가라앉던 난 희미한 불빛에 눈을 뜨고 빛이 있는 쪽으로 헤엄을 쳐갔다. 밝은 빛 속엔 부처님 한 분이 너무도 밝은 미소를 지으시고 나를 바라보시며 앉아 계셨다.

난 너무 신기해 '야 이렇게 깊은 바다 속에도 부처님이 계시네?' 하고 생각했다. 그때 어디선가 '난 해수관음이니라' 하는 맑은 음성이 들려왔다.

참 신기한 꿈이었다. 더 신기한 것은 그 꿈을 꾼 날 기분 좋게 하루 일과를 끝내고 병원을 찾아가니 부상이 경미했던 아주머니는 퇴원을 하셨고, 의식이 없던 아주머니는 의식이 돌아왔다는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었다.

병실에 들어서니 아저씨가 아주머니에게 죽을 먹여주고 계셨다. 아저씨께서 아주머니에게 큰소리로 말씀을 하셨다.

"여보! 이 사람이 당신 사고 낸 그 사람이야. 알겠어? 그동안 매일 당신 보러 왔었어!"

아주머니는 날 물끄러미 바라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뭐라고 말씀을 하셨다. 아저씨는 아주머니 입에 귀를 바짝 대고 들으시더니 내게 말씀하셨다.

"고맙다네, 자네!"

정말 날 알아보시고 하시는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난 너무 고맙고 감사했다.

아저씨는 아주머니가 이제 식구들도 다 알아보시고 고비는 넘긴 것 같다며 내 어깨를 두드려 주셨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사고 내고 싶어서 내는 사람도 없고, 저 사람도 자네도 운이 없었다고 생각하게."

아저씨 말을 듣는 순간 왈칵 눈물이 쏟아졌다. 아저씨는 그런 내 손을 잡으시며 "많이 힘들었을 거야. 이제 그만 오게, 마음 써줘서 많이 고마웠네"하고 말씀하셨다.

고마웠다. 그리고 감사했다. 이렇게 좋은 분들과 인연 짓게 되어 고마웠고 또 내 삶을 뒤돌아보고 이 인연으로 인해 마음의 주인공을 알게 된 것이 무엇보다 고맙고 감사했다.

그 후 내 삶은 많은 변화가 있었다. 연중무휴의 3교대 근무에도 휴일이면 안양까지 선원을 찾아갔다. 비록 천수경도 반야심경도 알지 못했고 예불도 드릴 줄 몰랐지만 그냥 선원에 앉아 있는 것이 좋았다.

신도들을 따라 도는 탑돌이도, 큰 감나무 밑의 벤치도, 항상 밝게 웃으시며 합장하며 인사를 건네시는 신도님들의 웃음 띤 얼굴들도 너무 좋았다. 법당 안에 걸려 있는 큰스님 말씀 하나하나는 가슴속에 들어와 감동을 주었다.

그만 오라는 아저씨의 말에도 가끔씩 찾아 뵌 아주머니는 물리치료를 받으며 차츰 좋아지고 있었다.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지나니 진짜 '마음공부'가 무엇인지 제대로 공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몇 달 동안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불교에 관한 책도 사보고 했지만 확실한 어떤 답을 얻을 수가 없었다. 스님들께 가르침을 구하고도 싶었지만 신도들이 너무 많아 정신없이 바쁜 스님들에게 선뜻 용기를 내어 가르침을 구하기도 쉽지가 않았다.

집 근처 절에도 가보고 인터넷의 온라인 법당이며 불교관련 사이트를 찾아다니며 법을 구해봤지만 마음만 점점 더 혼란스럽고 조급증만 더해져 갔다.

한편으론, 혹여 내가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 벗어났다고 해서 마음이 흐트러지고 나태해져 편하고 쉬운 어떤 방법을 찾는 건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들었다.

'내가 구하고 있는 이것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용기를 내서 한마음 선원 홈페이지에 가르침을 구하는 글을 올렸더니 생각지도 않게 답변 메일을 받았다.

"내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근본에서 나고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매사 모든 것을 근본에다 진실하게 맡겨놓고 '당신만이 해결 할 수 있다'고 지극하게 믿고 맡기세요. 가스레인지 하나만 있으면 라면도 끓여 먹고, 밥도 해 먹고, 국도 끓이듯이 내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근본에다 맡겨놓고 마음을 편안히 하세요. 가스레인지를 쓸 줄만 알면 모든 것을 다 해 먹고도 부족함이 없듯이 그렇게 본래 갖추어져 있는 것이 이 마음의 도리이니까요."

망치로 얻어맞은 듯 온몸에 전율이 일었다. 다 맡기면 그만인 것을, 근본에서 나온 것 근본에다 맡기면 그만인 것을 무슨 가르침이며 받을 것이며 방법을 구하려고 조바심을 내고 찾아 다녔는지….

어렵고 힘들고 아무것도 모를 땐 모든 걸 믿고 맡길 수 있었는데 이제 조금 편해지고 뭘 좀 알게 되면서부터 무엇을 바라고 이루려고 했던 내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구하는 방법까지도 주인공에게 다 맡기면 그만인 것일 뿐인데 말이다.

얼마전부터 근무지가 바뀌는 바람에 전라도 군산으로 이사를 오게 되어 선원에 나가질 못하고 있다. 직장일이 바빠 이곳의 절에도 다닐 여유가 없다. 그래서 틈날 때마다 인터넷을 이용해 신행을 하고 있다. 인터넷 카페 '열린 절'의 법현 스님으로부터 아침마다 108배를 해보라는 권유로 작년 추석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를 하고 108배를 하고 있다.

라디오 방송 중 '정목스님의 마음으로 듣는 음악' 도 열심히 애청하며 내 안에 나를 가두지 않고 모든 것을 믿고 맡기며 자유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지금도 귓가에 큰스님의 말씀이 들리는 듯하다.

"주인공에게 맡기고 지켜보면서 마음을 편안히 가지세요."

교통사고로 인해 고통을 받고 계신 김연순 님이 하루 빨리 쾌차하시길 빌며, 또 '마음 주인공'을 알게 해준 인연에도 깊이 감사를 드린다. (끝)

의식 돌아왔다는 아저씨 말에 눈물 쏟아
사고 후 휴일이면 선원 찾아가 마음공부
믿고 맡기는 삶 알게 해준 인연에 감사



그림 · 문병성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또는 신행의 현장에서 자신의 가슴에 차곡차곡 담아두었던 체험을 수기로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귀중한 신행체험 수기는 많은 불자들의 신행생활에 좋은 지표가 될 것입니다.

- 주제: 일상속의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삶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장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2004-8241
- 인터넷 접수: bypark@buddhapia.com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두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30,000원)
- 온라인 번호 :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 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 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직위 해제 및 제적공고

- 승려번호 : 한불정1999-103
- 사 암 명 : 한국불교정토종 연화사 (淵華寺)
- 주 소 :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110번지 학산B/D B1
- 성 명 : 정영춘(鄭永椿)
- 법 명 : 회암(回庵)
- 직 위 : 한국불교정토종 전 총무원장

상기인을 본 종단 종헌 제 92조 4항 및 종헌 · 종법 시행규칙 제99조 나항의 2), 4)에 의거 2006년 10월 16일자로 한국불교정토종 총무원장의 직위를 해제하고 본 종단에 등록한 승적을 제적함을 공고합니다.

2006년 10월 16일

한국불교정토종 총무원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 2동 25-12 석목빌딩 701호
032)867-2694

척추 골반교정 초능력氣 특강비법 전수

비틀어진 척추가 만병의 원인! 척추신경 바로잡아 모든 병 없앤다.

각 척추에 의한 영향



특전속성반
수료자는 본협회, 단증 수료증 부여 (선착순 약간명)

수련안내
- 기 간 : 2006년 10월 31일부터
- 주 간 반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5시(4주)
- 주 말 반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5시(4주)
- 장 소 : 본 협회(총본관)
- 수련비용 : 40만원(속성반)

※ 협회장 직접 전수함
(수련과정 종료후 활용가능하며, 이제는 효과를 바로 보여줘야 합니다)

수련과정
목, 어깨, 오십견, 좌골신경통, 짝다리, 특수교정법, 운동처방법 카이로프락틱, 명상 혈문여는법, 기공술(이론과 실기 위주)

평생 활용 할 수 있는 제 3의 대체요법

(종교법인) (특허등록)
대한불교기공활법협회
대불카이로프락틱협회
총본관 053)357-0204~5 FAX 053)357-0237
http://www.dsa21.com

여러분 아직도 레이키(Reiki 靈氣)를 모르십니까?

레이키는 일본의 우스이 미카오(1865~1926)씨가 발견하고 개발해 20세기 전반기에 약손요법, 氣주입법, 氣치료법으로서 일본의 대중사회에 일대 유행을 일으켰던 대체요법 보완요법의 체계입니다. 바로 氣요법가가 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것이 1980년 부터 미국에서 붐을 일으키면서 전세계로 보급되기 시작한 후 현재는 50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국민의 질병예방, 건강관리, 질병의 치료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레이키는 특히 여러가지의 심신상과성 질환과 스트레스 관리에 좋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 동서양식 레이키: 교육비 55만원, 교육기간 2~3일

▶ 교육내용
- 자기치료법 • 타인치료법
- 원격치료법 • 마음의 버릇 치료법
- 영성향상법 • 면역력강화법
- 동식물에 대한 氣 주입법, 종합요법 등

▶ 교육 후 1개월 내외 무료복습 · 보충 교육제도실시

인터넷 : www.Reiki.co.kr
한글검색어 : 레이키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회장 박희준)
전 화 02)720-5719, 720-5682
핸드폰 010-8392-2557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2가 89-27 피어선빌딩 809호실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5번 출구에서 경향신문사 방향으로 10분

퇴행성관절염 · 류마티스 신경통 · 오십견 · 디스크

한방요법으로 치료한다-관신환

상기 관절염 등 증상을 중단, 완화, 치료할 수 있는
관 신 환(丸)

통상 관절염이란 관절에 염증성 변화가 생기는 모든 종류의 질환을 지칭하며 궁극적으로는 연골과 뼈를 손상시키며 심해지면 뼈와 뼈가 직접 부딪치거나 뼈가 기형화되기도 하면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킵니다.



윤량한의원의 윤량원장은 수십년동안 퇴행성관절염 · 류마티스 · 신경통 · 오십견 · 디스크 등의 환자와 전쟁하면서 연구개발한 관신환(丸)을 처방하여 환자에게 임상 결과 80~90% 이상 호전반응이 나오며 관신환(丸)을 5~7일만 복용해도 부드러운 느낌을 받으며 그동안 어떤 관절염 약을 복용해도 못 느끼는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상담 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을 하시고 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한약은 한의사와 상담 후 처방됩니다.

관신환을 드실 분
-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에 무리가 오시는 분
- 기타 퇴행성관절염 증상이 심하신 분
- 류마티스관절염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 위궤양때문에 관절염 약을 못드시는 분
- 수술후 후유증이나 회복이 잘 안되시는 분
- 교통사고 이후에 통증이 심하신 분
- 신경통, 류마티스, 오십견, 디스크 등이 아프신 분

윤량한의원 상담문의 080-598-9832

“법을 설하리” 큰 수레 굴리는 경이적인 순간

불화 속의 명장면 (17)

설법인 보살형 노사나불의 출현(상)



그림1 : 공주 신원사 노사나불 괘불, 조선후기



그림2 : 노사나불 보관의 화불(化佛)

공주 신원사 괘불 ‘노사나불도’

석가모니는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은 뒤에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각(正覺, 깨달음)을 통해 힘겹게 얻게 된 이 진리를 이야기할 것인가 말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이미 어리석음과 탐욕과 노여움의 격정에 불타고 있어, 자신이 깨달은 이 심심 미묘한 진리를 이야기해도 알아듣지 못하거니와 아니면 곡해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석가모니는 고민 끝에 침묵하기로 합니다. 한참 주저하던 그는 깨달은 것을 혼자만 갖고 있기로 합니다.

이때 범천(梵天 우주만물의 근원을 상징하는 고대 인도 신 브라흐만)이 나타나, “석가모니, 당신마저 침묵하면 이 세상은 희망이 없다”며 그의 설법을 적극 유도하는데, 이것이 바로 ‘범천권청(梵天勸請)’의 순간입니다. 석가모니의 일대기 중, 가장 중요한 갈림길에는 인도 고유의 가장 파워풀한 신이 등장하여 그를 돕는 경향이 있습니다. 석가모니의 정각의 순간도 그렇지요.

석가가 바야흐로 정각을 이루려 하자, 마왕 파순이 나타나 네가 이룬 것은 정각이 아니라고 부정합니다. “이를 도대체 누가 증명할 수 있느냐”며 그의 신념을 뿌리채 흔듭니다. 이에 석가모니가 손가락을 들어 땅을 가리키자, 지신(地神)이 나타나 그의 정각을 천하에 증명하고 삼천대천세계를 크게 진동시켰다지요.

득도 후 깨달은 것을 ‘설법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고민하는 이 순간에는 인도 고유신 범천이 나타나, 안으로만 침잠하려는 석가모니에게 눈을 들어 세상을 보라고 합니다. 그의 눈에는 가지각색의 근기(根機, 중생 개개인의 제각기 다른 능력 또는 인성)의 사람들이 들어왔겠지요.

그렇다면 설법(說法)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가 왜 이리도 중요할까요.

이는 자신만의 영혼 구제에 그치느냐 아니면 이 깨달음을 가지고 대중을 구제하는 방편으로 삼느냐라는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안으로 스스로 점수(漸修)하여 각고의 노력 끝에 깨달은 것, 그 득도의 지적 희열(法悅)을 혼자만 만끽하는 단계가 ‘소승(小乘)’이라면, 이제 눈을 밖으로 돌려 무명 속에 헤매는 민중을 구하고자 ‘설법’이라는 ‘자비의 방편’으로 세상 속으로 뛰어드는 것, 이는 ‘대승(大乘)’이겠지요. 석가모니의 설법 결심! 바로 소승에서 대승으로 전환이 일어나는 경이적인 순간인 것입니다.

해탈을 통해 저 피안으로 가버리지 않고 대중 구제를 위해 세상에 남아 그가 깨달은 것을 ‘설법’하는 이 순간은, 그가 ‘보살’로 전이되는 순간입니다. 고려말부터 보이기 시작해 조선시대를 풍미한 노사나불(盧舍那佛)은 바로 이러한 일종의 종교적 비약의 순간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노사나불은 ‘설법인(說法印)’의 ‘보살형(菩薩形)’ 존상을 하고 있고, 이 점이 가장 큰 도상학적 특징이라 하겠습니다.(그림1)

두 팔을 양쪽으로 어깨높이에서 벌려 손바닥이 위로 가게 손목을 뒤로 젖히고, 손가락은 엄지와 약지가 살짝 만나게 둥글게 설법인을 이룹니다. 그리고 분명 여래인데도 불구하고 보살처럼 화려하고 높은 보관에 천의와 영락으로 화려하게 장엄을 하였습니다. 당연히 여래라면 법의를 걸친 것 이외에는 보관 및 장신구 등 아무런 호사스런 장식이 없어야겠지요.

어찌보면 여래도 아니고 보살도 아닌, 아니면 여래이기도 하고 보살이기도 한 존상. 결국 ‘보살형(菩薩形) 여래(如來)’라는 모순적 명칭을 붙일 수밖에 없는 존상입니다. 바로 이 여래와 보살의 중간적 존재, 바로 이 ‘대승보살(大乘菩薩)’의 개념 속에, ‘불교의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엄의 절대 진리는 비로자나(virocana 光明遍照, 세상에 두루 비치는 빛)로 상징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원효와 의상 등의 대승에 의해 화엄사상이 한창 꽃피었던 통일신라 시대부터 지권인(智拳印)의 여래로 만들어져 그 유구한 전통을 자랑합니다. 이 비로자나는 절대 진리 그 자체로, 각종 경전에 말이나 형상으로 표현 불가능하다고 구구절절 설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비로자나는 법신(法身) 그 자체이므로 형상화될 경우에는 보신(報身) 노사나불의 형태를 취합니다. 표현 불가능한 진리(비로자나)가 표현된 것(노사나), 그러니까 이 양자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은 존재라고나 할까요.

‘설법인’의 ’보살형’ 존상 가장 큰 도상학적 특징
법신이 형상화될 경우 보신인 노사나불 형태 취해
화엄삼매 얻은 힘으로 자유자재하게 중생 교화

<화엄경>의 ‘현수보살품’에는 바로 여래와 보살의 근본 의미와 양자의 관계가 아주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모든 번뇌의 파도가 가라앉은 청정한 마음의 고요하고 맑은 상태, 즉 적멸(寂滅)의 상태를 ‘해인삼매(海印三昧)라 하고, 여기에 만물이 있는 모습 그대로 투영되어 작용하는 상태를 ‘화엄삼매(華嚴三昧)’라고 합니다. 화엄학의 대가 카마타 시게오씨는 ‘법신의 묘한 과보를 장엄하는 것을 화엄삼매라고 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화엄삼매를 얻은 힘으로 비로소 자유자재하게 중생을 교화하고 설법하고 무변무한한 모습으로 ‘작용(作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체(體)와 용(用)의 관계, 바로 해인삼매(體)가 법신 비로자나라면 화엄삼매(用)는 보신 노사나가 아닌가요. 그 작용 자체가 바로 법신(眞理)을 ‘장엄(莊嚴)’하는 행위가 되겠지요. 그렇다면 <화엄경(華嚴經)>이라는 경전이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잡힐 것만도 같습니다.

중생의 원하는 것에 따라 무변하게 작용하여 나타난 것이 바로 우리 앞에 계신 수많은 부처와 보살, 그리고 호법신들이겠지요. 법신의 작용으로서의 보신 노사나불. 그러니 노사나불 속에는 세상에서 추존되는 모든 ‘여래 및 보살’을 통합하는 함축적 의미가 들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장엄이라고 하면 우리들은 보통 시각적 장식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화엄경> ‘십지품’에서는 ‘보살행(菩薩行)으로 삼계를 장엄하는 실천적 장엄을 강조합니다. 보살행 중에서도 가르침을 통한 중생 인도, 다양한 능력과 수준의 대중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걸림이 없는 자유자재로운 설법의 변재가 요구되므로, ‘보살은 법사(法師)’라고 칭해집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연유로 노사나불이 여래이면서도 보살의 형식을 취해 극히 화려한 장엄을 하고 또 설법인의 수인을 결하고 있는지, 그 가장 근본적인 종교적 의미를 알 수 있겠지요.

강소연(미술사학자 · 홍익대 겸임교수)



그림3 : 노사나불 두광에서 뻗어나오는 빛줄기. 화생하는 부처와 보살, 운집한 제자

희담석 건강용품 특별할인판매

희담석의 특징은 에너지 방사능력으로서,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거친 재료만을 사용하였습니다.

30년 경력의 장인이 희담석에 분청토를 섞어 섭씨 1300도의 가마에서 구워낸 제품입니다.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 고유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이런 분께 권합니다
• 수행하시는 분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분
• 목과 팔목의 뻐근함을 느끼시는 분
• 피로가 누적된 분
•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은 수험생
• 컴퓨터를 많이 하시는 샐러리맨

* 희담석 염주는 수행에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희담석(염주, 합장주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염주세트
38,500원(염주,합장주,염주 주머니)
· 사이즈 : 직경 10mm · 재 질 : 희담석, 분청토



희담석 방석
~~198,000~~ → 158,400원 (20%할인)
· 규격 : 425mm × 400mm
· 무게 : 950g ~ 1000g
· 색상 : 살구색, 쥐색
· 재질 : 겉커버-고급 샤넬천,
속커버- 희담석 알갱이가 들어있는 고급 방수천



희담석 허리팩
~~44,000~~ → 35,200원 (20%할인)
· 총길이 : 120.5cm
· 표피 : 무독성 PVC sheet (항균 99.9%의 금가루 첨가)
· 내용물 : 희담석가루, 물, 수지
· 겉재질 : 항균PVC시트 (기존PVC시트가 항균작용에 취약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항균작용을 위해 순금을 첨가 하여 항균99.9%의 항균작용을 하여 희담석의 강력한 기운과 함께 시트의 항균작용이 결합하여 더욱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보 이 차
~~600,000~~ → 500,000원
· 구성 : 보이차 14편, 자사통

보이햇차는 모두 수작업으로 제작하여 떫거나 쓰지 않은 최고급 보이차입니다.
보이햇차 야생지 : 운남성의 서북지방(고리공산)으로 서쪽으로는 ‘티벳’, 동쪽으로는 ‘샹그리라’가 인접한 험한 산악지형으로 매우 청정한 지역임

자사통
보이차의 자사통은 이싱 정산에 위치한 황용산의 홍니만을 사용하여 직접 작가에게 주문 의뢰한 작품으로 순수한 자사의 원료로 만듭니다.
· 크기 : 지름 29cm, 높이 37cm
· 종류 : 담녹색, 황토색
■ 수입원 : ㈜홍다원
홍다원의 보이차는 식약청의 검사를 통해 직수입하고 있습니다.

주문 전화 현대불교신문사 영업팀 02)2004-8213~9
[국민은행] 006-25-0023-989 (주)현대불교신문사